

2022 개정 교육과정

대구광역시교육감 인정

2025학년도 전시본

고등학교

논술

신홍규
김상욱
김중현
안치환
우보영
윤윤구
이주영
장성민

하늘이두



교과서 물려주기 기록표

연도	교과서 사용자				상태
	학년	반	번호	이름	
					😊😐😓😞
					😊😐😓😞
					😊😐😓😞

상태 표기: 😊매우 좋음, 😐중음, 😓보통, 😞나쁨

고
등
학
교

논 술

신흥규
김상욱
김중현
안치환
우보영
윤윤구
이주영
장성민



“
깊이 있는 사고로
세상을 바라보는 힘을 키우는 논술
”

이 책의 구성과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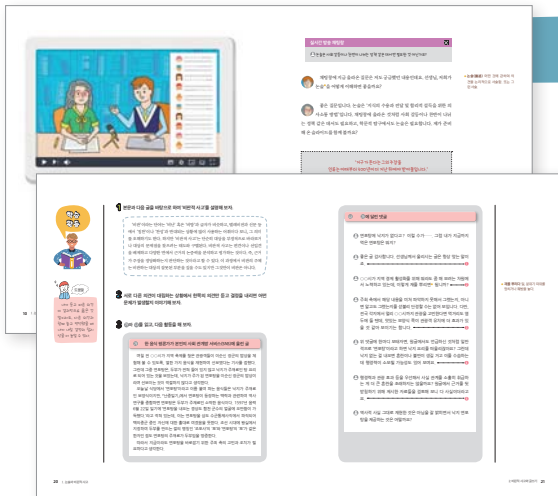
대단원 도입

- 이 단원에서는 어떤 내용을 배울지 간단히 소개하였다.
- 미리 보기 단원의 학습 내용과 흐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단원의 핵심 내용을 도식으로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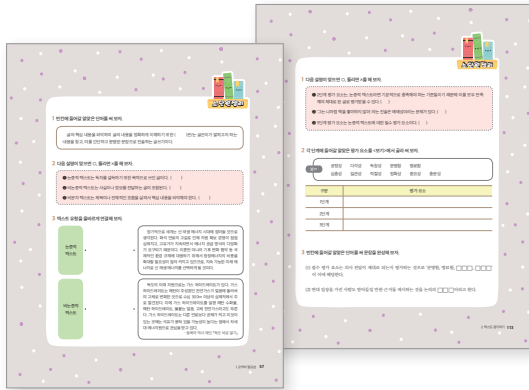
소단원 도입

- 학습 목표 소단원의 학습 목표를 제시하였다.
- 생각 열기 단원 학습 내용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황과 자료를 바탕으로 한 활동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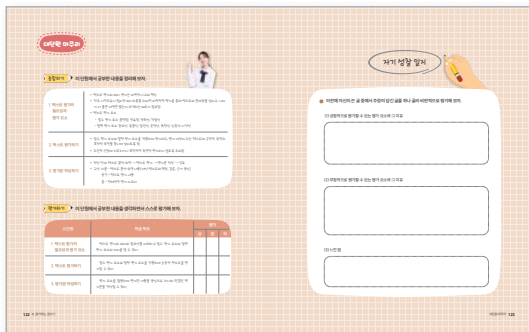
소단원 전개

- 본문 학습 소단원 학습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례와 도표를 활용하여 본문을 구성하였다. 본문 옆에는 어려운 어휘의 뜻풀이와 도움말을 제시하여 본문을 읽을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학습 활동 본문 학습을 통해 이해한 개념과 원리를 실제 글쓰기에 적용해 볼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제시하였다. 도움말을 제시하여 활동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였다.



소단원 정리

소단원의 학습 내용을 바탕으로 '빈칸 채우기, OX 문제, 줄긋기, <보기>에서 고르기' 등 다양한 형태의 간단한 퀴즈 문제들을 구성하여, 학습 내용을 정리하고 이해 정도를 점검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대단원 마무리

- **종합하기** 대단원에서 학습한 주요 내용을 요약·정리하여 제시하였다.
- **평가하기** 대단원 학습을 되돌아보며, 자신의 학습 결과를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 **자기 성찰 일지** 대단원 학습 내용과 관련하여 자신이 작성한 글이나 이전의 과제물, 경험 등을 성찰해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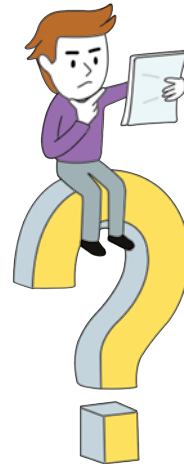
부록 - 프로젝트 활동

'실생활 속 시사적인 주제' 또는 '희망 진로'에 대해 깊이 있게 성찰해 보고, 한 편의 논술문을 써 볼 수 있는 프로젝트 활동을 특별 부록 형태로 제시하였다.

I

논술과 비판적 사고

1. 합리적 설득과 논술 8
2. 비판적 사고와 글쓰기 16
3. 글쓰기 윤리와 자료 활용법 24



II

요약하는 글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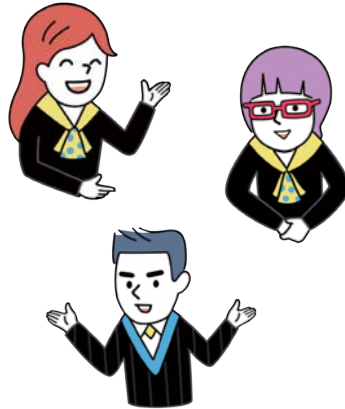
1. 요약의 필요성 44
2. 텍스트 유형별 분석 방법 58
3. 요약문 작성하기 70



III

평가하는 글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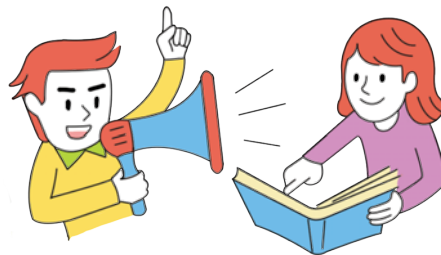
1. 텍스트 평가의 필요성과 평가 요소 90
2. 텍스트 평가하기 100
3. 평가문 작성하기 114



IV

주장하는 글쓰기

1. 주장하는 글쓰기의 필요성 128
2. 주장하는 글 작성하기 138
3. 주장하는 글 고쳐쓰기 158



부록

• 프로젝트 활동 174 • 인용 자료 및 사진 자료 출처 196



I

논술과 비판적 사고

1. 합리적 설득과 논술
2. 비판적 사고와 글쓰기
3. 글쓰기 윤리와 자료 활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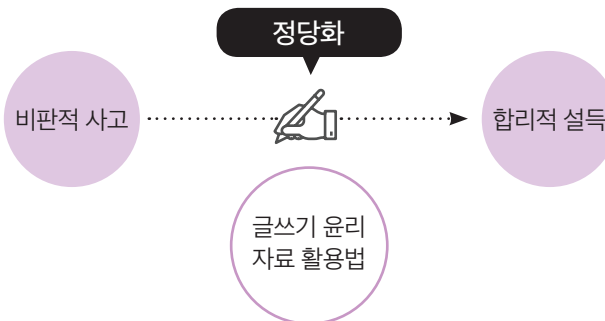




이 단원에서는

논술의 지향점이 '합리적 설득'이고, 논술의 원동력이 '비판적 사고'임을 차례로 학습한다. 그리고 좋은 논술이 되기 위해서는 '글 쓰기 윤리'와 '자료 활용법'이 온전히 지켜져야 하며, '정당화'에 따라 글이 전개되어야 함을 알아본다.

미리 보기



1. 합리적 설득과 논술

생각 열기

다음은 한 학생이 휴대 전화로 가족과 나눈 대화이다.

이를 보고 활동을 해 보자.



엄마

아들, 집에 다 와 가니?

네, 다음 정류장에서 내려요.



엄마

잘 됐다. 내려서 바로 집으로 오지 말고, 정류장 건너편 편의점에서 에이에이에이(AAA) 건전지 4개 사 오렴.

네? 길 건너갔다 돌아오는 거 귀찮은데…… 지금 꼭 사야 해요?



누나

동생, 지금 엄마 말에 토 다는 거야? 오랜만에 누나한테 혼나고 사 올래?



동생

오빠, 건전지는 오빠를 위한 거야.



아빠

네가 평소에 갖고 싶어 했던 무선 조종 장난감 보트를 사 왔다. 당장 작동시켜 보고 싶을 텐데, 집에 건전지가 하나도 없구나. 집에서 편의점으로 출발해 건전지를 사 오는 것보다 네가 편의점에 들러 사 오는 편이 훨씬 빠를 거야. 건전지값은 집에 오면 주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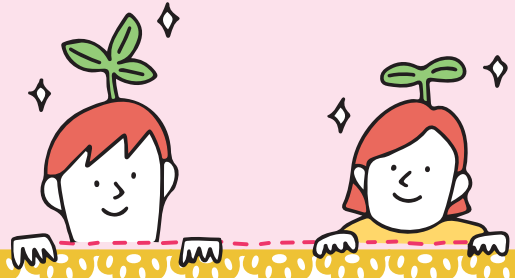


지금 편의점에서 건전지 계산하고 있어요. 얼른 갈게요! 감사합니다!



학습 목표

논술은 지식의 수용과 전달 및 합리적 설득을 위한
의사소통 방법임을 이해하고,
합리적 설득과 비합리적 설득의 차이를 비교·탐색할 수 있다.



가족 중 누가 학생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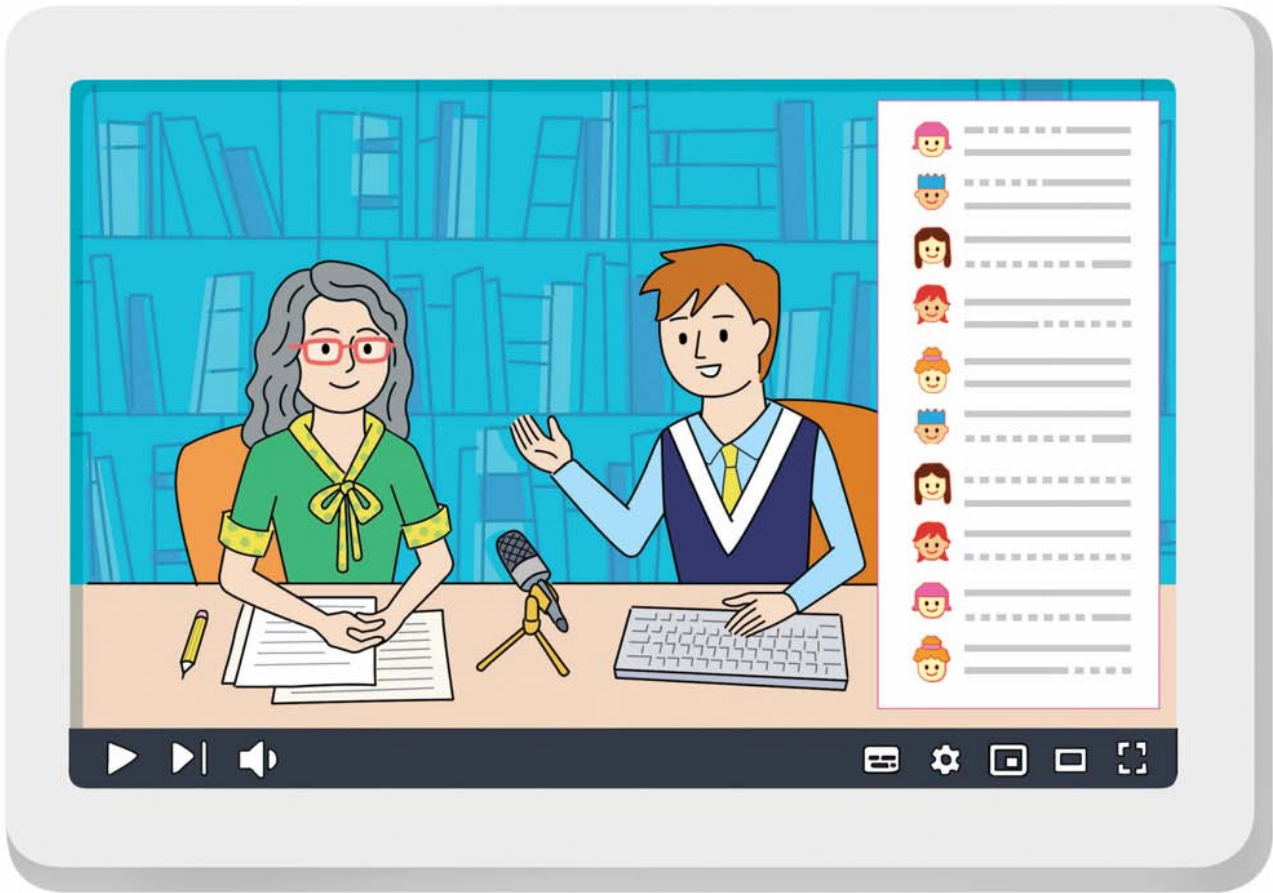
A dashed blue speech bubble with a tail pointing towards the bottom right, intended for a student to write their answer.

설득에 성공할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인가요?

A dashed blue speech bubble with a tail pointing towards the bottom right, intended for a student to write their answer.

최근에 경험한 설득의 성공 또는 실패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 봅시다.

A dashed blue speech bubble with a tail pointing towards the bottom right, intended for a student to write their answer.



 학우 여러분, 교내 방송 프로그램 ‘월간 초대석’ 진행을 맡고 있는 방송부장입니다. 오늘 모신 분은 논술 전문가 김○○ 선생님입니다. 방송을 시청 중인 학우 여러분, 선생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실시간 방송 채팅창



 우와, 드디어 이날이 왔다. 기대하고 있었어요! 🥳

 김○○ 선생님이 우리 학교 교내 방송에 나오시다니…!

 🙌🙌🙌🙌🙌🙌🙌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논술에 관하여 이야기 나눌 김○○입니다.

👤 논술은 사회 갈등이나 찬반이 나뉘는 정책 같은 데서만 필요한 것 아닌가요?



채팅창에 지금 올라온 질문은 저도 궁금했던 내용인데요. 선생님, 저희가 논술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논술은 '지식의 수용과 전달 및 합리적 설득을 위한 의사소통 방법'입니다. 채팅창에 올라온 것처럼 사회 갈등이나 찬반이 나뉘는 정책 같은 데서도 필요하고, 학문적 탐구에서도 논술은 필요합니다. 제가 준비해 온 슬라이드를 함께 볼까요?

‘지구가 돈다는 그의 주장을 인류는 이때부터 300년이 더 지난 뒤에야 받아들입니다.’

교황청의 주요 발언

- 네가 프톨레마이오스보다 훌륭한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냐.
- 모든 물체는 우주의 중심으로 가라앉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지구가 중심이 아니면 물체가 떠다녀야 한다는 소리가 되어 현실과 맞지 않는다.
- 기존의 천동설에 문제가 있다면 브라헤의 천동설도 있다.

갈릴레이의 주요 발언

- 목성의 위성과 금성의 위상 변화를 실제로 관측한 결과,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로는 그 위상 변화가 설명되지 않음이 드러났다.
- 태양에 흑점이 있음을 발견해 꾸준히 관측해 보았더니 곡선 궤도였다. 이걸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되, 자전축이 조금 기울어져 있어야만 말이 되는 궤적이다.



◆ **논술(論述)** 어떤 것에 관하여 의견을 논리적으로 서술함. 또는 그런 서술.

◆ **프톨레마이오스(85?~165?)** 고대 그리스의 천문학자. 복잡하고 난해한 천동설의 체계를 집대성한 책 『알마게스트』를 썼다.

◆ **브라헤(1546~1601)** 신성 로마 제국 보헤미아 왕국의 천문학자. 태양은 지구 주위를 돌고 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별들은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고 설명하여 과학계에서 천동설이 유지될 수 있게 하였다.

◆ **갈릴레이(1564~1642)** 이탈리아의 학자. 케플러와 교류하며 코페르니쿠스에 이어 지동설을 주장하였으며, 후대 과학자인 뉴턴이 고전 물리학을 정립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

- ◆ **지동설** 지구가 자전하면서 태양의 주위를 돈다는 설.
- ◆ **금고형** 교도소 등에 가두어 자유롭게 외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형벌.



갈릴레이는 자신이 확보한 여러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지동설◆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어요. 하지만 종교 재판에서는 갈릴레이의 주장을 합리적으로 검토해 주지 않았습니니다. 결국 갈릴레이는 금고형◆을 받았습니니다.



지동설이 옳았던 건데, 당시 갈릴레이는 몹시 억울했겠어요.



그렇습니니다. 공동체가 비합리적인 결론이나 결정에 이르렀을 때, 그러한 결론과 결정을 강요받은 당사자는 겪지 않아도 될 일로 억울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는 공동체 차원에서도 큰 손실이지요.



그래서 합리적 설득이 중요하군요.



합리적 설득의 과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의사를 결정하며, 지식을 계승한다면 인류는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합리적 설득을 위한 의사소통 방법’에 ‘논술’이 있지요.



논술이 나와 내가 속한 공동체를 이롭게 하는 활동이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전문가가 아닌 저 같은 학생도 논술을 잘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니다. 이해력, 분석력, 비판적 사고력, 사고 내용에 대한 논리적 서술 능력 등으로 이루어진 종합적 문제 해결 능력을 잘 갖고있는다면 모두 좋은 논술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중요한 능력은 비판적 사고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에 계속 이야기하죠.



도움말

이해력과 분석력은 논술 텍스트에 나타난 단어와 문장, 문맥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는 데 필요한 능력이 라고 할 수 있다.

사고 내용에 대한 논리적 서술 능력은 합리적 설득을 위해 마련한 근거를 짜임새 있게 구성하여 한 편의 텍스트로 표현하는 데 필요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실시간 방송 채팅창



- 어떤 지식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판단할 때 논술이 중시되어야겠군.
- 합리적 설득을 위한 의사소통과 논술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구나.
- 앞으로 주장이 다른 두 내용을 접할 때 어느 쪽이 더 합리적으로 설득하는지 잘 구분해야겠어.

1 이 방송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논술이 무엇인지 빈칸을 채워 문장을 완성해 보자.

인류가 문제를 해결하고, 의사를 결정하며, 지식을 계승하는 것이 □□적 설득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려면 논술이 필요하다. 따라서 논술은 '지식의 수용과 전달 및 □□적 설득을 위한 □□□□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2 우리 사회에서 논술이 필요한 상황을 떠올려 보고, 자유롭게 이야기해 보자.

발표자	상황	논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이유
(예시)	백두산의 분화 가능성을 놓고 학계의 의견이 갈리는 상황	양쪽의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더 합리적인 쪽을 선택해야 하므로.
(예시)	대입에서 논술 전형의 확대와 축소를 놓고 의견이 갈리는 상황	어느 쪽 의견이 더 타당한지 합리적으로 따져서 결정할 문제이므로.

3 다음 글을 읽고, 활동을 해 보자.

가 수연아, 컴퓨터 과학과라니……? 언니 생각에는 네가 생명 공학과를 지원 하는 게 맞아. 엄마랑 아빠가 지난 6년 동안 너 학교 마치고 집에 오면 잘 때까지 컴퓨터 앞에만 앉아 있어서, 그 모습 보며 얼마나 속을 많이 썩어졌는지 알아. 그건 불효야, 불효. 할아버지랑 할머니께서도 네가 흰색 가운 입고 일하는 직업을 원하시는데, 할아버지랑 할머니 뜻도 거스를 거야? 언니 말에 토 달지 말고 암전히 생명 공학과로 진학해.

나 수연아, 언니 생각에는 네가 생명 공학과를 지원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꿈은 곤충 박사로 유명한 ○○○ 교수님처럼 멋진 생물 정보학자가 되는 거잖아? 나도 네 꿈이 멋지다고 생각해. 그런데 생물 정보학의 경우, 컴퓨터 과학과 전공 내용들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보다는 화학, 생물학, 바이오 통계학 같은 생명 공학과와 전공 내용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해. 그러니 생명 공학과에 진학하여 부전공으로 컴퓨터 과학과를 선택해서 생물 정보학자에게 필요한 알고리즘, 자료 구조, 빅 데이터 프로세싱 정도의 과목만 이수하는 게 더 효과적인 학업 설계라고 할 수 있어. 컴퓨터 과학과는 부전공으로 인기 있어서 대부분 대학에 부전공 과정이 양질로 잘 갖춰져 있기도 해. 물론 ‘컴퓨터 과학과에 진학해서 생명 공학과를 부전공하는 방법도 있지 않아?’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생물 정보학자가 되는 데 필요한 만큼 생명 공학과 내용을 배우려다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태가 생겨 학업이 버거울 수 있어. 무엇보다 너는 화학, 생물학 관련 과목들에 남다른 흥미와 높은 성취를 보여 왔으니 생명 공학과로 진학해 꿈을 향해 나아가는 게 더 알맞을 것 같아.



자신이 어떤 주장을 따라왔을 때(받아들였을 때) 들었던 감정과 이후의 태도, 행동 변화는 어땠는지 알아보자. 일 상에서의 경험을 떠올려 보고, 왜 그때는 그런 감정(예: 억울함, 답답함, 후련함)을 느꼈는지 그리고 어떤 태도와 행동을 보였는지 생각해 보자.

(1) **가**와 **나** 중 더 합리적인 설득이라 생각하는 것을 고르고, 그 이유를 말해 보자.



(2) **가**와 **나** 중 설득의 과정과 설득 이후의 상황까지 생각했을 때 더 바람직한 것은 어느 쪽인지 토의해 보자.



(3) (1), (2)를 바탕으로 논술을 ‘의사소통 방법’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해 보자.



1 다음 설명이 맞으면 ○, 틀리면 ×를 해 보자.

- ① 어떤 설득이 합리적인지 비합리적인지는 그 설득을 따랐을 때 결과가 좋았는지 또는 나빴는지로 판가름한다. ()
- ② 어떤 두 텍스트의 주장이 같다고 해서, 두 텍스트가 모두 설득력을 지니는 것은 아니다. ()
- ③ 비합리적인 설득은 그것을 강요받은 당사자에게 겪지 않아도 될 억울함을 줄 수 있고, 공동체 차원에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
- ④ 논술은 과학 기술 분야보다 인문 사회 분야에서 훨씬 필요하며, 사회 공동체의 정책 결정이나 갈등 해결만을 다룬다. ()

2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을 써서 문장을 완성해 보자.



논술은 □□□ □□을/를 위한 의사소통 방법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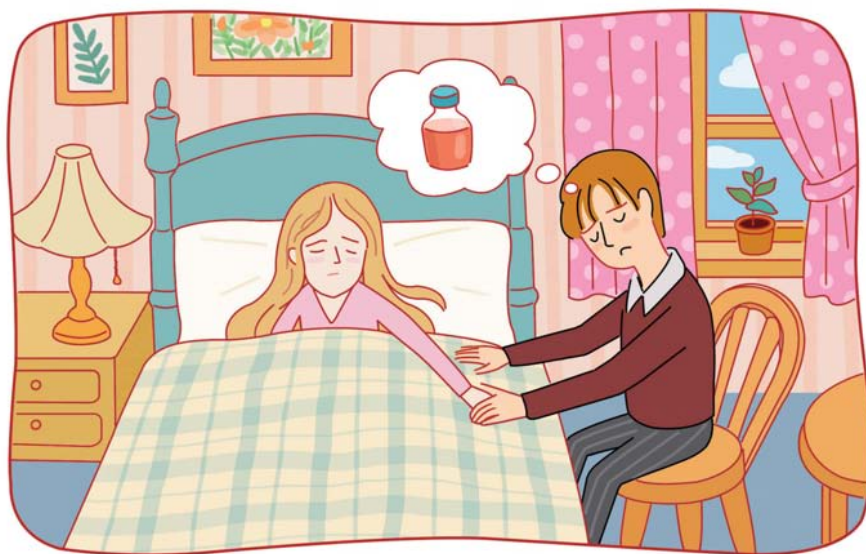


논술은 본질적으로 '상대방을 □□□(으)로 □□하여 자신의 주장을 받아들이게 하는 논증적 글쓰기'라고 할 수 있다.

2. 비판적 사고와 글쓰기

생각
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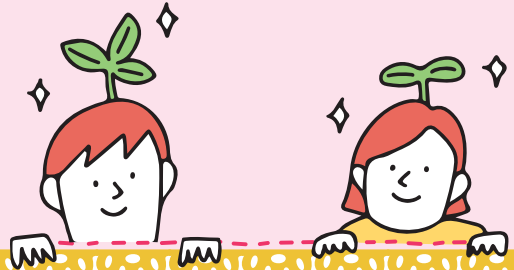
다음 상황을 보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자.



20세기 미국 어느 마을에서 한 여성이 치료제가 존재하지 않는 병으로 죽어 가고 있었다. 그런데 그녀가 사는 마을에서 한 약사가 그 병을 치료할 것으로 기대되는 신약을 개발했다. 그 약은 200달러어치의 원료를 써서 조제된 것으로, 판매가가 2,000달러로 책정되어 있었다. 죽어 가는 여성의 남편 하인츠는 있는 힘을 다해 돈을 융통하고자 애썼지만, 결국 1,000달러밖에 모으지 못했다. 하인츠는 약사를 찾아가서 아내가 죽어 가고 있으니 약값을 절반으로 깎아 달라고, 아니면 우선 1,000달러를 지불하고 모자란 1,000달러도 계속 갚아 나갈테니 약을 팔아 달라고 애걸했다. 그러나 약사는 신약을 개발하기까지 들인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기에 곤란하다며 거절했다. 절망한 하인츠는 결국 그날 밤 약사의 연구실에 침입하여 신약을 훔쳤다.

학습 목표

비판적 사고의 의미와 필요성을 알고
논술이 비판적 사고에 기반한 글쓰기임을 이해할 수 있다.



하인츠는 옳은 행동을 한 사람인가요,
옳지 못한 행동을 한 사람인가요?

A dashed blue speech bubble with a tail pointing towards the bottom right, intended for a student's response.

하인츠의 행동이 옳다고
또는 옳지 않다고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dashed blue speech bubble with a tail pointing towards the bottom right, intended for a student's response.

상반되는 주장에 각각
나름의 이유가 있다면,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A dashed blue speech bubble with a tail pointing towards the bottom right, intended for a student's response.



이제 ‘비판적 사고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논술이란 본질적으로 ‘상대방을 합리적으로 설득하여 자신의 주장을 받아들이게 하는 논증적 글쓰기’입니다. 이때 여러 쟁거리 중 어떤 것이 어떤 점에서 내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적절한지 걸러 내는 판단 과정, 그러니까 근거를 제대로 마련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비판적 사고입니다. 또한 어떤 주장이 제 나름의 이유와 함께 제시되었을 때, 그 내용을 제대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데 필요한 것도 비판적 사고입니다.



텍스트를 분석·평가하고 자신의 의견·주장을 담은 텍스트를 산출하는데 기반이 되는 역량이 비판적 사고라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특히 서로 충돌하는 두 주장이나 견해를 놓고 판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 비판적 사고가 더욱 중요해요. 두 주장이나 견해에 근거가 충분하고 타당한지 따져 봐야 하는데,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정당화’입니다.

실시간 방송 채팅창



정당화? 저는 보통 부정적 어감의 단어로 사용하거나 받아들일 때가 많은 단어인데, 논술에서 ‘정당화’란 정확히 어떤 의미의 용어인가요?



논술에서 ‘정당화’란, ‘주장할 때 합당한 근거·증거를 적절히 제시함으로써 주장의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법정에서 검사가 피고인이 유죄라고 주장하는데,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해 주는 근거들로 유죄를 주장한다면 그 주장은 합당하지 않겠죠? 그러면 검사는 정당화에 실패한 것입니다. 유죄를 주장하려는 검사는 유죄를 입증해 주는 근거들로만 주장을 펴야겠죠.

실시간 방송 채팅창



 선생님, 그렇다면 무죄를 입증해 주는 근거들로 주장을 정당화하는 것은 변호인의 몫이겠
군요?



 그렇습니다. 검사가 피고인이 유죄라고 주장하는 쪽이라면, 변호인은 채팅창에 올라온 것처럼 피고인이 무죄임을 주장하는 쪽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상반된 주장에서 양쪽이 각자 최선을 다하여 정당화하고, 판사는 이를 바탕으로 판결해야 모자라지도 지나치지도 않은 합당한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논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 갈등 상황에서 양측이 각자의 주장에 대해 최선을 다해 입증한 결과를 비교하여 결정할 때 올바른 방향으로 사회는 발전할 수 있습니다.



네, ‘비판적 사고와 ‘정당화’는 앞으로 우리가 민주 시민으로 발돋움하는 데도 꼭 필요하겠네요.



단, 검사나 변호인이 증거 조작 등의 비윤리적 방식을 쓰거나 충분한 근거 없이 주장만 내세우며 편을 드는 것이 정상적인 변론이 아닌 것처럼, 논술도 '합리적' 설득이라는 본질에서 벗어나 비윤리적, 비논리적 이어서는 안 된다.



학습 활동



도움말

내가 듣고 따른 의견
이 결과적으로 옳은 것
일지라도, 다른 의견과
함께 놓고 판단했을 때
내가 내릴 결정의 합리
성을 더 높일 수 있다.

1 본문과 다음 글을 바탕으로 하여 ‘비판적 사고’를 설명해 보자.

‘비판’이라는 단어는 ‘비난’ 혹은 ‘비방’과 글자가 비슷하고, 텔레비전과 신문 등에서 ‘칭찬’이나 ‘찬성’과 반대되는 상황에 많이 사용하는 어휘이다 보니, 그 의미를 오해하기도 한다. 하지만 ‘비판적 사고’는 단순히 대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거나 대상의 문제점을 찾으려는 태도와 구별된다. 비판적 사고는 편견이나 선입견을 배제하고 다양한 면에서 근거의 논증력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즉, 근거가 주장을 정당화하는지 판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비판의 주체는 비판하는 대상의 잘못된 부분을 짚을 수도 있지만 그것만이 비판은 아니다.

2 서로 다른 의견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한쪽의 의견만 듣고 결정을 내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이야기해 보자.

3 가와 나를 읽고, 다음 활동을 해 보자.

가 한 음식 평론가가 본인의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 올린 글

며칠 전 ○○시가 지역 축제를 찾은 관광객들이 이순신 장군의 밥상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열한 가지 음식을 재현하여 선보였다는 기사를 접했다. 그런데 그중 연포탕은, 두부가 전혀 들어 있지 않고 낙지가 주재료인 탕 요리로 되어 있는 것을 보았는데, 낙지가 주가 된 연포탕을 이순신 장군의 밥상이라며 선보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오늘날 식당에서 ‘연포탕’이라고 이름 붙여 파는 음식들은 낙지가 주재료인 보양식이지만, 『난중일기』에서 연포탕이 등장하는 맥락과 관련하여 역사 연구를 종합하면 연포탕은 두부가 주재료인 소박한 음식이다. 1597년 음력 6월 22일 일기에 ‘연포탕을 내오는 경상도 합천 군수의 얼굴에 오만함이 가득했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는 연포탕을 삼도 수군통제사직에서 파직되어 백의종군 중인 자신에 대한 홀대로 여겼음을 뜻한다. 조선 시대에 왕실에서 지정하여 두부를 만드는 절의 명칭인 ‘조포사’의 ‘포’와 ‘연포탕’의 ‘포’가 같은 한자인 점도 연포탕의 주재료가 두부임을 방증한다.

따라서 지금까지도 연포탕을 바로잡기 위한 주최 측의 고민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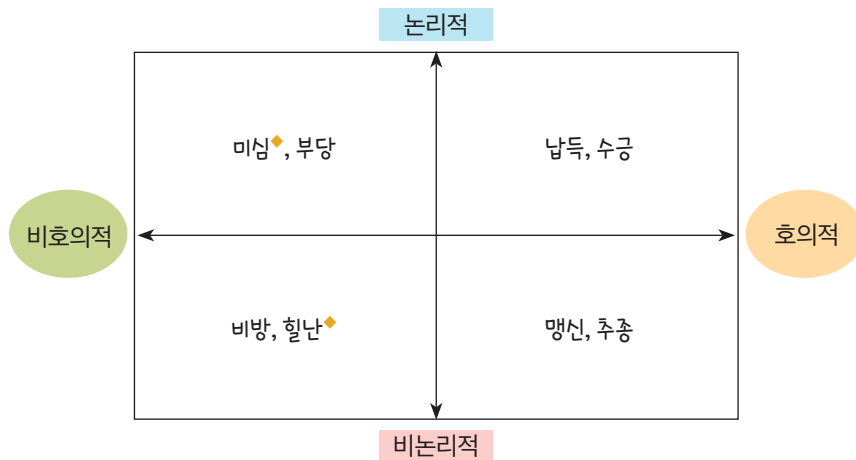
나 가에 달린 댓글

- ① 연포탕에 낙지가 없다고? 이럴 수가……. 그럼 내가 지금까지 먹은 연포탕은 뭐지?
- ② 좋은 글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올리시는 글은 항상 맞는 말이죠. ①
- ③ ○○시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뭐라도 좀 해 보려는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렇게 재를 뿌리면 ◆ 됩니까? ②
- ④ 주최 측에서 해당 내용을 미처 파악하지 못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알고도 그랬는지를 선불리 단정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전국 각지에서 멀리 ○○시까지 관광을 고민한다면 먹거리도 염두에 둘 텐데, 맛있는 보양식 쪽이 관광객 유치에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아 보이기는 합니다. ③
- ⑤ 위 댓글에 한마디 보태자면, 원글에서도 언급하신 것처럼 일반적으로 ‘연포탕’이라고 하면 낙지 요리를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낙지 없는 걸 내오면 혼란이나 불만이 생길 거고 이를 수습하는데 행정력이 소모될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④
- ⑥ 행정력과 관광 효과 등을 우선해서 사실 관계를 소홀히 취급하는 게 더 큰 혼란을 초래하지는 않을까요? 원글에서 근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한 자료들을 검토해 보니 다 사실이더라고요. ⑤
- ⑦ 역사적 사실 그대로 재현한 것은 아님을 잘 밝히면서 낙지 연포탕을 제공하는 것은 어떨까요?

◆ 재를 뿌리다 일, 분위기 따위를 망치거나 훼방을 놓다.

- ◆ 미심 믿거나 받아들이기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음.
- ◆ 힐난 트집을 잡아 거북할 만큼 따지고 들.

(1) 아래 그림에서 '비판적 사고'로 볼 수 있는 부분을 색칠해 보자.



(2) (1)을 바탕으로 하여 ㉡의 댓글 ①~⑤를 구분해 보자.

댓글	'비판적 사고'에 해당하는가?	구분 이유
①	☐ 예 ☐ 아니요	
②	☐ 예 ☐ 아니요	
③	☐ 예 ☐ 아니요	
④	☐ 예 ☐ 아니요	
⑤	☐ 예 ☐ 아니요	



(3) '비판적 사고'에 해당하는 댓글들을 참고하여 ㉡를 분석·평가해 보자.



1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써 문장을 완성해 보자.

논술을 할 때, 여러 쓸거리 가운데 어떤 것이 어떤 점에서 내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적절한지 걸러 내는 판단의 과정, 즉 근거를 제대로 마련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능력이 바로 □□□ □□□이다.

2 다음 설명이 맞으면 ○, 틀리면 ×를 해 보자.

- ① 논술 텍스트에서 주장이 정당함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하는 내용을 '근거'라고 한다. ()
- ② 논술 텍스트에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된 근거는 항상 참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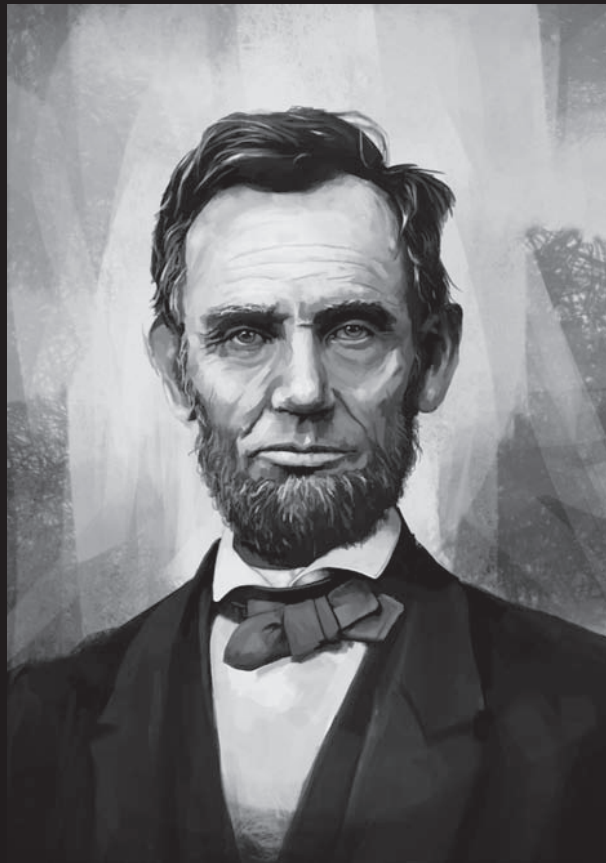
3 ()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 보자.

합리적 설득을 위한 논증적 텍스트에서, 합당한 근거·증거를 적절히 제시함으로써 주장의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을 () (이)라고 한다.

3. 글쓰기 윤리와 자료 활용법

생각
열기

다음 유머 자료를 보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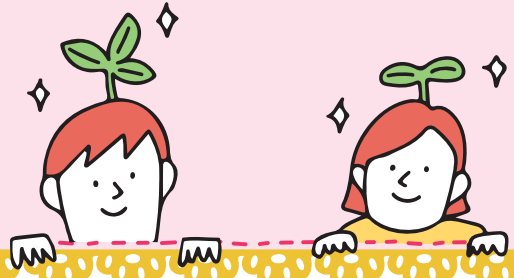
“글이 그럴듯한 흑백 사진
과 함께 제시되어 있다고
인터넷에 떠도는 글을 아
무거나 덜컥 믿어서는 안
된다.”

- 아인슈타인
(1985~2011, 조선의 성리학자)

*그가 전구를 발명한 날
기자 회견에서 발언한 내용 중 발췌

학습 목표

자료 활용 방법과 글쓰기 윤리를 이해하고
글쓰기에 적용할 수 있다.



이 자료에서 이상한 부분은
어디인가요?

A large, empty dashed blue speech bubble with a tail pointing towards the bottom right, intended for the student to write their answer to the first question.

사회 현안이나 학술적 주제를 논의할 때,
이런 자료를 근거가 참임을 입증하는 증거로
쓴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A dashed blue speech bubble with a tail pointing towards the bottom right, intended for the student to write their answer to the second question.

위에서 생각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으려면
개인과 사회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A dashed blue speech bubble with a tail pointing towards the bottom right, intended for the student to write their answer to the third question.



이제 글쓰기 윤리와 자료 활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글쓰기 윤리는 논술을 배울 때 가장 중요합니다. 글쓰기 윤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거짓이 언제든지 진실로 둔갑해 사람들을 기만할 수 있는 세상이 됩니다. 그러면 합리적 판단을 내리기 위해 서로 다른 주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우리의 모든 노력이 수포가 됩니다. 즉, 글쓰기 윤리는 반드시 지켜야 하며, 만약 지키지 않으면 큰 사회적·학문적 낭비와 혼란이 발생합니다.

실시간 방송 채팅창



- 👤 둔갑... 기만... 사회적·학문적 낭비와 혼란 발생.....
- 👤 오오, 선생님 이번에는 뭔가 되게 강하게 말씀하신다.



그만큼 글쓰기 윤리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지요?



네. 아무 자료나 가져다가 제멋대로 베껴 쓴 글이 과연 가치가 있을까요? 남의 자료나 생각을 자신이 직접 만들거나 떠올린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도둑질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작성된 글을 인정해 준다면 그 역시 도둑질을 방조하거나♦ 도둑질에 동참하는 부끄러운 행위입니다.

◆ **방조하다** (다른 사람이 잘못된 행동을 저지르는 것을) 거들어서 돕다.



하지만 온전히 자기 생각만으로 글을 쓰기는 어렵잖아요?

◆ **도용** 남의 물건이나 명의를 몰래 씀.

◆ **인용** 누군가가 한 말이나 글을 자신의 말이나 글 속에 끌어 씀.



맞습니다. 훔치는 것과 빌리는 것은 다릅니다. 각각 ‘도용’◆과 ‘인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글을 쓸 때 타인의 자료를 일절 쓰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과 절차를 지킨다면 얼마든지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로서 타당하지 않은 자료, 신뢰성이 의심되는 자료는 인용하지 않는 편이 낫다.



그러면 자료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나요?



앞에서 아무 자료나 쓰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러니 자료를 활용할 때는 기본적으로 인용할 가치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별하여 부적절한

인용은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자료를 가져올 때는 인용과 참고 표시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인용과 참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누군가의 말이나 글을 자신의 말이나 글 속에 끌어다 쓰는 것을 인용이라고 합니다. 인용에는 앞뒤로 따옴표를 찍어 원문의 문장을 그대로 가져오는 직접 인용과 원문의 내용이나 부분을 요약하여 자신의 말로 바꾸어 쓰는 간접 인용이 있습니다. 참고는 인용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자신의 말이나 글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받은 모든 자료가 참고 문헌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인용과 참고 모두 출처와 저작자를 밝히지 않으면 표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표절은 제가 준비해 온 화면을 보면서 이야기해 봅시다.



중한 표절

- 01 다른 사람의 표현이나 아이디어를 출처 표시 없이 쓰는 행위
- 02 다른 사람의 표현이나 아이디어를 단순히 짜깁기한 것에 불과해 창의성이 인정되지 않는 글쓰기
- 03 연구 결과나 사실을 조작하여 글을 쓰는 행위

자기 표절

자신의 과거 저작물을 출처 표시 없이 현재 시점에 자신이 새로 창출한 자료나 생각인 것처럼 쓰는 행위





중한 표절 세 가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마지막에 있는 자기 표절이 생소해요.



내가 내 것 쓰는 게 무슨 문제냐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 역시 표절입니다. 자신의 저작물이라 할지라도 아무렇게나 갖다 쓰면 ‘자기 표절’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학생이 이전 학기에 작성한 수행 평가 결과물을 이번 학기에 그대로 재사용해서 새로 창작한 것처럼 제출해 좋은 성적을 받는다면, 이는 떴떳한 일인지 생각해 보자.

◆ **저작권** 문학, 예술, 학술에 속하는 창작물에 대하여 저작자나 그 권리 승계인이 행사하는 배타적·독점적 권리. 저작자의 생존 기간 및 사후 70년간 유지된다.



도움말

일반적으로 저작권은 '©' 또는 'copyright all rights reserved'로 표시하지만 이런 표시가 보이지 않는 저작물 역시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표절과 저작권 침해는 어떻게 다른가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물을 사용하는 행위를 저작권 침해라고 하고요. 다른 사람이 창작한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용하여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발표하는 행위를 표절이라고 합니다.



저작물 사용 허락은 저작권자에게 직접 연락해서 받는 건가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실제로는 저작물 이용 허락 표시에 따라 사용하면 됩니다. 가장 널리 쓰이는 저작물 이용 허락 표시인 '시시엘(CCL)'을 표로 정리해 왔는데 함께 볼까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CL, Creative Commons License)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에서 만든,
저작물에 대한 국제적 이용 허락 규약

표시	이름 / 영문 이름	설명
	퍼블릭 도메인 CCO	저작자가 어떠한 저작권도 주장하지 않는 자료. 그렇다고 해서, 사용하는 사람(저작자가 아닌 사람)이 자신이 창작한 자료인 것처럼 써서는 안 된다.
	저작자 표시 CC BY	출처 표시만 하면 자유롭게 이용해도 되는 저작물
	저작자 표시-비영리 CC BY-NC	비영리적 목적에 한하여, 출처 표시만 하면 자유롭게 이용해도 되는 저작물
	저작자 표시-변경 금지 CC BY-ND	출처 표시만 하면 자료를 원본 상태 그대로 이용해도 되는 저작물
	저작자 표시-동일 조건 변경 허락 CC BY-SA	출처 표시를 하면 자료를 이용해도 되나, 이 자료를 이용해서 만든 자료의 저작권도 반드시 이것과 동일하게 설정하여야 한다.
	저작자 표시-비영리-동일 조건 변경 허락 CC BY-NC-SA	비영리적 목적에 한하여, 출처 표시를 하면 자료를 이용해도 되나, 이 자료를 이용해서 만든 자료의 저작권도 반드시 이것과 동일하게 설정하여야 한다.
	저작자 표시-비영리-변경 금지 CC BY-NC-ND	비영리적 목적에 한하여, 출처 표시만 하면 원본 상태 그대로 이용해도 되는 저작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선 저작권자와 직접 연락하거나 이용 대가를 따로 지불하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의 유형부터 소개하자면 이와 같습니다. 여기 제시된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저작물은 원칙적으로 별도의 이용 허락을 받고 써야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전에 본 적 있지만 그냥 지나쳤던 것들인데, 이런 의미가 있는 표시들이었군요. 그런데 이런 표시가 없는 저작물을 논술을 작성할 때 가져다 쓰려면, 매번 저작자에게 연락하여 하나하나 이용 허락을 구해야 하나요?



우리나라에서 저작물을 활용하는 모든 행위는 우리나라 저작권법을 따르게 되어 있는데, 저작권법 제23조부터 제36조에는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복제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중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를 보면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공표된 저작물, 그러니까 세상에 공개된 저작물은 그 무엇이랄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의 목적에서는 누구나 인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논술 텍스트를 쓰는 행위도 따로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면 모두 이 목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라고 되어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해요. 예컨대 논문의 경우 학계마다 정해진 인용 표시 방식이 있는데 이를 따라야 하는 것이지요.



국가 법령 정보 센터 누리집에 방문하여 저작권법 조문을 살펴보자.



국가 법령 정보 센터

실시간 방송 채팅창



한국어로 된 저작물 이용 허락 표시도 있을까요?



좋은 질문이 올라왔네요. 우리나라에서 공공 기관 등이 만든 공공 저작물의 경우 다음과 같이 표시하고 있으니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표시	유형	이용 허락 범위
	제1유형: 출처 표시	CC BY와 같음.
	제2유형: 출처 표시 + 상업적 이용 금지	CC BY-NC와 같음.
	제3유형: 출처 표시 + 변경 금지	CC BY-ND와 같음.
	제4유형: 출처 표시 + 상업적 이용 금지 + 변경 금지	CC BY-NC-ND와 같음.

◆ 무단 권리를 가진 자에게 허락을 얻지 않음.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경우나 단서에 해당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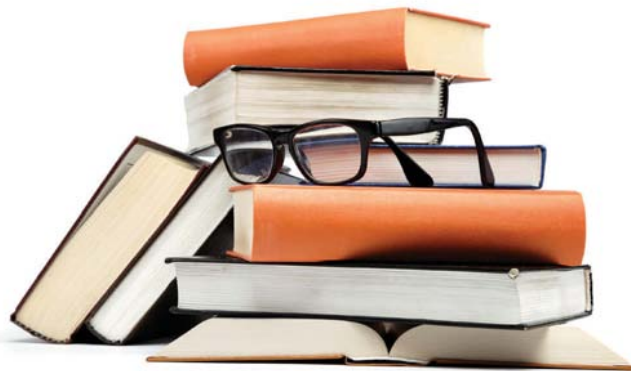
감사합니다, 선생님. 글쓰기 윤리와 올바른 자료 활용법은 꼭 지켜야 하는 거군요. 지금 저희가 송출하고 있는 이 방송 영상도 누가 자기 것처럼 가져다 무단◆으로 쓴다고 생각하면 무척 속상할 것 같으니까요.



맞습니다. 내 것이 소중하면 남의 것도 소중한 법이지요. 대중을 독자로 하여 쓰는 일반적인 논술 텍스트의 경우, 독자가 출처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밝히고 따옴표 등을 적절히 사용하여 직접 인용하거나 간접 인용하는 방식으로 서술하면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앞으로 글쓰기 윤리와 자료 활용법을 잘 지키며 논술 텍스트를 바람직하게 생산하는 시민으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선생님,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1 다음 두 기사를 읽고, 활동을 해 보자.



가

지상파 공동 출구 조사 무단 사용 □□방송국 기자·피디 벌금형 선고

□□방송국 소속 기자와 피디에게 법원이 2014년 6월 지방 선거 당시 지상파 방송 3사 공동 출구 조사 결과를 무단 사용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 중앙 지법 형사 합의 28부(부장 판사 ○○○)는 23일 부정 경쟁 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방송국 ○○○ 피디와 ○○○ 기자에게 각각 벌금 800만 원을 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지상파 3사의 영업 기밀인 출구 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사용해 언론 매체 간 공정한 경쟁 질서를 무너뜨려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 국민일보(2017. 6. 23.)



나

대법원 '선거 출구 조사 무단 사용' □□방송국 무죄 확정

2014년 6월 4일 전국 동시 지방 선거에서 지상파 방송 3사의 출구 조사 결과를 무단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국과 소속 피디, 기자에게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앞서 1심은 “□□방송국이 사전에 입수한 내용은 지상파 3개 방송사의 예측 조사 결과로서 영업 비밀을 사용하려는 고의와 사전 모의가 있었다.”며 ○○○ 피디와 ○○○ 기자에게 각각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방송국은 18시 49초부터 서울시장 예측 조사 결과를 순차적으로 방송했는데, 이때는 지상파 중 한 곳에서 예측 결과가 보도된 이후였다.”며 ○○○ 피디와 ○○○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지지해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판결을 확정했다.

- 법률신문(2019. 1. 17.)

◆ 부정 경쟁 방지법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나 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 경쟁 행위와 타인의 영업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유지’할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로, 정식 명칭은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다.

(1) ㉠과 ㉡에서 논란이 된 ‘□□방송국’의 행동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자.

(2) 다음은 ㉠, ㉡에서 다루고 있는 판결에 쓰인 당시의 법조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각 판결의 내용을 표에 정리해 보자.

• 저작권법 [시행 2013. 10. 17.]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 부정 경쟁 방지법 ◆ [시행 2014. 1. 31.]

제2조 (정의)

2. ‘영업 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 방법, 판매 방법, 그 밖에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구분	판결	판결의 이유
㉠	☐ 유죄 ☐ 무죄	
㉡	☐ 유죄 ☐ 무죄	

(3) 이와 유사하게 글쓰기 윤리 논쟁이 불거진 사례를 인터넷에서 찾아 발표해 보자.

2 다음은 같은 논문의 서론과 참고 문헌의 일부이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활동을 해 보자.

가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대학 신입생은 청소년에서 성인기에 진입하는 시기로 입시 위주의 생활에서 벗어나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생활을 하는 시기이다(김광현, 강성배, 2016). 대부분의 대학 신입생들은 대학 생활에 대해 자신의 발전적인 성장, 자유로운 여가 활동, 재미를 추구하거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준비하는 등 큰 기대를 가지고 입학하지만(이송이, 2019), 자신이 지각하는 기대와 현실의 불일치로 인해 대학 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Baker, McNeil & Siryk, 1985). 즉, 대학 신입생들은 대학 생활 초기에 학업, 진로 및 취업, 정서 문제, 인간관계 등 다양하고 급격한 환경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대해 대학 신입생들이 긍정적으로 대학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변화된 환경에 대한 대처 및 적응 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이귀숙, 도수정, 송현아, 2016).

: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살펴보면, 대학 생활 적응과 관련해서 스트레스, 전공 만족도, 성격 특성, 건강 증진 행위와 불안, 학습 몰입과 자기 효능감(강희영, 최은영, 2015; 이귀숙, 도수정, 송현아, 2016) 등이 있고, 대학 신입생의 정신 건강, 대학 생활 기대(금명자, 남향자, 2010; 이송이, 2019) 등이 있다.

:

이에 본 연구는 대학 신입생들의 생활 스트레스, 불안 및 자기 효능감이 대학 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한 대학 생활 적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데 필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나 <참고 문헌>

강희영, 최은영(2015). 「간호 대학 신입생의 행동 유형에 따른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 방식 및 대학 생활 적응과의 관계」. 『한국 간호 교육 학회지』, 21(3), 289-297.

금명자, 남향자(2010). 「전국 대학 신입생의 대학 생활 기대 및 정신 건강」. 『인간 이해』, 31(1), 105-127.

김광현, 강성배(2016). 「대학 신입생의 대학 생활 적응 척도 개발 및 타당



참고 문헌을 기재하는 방식은 학문 분야 또는 학계마다 조금씩 다르다. 아래 예는 동일한 논문을 미국 심리학회(APA), 미국 화학회(ACS), 전기 전자 기술자 협회(IEEE) 방식으로 각각 기재한 것이다.

APA - 김보미, 김소진, 염수빈 and 정석희. (2023). 패스트 패션에 의한 환경 오염: 현황 및 전망. 대한환경공학회지, 45(11), 506-518.

ACS - 김보미; 김소진; 염수빈; 정석희. 패스트 패션에 의한 환경 오염: 현황 및 전망. 대한환경공학회지 2023, 45(11), 506-518.

IEEE - 김보미, 김소진, 염수빈, 정석희. "패스트 패션에 의한 환경 오염: 현황 및 전망" 대한환경공학회지 45, no.11(2023): 506-518.

화」. 『교양 교육 연구』, 10(3), 253-293.

이귀숙, 도수정, 송현아(2016). 「대학 신입생의 성격 특성과 대학 생활 적응의 관계에서 진로 결정 효능감의 매개 효과」. 『청소년학 연구』, 23(3), 53-73.

이송이(2019). 「대학 신입생의 대학 생활 기대에 관한 인식 탐구」. 『학습자 중심 교과 교육 연구』, 19, 295-309.

Baker, R. W., McNeil, O. V., & Siryk, B. (1985). 「Expectation and reality in freshman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2(1), 94.

- 송지현·정은영, 「대학 신입생의 대학 생활 적응 영향 요인」

(1) 가에서 '인용'에 해당하는 부분과 '참고'에 해당하는 부분을 구분해 보자.

인용	• 대학 신입생은 청소년에서~생활을 하는 시기이다.
참고	

(2) (1)과 같이 구분한 이유를 이야기해 보자.

(3) 인용과 참고를 나타내는 표시를 모두 삭제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지 이야기해 보자.



3 모둠을 정하여 다음 활동을 해 보자.

(1) 학술 정보 검색 사이트 중 한 곳을 방문하여 관심 있는 분야의 자료를 검색해 보고, 그중 하나를 골라 [인용하기] 버튼을 클릭해 보자. 클릭해서 나온 문구를 아래에 써 보자.



논문 등의 학술 자료 목록과 원문을 방대하게 갖추고 유료 또는 무료로 학술 자료를 검색하고 열람할 수 있는 사이트를 '학술 정보 검색 사이트(학술 데이터베이스)'라고 한다. 한국 교육 학술 정보원(KERIS)에서 운영하는 '학술 연구 정보 서비스(RISS)'가 대표적이다.



학술 연구 정보 서비스

- (2) (1)에서 찾은 학술 자료의 본문에서 인용하거나 참고한 내용이 드러난 단락을 찾아보고, 인용하거나 참고한 내용을 표기한 방식을 파악해 보자.

내가 찾은 단락

이 학술 자료에서
인용 및 참고 내
용을 표기한 방식



1 다음 설명이 맞으면 ○, 틀리면 ×를 해 보자.

- ①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는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사용해도 된다. ()
- ② 누군가의 말이나 글을 자신의 말이나 글 속에 끌어다 쓰는 것을 인용이라고 한다. ()
- ③ 인용과 참고 중 참고는 출처와 저작자를 밝히지 않아도 된다. ()
- ④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글과 그림으로 한정된다. ()
- ⑤ 타인의 글을 요약하여 마치 자신의 글처럼 쓰는 경우도 표절에 해당한다. ()

2 ()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 써 보자.

보기 자기 표절 중한 표절

- (1) 다른 사람의 표현이나 아이디어의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사용하거나 창의성이 인정되지 않는 짜깁기는 ()에 해당한다.
- (2) 자신의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출처를 밝히지 않고 상당 부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를 ()이라 한다.

대단원 마무리

종합하기

이 단원에서 공부한 내용을 정리해 보자.



1. 합리적 설득과 논술

논술 { 어떤 것에 관한 견해를 논리적으로 서술한 논증적 글
합리적 설득을 위한 의사소통 방법
사회 현안을 바람직하게 해결하거나, 학문적 진리를 바람직하게 도출하는 데 유의미한 활동

2. 비판적 사고와 글쓰기

- 비판적 사고: 여러 쓸거리 중 어떤 것이 어떤 점에서 내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적절한지 걸러 내는 판단
- 정당화: 주장할 때 합당한 근거·증거를 적절히 제시함으로써 주장의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하는 과정
- 근거: 주장이 타당함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하는 내용
- 증거: 근거가 참임을 입증하기 위해 제시하는 사실

3. 글쓰기 윤리와 자료 활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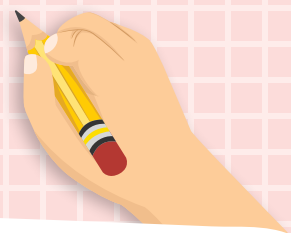
- 저작권: 문학, 예술, 학술에 속하는 창작물에 대하여 저작자나 그 권리 승계인이 행사하는 배타적·독점적 권리. 저작자의 생존 기간 및 사후 70년간 유지됨.
- 인용: 다른 텍스트의 내용 중 특정 부분을 글쓰기 윤리와 자료 활용법을 지켜 그대로 가져오는 것(≠도용)
- 중한 표절: ①다른 사람의 표현이나 아이디어를 출처 표시 없이 쓰는 행위, ②그것들을 단순 짜깁기한 것에 불과해 창의성이 인정되지 않는 글쓰기, ③연구 결과나 사실을 조작하여 글을 쓰는 행위
- 자기 표절: 새로운 저작물을 창작할 때, 자신의 기존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전체가 이미 있던 것임을 밝히지 않고 쓰는 것

평가하기

이 단원에서 공부한 내용을 생각하면서 스스로 평가해 보자.

소단원	학습 목표	평가		
		상	중	하
1. 합리적 설득과 논술	논술은 지식의 수용과 전달 및 합리적 설득을 위한 의사소통 방법임을 이해하고, 합리적 설득과 비합리적 설득의 차이를 비교·탐색할 수 있다.			
2. 비판적 사고와 글쓰기	비판적 사고의 의미와 필요성을 알고 논술이 비판적 사고에 기반한 글쓰기임을 이해할 수 있다.			
3. 글쓰기 윤리와 자료 활용법	자료 활용 방법과 글쓰기 윤리를 이해하고 글쓰기에 적용할 수 있다.			

자기 성찰 일지



- 이전에 자신이 만들었던 산출물 중 한 가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떠올려 보고, 글쓰기 윤리나 자료 활용법이 잘 지켜졌는지 성찰해 봅시다.

※도움말: 이전 학기나 다른 과목의 수행 평가에서 만든 발표 슬라이드 등을 떠올려 보자.

(1) 성찰 대상

예) 1학년 1학기 '진로와 직업' 수업 시간에 '내가 관심 있게 살펴본 직업 발표하기' 수행 평가에서 한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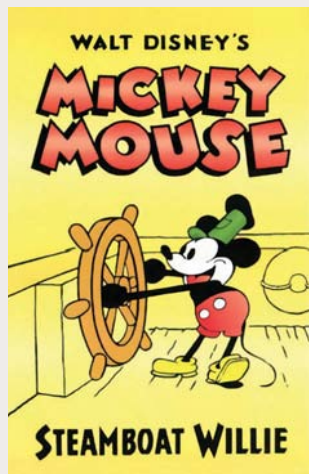
(2) 성찰 결과: 글쓰기 윤리나 자료 활용법을 잘 지킨 부분 또는 잘 지키지 못한 부분

※ 해당 부분을 옮겨 적거나 출력하여 붙여 보자.

(3) 느낀 점



저작권에 대한 궁금증 6문 6답



미키마우스 콘텐츠 중 2024년 1월 1일부로 저작권이 만료된 「증기선 윌리」 시리즈

문 저작권은 영구적인가요?

답 아닙니다. 저작자가 살아 있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까지만 인정됩니다. 저작자를 알 수 없는 경우, 특정 개인의 소유가 아닌 업무상 저작물 그리고 영상 저작물은 공표된 시점부터 70년까지 인정됩니다. 인터넷에서 ‘저작권 만료’ 또는 ‘퍼블릭 도메인 데이(Public Domain Day)’라고 검색하면 만료를 앞두고 있거나 최근에 만료된 유명 저작물에 관한 뉴스 기사를 쉽게 찾아볼 수 있으니 검색해 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문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저작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답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서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에는 어문 저작물, 음악 저작물, 연극 저작물, 미술 저작물, 건축 저작물, 사진 저작물, 영상 저작물, 도형 저작물,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 보도는 저작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문 구입한 교재를 태블릿이나 노트북에 담아서 공부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답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려는 경우,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위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라는 이름으로 저작권법이 허용하고 있습니다.

문 출처만 잘 남기면 게시물이나 저작물을 마음대로 써도 되나요?

답 많이 혼동하는 부분인데요, 출처를 밝히는 것과 이용 허락을 받는 것은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기본 원칙은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일일이 허락을 받지 않고 타인의 저작물을 쓸 수 있는 경우를 저작권법에서 몇 가지 정해 두고 있을 뿐입니다. 출처는 '이용 허락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와 상관없이 저작물을 쓸 때는 항상 밝히는 것이 옳습니다. 타인의 저작물뿐만 아니라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문 정식 구매한 영화 파일이나 영화 디브이디(DVD) 또는 구독 중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로 학교에서 영화 상영회를 열면 위법인가요?

답 합법적으로 취득한 영상 저작물을, 학교 내부 시설에서 재학생만을 대상으로, 관람료 없이 상영하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상영회는 저작권법상 '공연'에 해당하는 행위인데, 저작권법 제29조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에 관하여 규정한 바에 따라 허용이 됩니다. 다만, 개봉·판매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영상물을 마음대로 상영한다면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 추구를 현저히 침해하기 때문에 시행령 등을 통해 개봉 후 일정 기간이 지난 것만 상영이 가능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으므로, 상영 전에 최신 시행령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문 저작권 등록을 해야만 저작권자가 되는 건가요?

답 아닙니다. 저작권은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저작물을 창작한 순간부터 자동으로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다만, 등록하면 손해 배상 청구 등의 법률적 효력에서 우위를 얻습니다.

퍼블릭 도메인(CCO) 유형에 해당하는 저작물을 쓸 때도, 마치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인 것처럼 오해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출처를 밝히거나 퍼블릭 도메인 저작물임을 언급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Ⅱ 요약하는 글쓰기

1. 요약의 필요성
2. 텍스트 유형별 분석 방법
3. 요약문 작성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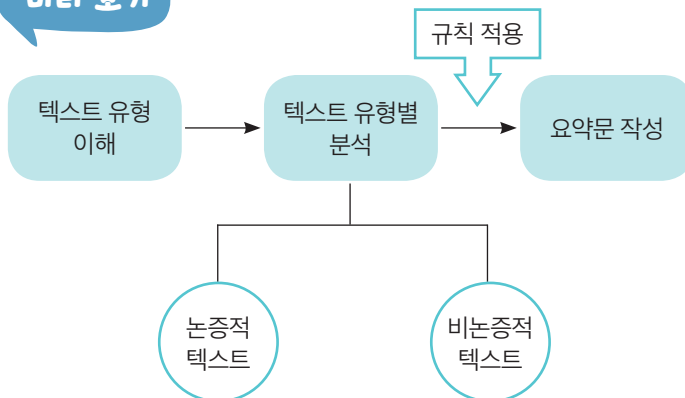




이 단원에서는

텍스트 분석 및 요약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텍스트 유형별 차이를 비교·탐색한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텍스트 유형별 분석 방법을 알아보고, 텍스트에 대한 분석 결과 및 요약의 일반 규칙을 적용하여 텍스트의 유형에 맞는 요약문을 작성한다.

미리 보기



1.

요약의 필요성

생각
열기

가와 나를 보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자.

가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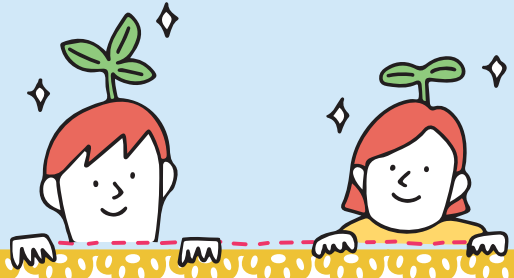
동남아인 두 여인이 소곤거렸다
고향 가는 열차에서
나는 말소리에 귀 기울였다
각각 무릎에 앉아 잠든 아기 둘은
두 여인 닮았다
맞은편에 앉은 나는
점진 차창 밖 보는 척하며
한마디쯤 알아들어 보려고 했다
획 지나가는 먼 산굽이
나무 우거진 비탈에
산그늘 깊었다

두 여인이 잠잠하기에
내가 슬쩍 결눈질하니
머리 기대고 졸다가 언뜻 잠꼬대하는데
여전히 알아들을 수 없는 외국 말이었다
두 여인이 동남아 어느 나라 시골에서
우리나라 시골로 시집왔든 간에
내가 왜 공연히 호기심 가지는가
한잠 자고 난 아기 둘이 칭얼거리자
두 여인이 깨어나 등 토닥거리며 달래었다
한국말로,
울지 말거레이
집에 다 와 간데이

- 하종오, 『원어(原語)』

학습 목표

텍스트 분석 및 요약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텍스트의 유형별 차이를 비교·탐색할 수 있다.



가

의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인가요?

A dashed rectangular box with a small tail pointing towards the bottom right, intended for writing an answer.

가와 나

가 공통으로 다루는 주제는 무엇인가요?

A dashed rectangular box with a small tail pointing towards the bottom right, intended for writing an answer.

가와 나

가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A dashed rectangular box with a small tail pointing towards the bottom right, intended for writing an answer.

요약의 필요성

◆ **핵심어** 어떤 일이나 주제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단어.

글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 즉 글의 핵심 내용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요약입니다. 요약은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을 찾아, 간단하고 분명한 문장으로 진술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요약이 단순히 글자 수를 줄이는 것은 아닙니다. 요약은 글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는 것과 동시에 글의 구조를 분석하여 재구성하는 글쓰기입니다. 글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선 해당 글의 **핵심어**를 찾아봅니다. 그리고 이 핵심어와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거나 이를 이해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쓴 글인지, 아니면 핵심어와 관련된 주장을 밝히고 이를 받아들이게 할 목적으로 쓴 글인지에 따라 글의 구조를 분석하고 재구성합니다.

요약의 대상이 되는 텍스트는 문자 텍스트와 비문자 텍스트, 논증적 텍스트와 비논증적 텍스트로 나뉘 볼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각 텍스트의 유형별 차이를 알아봅시다.

문자 텍스트와 비문자 텍스트

다음은 문자 텍스트의 예입니다. 텍스트를 읽고 핵심어를 찾아볼까요?

◆ **중증도** 병이나 어떠한 상태의 심한 정도

찬바람이 불면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은 괴로움을 겪는다. 겨울철 차갑고 건조한 대기가 아토피 피부염 증상을 부추기기 때문이다. 실내에서도 난방 기기 사용으로 증상이 악화돼 병원 문을 두드리는 경우도 잦다. 최근 국내 연구진은 김치 유래 유산균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이 아토피 증상을 줄이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유산균 분야 국제 학술지에는 김치 유래 유산균이 아토피 피부염 중증도 **◆**를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꾸준히 실리고 있다.

- 서울경제신문(2022. 12. 15.)

이 텍스트에서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아토피 피부염’과 ‘김치 유래 유산균’이 핵심어겠죠. 핵심어를 중심으로 ‘김치 유래 유산균이 아토피 피부염에 효과가 있다.’

라고 핵심 내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에는 글로 된 문자 텍스트뿐만 아니라 통계표와 그래프, 그림, 동영상 등과 같은 비문자 텍스트도 있습니다. 비문자 텍스트는 먼저 제목이나 전체적으로 나타난 정보를 살펴서 내용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파악된 정보를 비교하거나, 수치의 변화를 분석하여 비문자 텍스트가 전달하는 의미를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비문자 텍스트의 예입니다. 핵심 내용을 추론해 볼까요?

김치 유래 유산균과 아토피의 상관관계



(※중증도 점수는 25점을 기준으로 증상의 경중을 나눔.)

- 안강모 외(2017년)

‘김치 유래 유산균과 아토피의 상관관계’라는 제목을 참고하여 김치 유래 유산균 섭취 기간에 따른 아토피 중증도에 주목해야 합니다. 아토피 중증도 점수의 수치 변화를 살펴보면, 12주간 김치 유래 유산균을 섭취하면 아토피 중증도 점수가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핵심 내용을 추론하여 ‘김치 유래 유산균은 아토피 중증도를 낮춘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논증적 텍스트와 비논증적 텍스트

논증적 텍스트는 자기주장을 받아들이게 할 목적, 즉 독자를 설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인 글입니다. 따라서 논증적 텍스트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려면 핵심어를 찾는 것과 함께 주장(해결책이나 견해)은 무엇인지, 그것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무엇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다음 글을 읽고, 먼저 핵심어를 찾아봅시다.

◆ **반려동물** 사람이 정서적으로 의지하고자 가까이 두고 기르는 동물.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는 1,500만 명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2020년 한 해에만 길에 버려지는 반려동물의 수는 13만 마리에 육박한다. 반려동물 관련 인식 정착과 제도 마련은 아직 갈 길이 멀다. 현재 반려동물들은 아무런 제재나 규제 없이 쇼핑하는 물건처럼 사고팔리고 버려지고 있다. 반려동물 양육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추기 위한 교육 이수 의무화하거나 자격증제를 도입해 아무나 입양할 수 없게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실제 반려동물을 입양하기 전 보호자의 자격을 검증하는 나라가 있다. 독일의 니더작센주는 지난 2013년부터 ‘반려견 면허 시험’을 통과해야만 반려견을 입양할 수 있도록 한 법을 시행 중이다. 반려동물 면허 시험을 도입하면 반려인들의 책임감을 기를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흥미로 키우다가 버리는 일들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 자주 등장하고 중요하게 쓰인 단어, 즉 핵심어는 ‘반려동물’입니다. 글쓴이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1,500만 명에 이를 정도가 되면서 길에 버려지는 반려동물의 수도 13만 마리에 육박할 정도로 늘어나는 상황을 언급하고, 아무런 제재나 규제 없이 반려동물이 사고팔리는 것이 문제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 상황에 대해 ‘반려동물 양육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추기 위한 교육 이수 자격증제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물건을 사고팔듯이 반려동물을 키울 수 없게 하자는 것으로, 독일의 니더작센주에서 시행 중인 ‘반려견 면허 시험’을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비논증적 텍스트는, 논증적 텍스트와 달리 사실이나 정보를 전달하거나 이를 이해하도록 하는 글입니다. 비논증적 텍스트의 사례를 보며, 핵심어는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동물 보호법♦에 따르면 동물 보호와 유실, 유기 방지를 위하여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생후 2개월 이상의 개는 반드시 지방자치 단체에 동물 등록을 해야 한다. 이러한 반려동물 등록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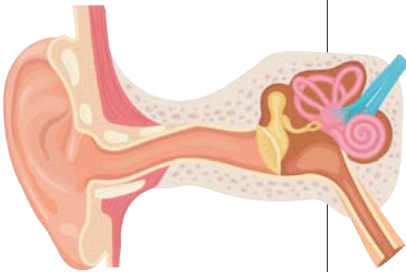
반려동물 등록제에 따라 반려동물로 기르는 개는 생후 2개월이 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등록해야 하며, 희망 시 그 전에도 등록할 수 있다. 반려동물 등록은 시·군·구청 및 등록 대행 기관(동물 병원, 동물 보호 단체, 동물 보호 센터 등)에서 접수가 가능하며, 등록 신청이 완료되면 동물 병원에서 내장형 무선 식별 장치(마이크로 칩) 개체 삽입을 받게 된다. 마이크로 칩은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재질로 코팅된 쌀알 크기의 의료 기기로, 개 양쪽 어깨뼈 사이의 피하에 주입한다. 시술을 원치 않는다면 외장형 무선 식별 장치를 부착할 수도 있으며, 이 과정까지 마치면 동물 등록증이 발급된다. 외장형 무선 식별 장치의 경우 해당 동물이 기르던 곳에서 벗어나는 경우 반드시 부착하고 있어야 한다.



♦ **동물 보호법**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만든 법.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동물 복지를 증진하고 국민이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도록 장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08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글은 반려동물 등록제의 개념, 등록 방법 등의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글에서 반복되며 중심이 되는 핵심어는 ‘반려동물 등록(제)’임을 쉽게 찾을 수 있죠. 이 글의 핵심 내용은 첫 번째 문장이자 중심 문장에 잘 드러나는데, ‘동물 보호법에 따르면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생후 2개월 이상의 개는 반드시 지방자치 단체에 동물 등록을 해야 한다.’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중심 문장 뒤로 이어지는 문장들은 중심 문장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는 뒷받침 문장입니다.

학습 활동



1 다음 글을 읽고 활동해 보자.

귀는 사람이 소리를 듣고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주요 기관이다. 귀는 크게 외이, 중이, 내이로 나눌 수 있으며 측두골, 고막, 유스타키오관(이관) 등이 이들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비행기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을 때 갑자기 상승하거나 하강하면 귀가 먹먹해지는 경험을 해 본 적이 있을 텐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비행기가 이륙하여 여객실의 압력이 낮아지면 외이의 압력도 낮아진다. 그런데 중이는 외이만큼 빨리 압력이 떨어지지 않아, 중이의 압력이 외이보다 더 높은 상태가 된다. 이러한 외이와 중이의 압력 차이가 귀가 먹먹해지는 것 같은 신체적 불편함의 원인이 된다. 이때, 침을 몇 번 삼키면 먹먹해진 귀 안이 뽕 뚫리는 느낌과 함께 원래대로 돌아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는 중이와 코 인두 사이에 있는 유스타키오관이 평상시에는 닫혀 있다가 침을 삼키면 일시적으로 열려 중이의 압력과 외부 압력이 같아지도록 조절하기 때문이다. 유스타키오관은 우리가 고도의 변화에 따라 느끼게 되는 불편함을 완화해 주는 데 큰 역할을 한다.

(1) 이 글의 핵심어를 찾아보자.

(2) 다음은 이 글의 요약문이다. 둘 중 더 적절한 요약문을 고르고, 그렇게 판단한 이유를 이야기해 보자.

가 비행기가 이륙하여 여객실의 압력이 낮아지면 외이의 압력도 낮아진다. 그런데 중이는 외이만큼 빨리 압력이 떨어지지 않아 중이의 압력이 외이보다 더 높게 되어 귀가 먹먹해진다.

나 비행기나 엘리베이터에서 귀가 먹먹해지는 것은 중이와 외이의 압력 차이 때문이다. 이때 침을 삼키면, 닫혀 있던 유스타키오관이 중이와 외이의 압력이 같아지도록 조절하여 불편함을 완화해 준다.

- 요약문으로 더 적절하다고 판단한 글:
- 이유:

모둠
2

다음 글을 읽고 활동해 보자.

지금 사용하는 개인 컴퓨터를 살펴보면 다양한 폴더와 파일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장된 파일이 모두 데이터입니다. 이 중 최근 생성한 파일 또는 자주 사용하는 파일 외에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을까요?

제 컴퓨터에는 문서 파일, 이미지 및 영상 파일, 유틸리티 프로그램을 비롯해 공간 효율을 위해 압축해 둔 파일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살펴보면 재생한 지 오래된 음악 파일이나 과거의 자료와 각종 문서가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언제 다운로드했는지 혹은 만들었는지 기억조차 없는 파일입니다.

이처럼 수많은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지만 활용하지 않는 데이터를 ‘다크 데이터(dark data)’라고 합니다. 사용자조차 존재 여부를 모르는 채 보유하고 있는 다크 데이터는 사용자의 컴퓨터나 클라우드 등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다크 데이터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잘 지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다크 데이터는 귀중한 공간을 차지할 뿐입니다. 필요 없는 데이터를 삭제하면 자원과 비용의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윤준탁, 「잠자는 보물, 다크 데이터」



(1) 이 글의 핵심어와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자.

핵심어	
핵심 내용	

(2) (1)에서 정리한 핵심어를 활용하여 글과 관련된 비문자 텍스트를 찾아보자.

출처			
유형	☐ 그림 ☐ 동영상	☐ 포스터 ☐ 기타()	☐ 인포그래픽
비문자 텍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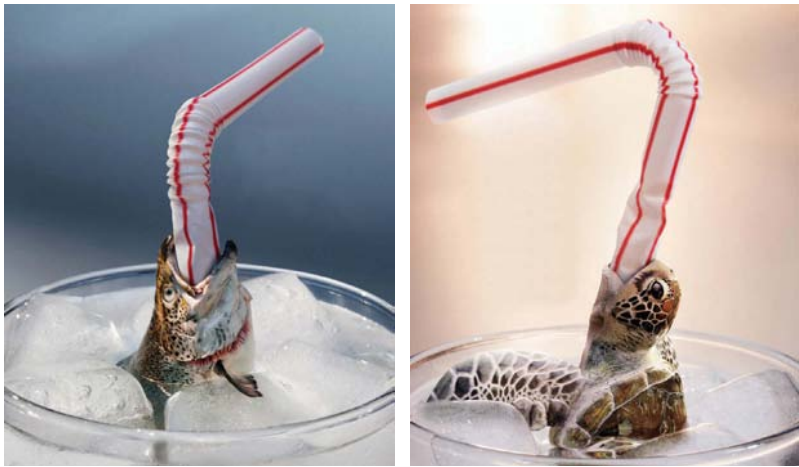
(3) (2)에서 찾은 비문자 텍스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해 보자.

- 제목:
- 확인할 수 있는 정보:



3 다음 텍스트에 담긴 정보를 파악해 보자.

생명을 죽이는 일회용 빨대



- 그린피스에서 제작한 공익 광고 포스터(2018년)

(1) 이 텍스트에서 파악한 정보를 정리해 보자.

제목	
파악한 정보	

(2) 이 텍스트의 핵심 내용을 한 문장으로 써 보자.



공익 광고는 '광고'라는 설득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사회 문제를 다루며, 사람들의 태도를 공공의 이익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 다음을 문자 텍스트로 바꾸고, 논증적 텍스트와 비논증적 텍스트로 구분해 보자.



가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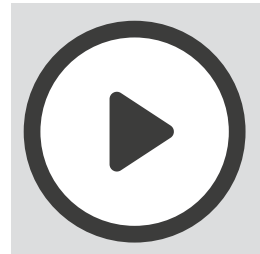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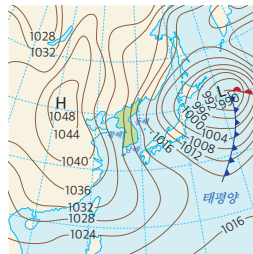
라



마



바



사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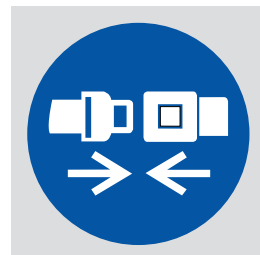
자



차



카



타

텍스트	문자 텍스트로 바꾸기	구분하기	
		논증적 텍스트	비논증적 텍스트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도움말

논증적 텍스트는 독자를 설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논증적 텍스트는 사실이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인다는 점을 생각하며 구분해 보자.

◆ **맞춤 아기** 희귀 질환을 앓는 자녀를 치료하는 데 이용할 줄기세포를 얻기 위해 탄생시킨 아기.

5 가, 나를 읽고 다음 활동을 해 보자.

가 치료 목적 맞춤 아기◆ 기술의 법적 허용에 찬성합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 맞춤 아기 기술은 의료 진보로서의 가치를 지닙니다. 이러한 기술은 유전자 조작을 통해 유전적 질환 및 장애의 발생 가능성을 줄이거나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 유전적 난치병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의 치료에 드는 경제적 비용과 심리적 고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유전적 난치병이 있는 사람을 치료하는 데는 막대한 의료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 환자가 평생 받을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생각한다면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서라도 맞춤 아기를 탄생시키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 난방비 상승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해와 사용량은 비슷한데 요금이 배로 뛰었다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난방비가 크게 오른 건 기록적인 한파로 난방 시설 사용량이 늘어난 데다 도시가스로 공급되는 액화 천연가스(LNG)의 수입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액화 천연가스 생산국의 전쟁 여파로 지난해 11월 국제 액화 천연가스 가격은 재작년 1분기보다 2.8배나 뛰었습니다. 이로 인해 최근 1년간 도시가스와 열 요금은 각각 38.4%, 37.8% 올랐습니다.

- 와이티엔(YTN)(2023. 1. 24.)

(1) 가, 나에서 핵심어와 핵심 내용을 찾아보자.

구분	핵심어	핵심 내용
가		
나		

(2) (1)을 참고하여 가, 나 글의 목적과 구조를 알맞게 연결해 보자.

	글의 목적	글의 구조
가	정보 전달	중심 문장-뒷받침 문장
나	설득	주장-근거



1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써 보자.

글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여 글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은/는 글쓰기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찾고, 이를 간단하고 분명한 문장으로 진술하는 글쓰기이다.

2 다음 설명이 맞으면 ○, 틀리면 ×를 해 보자.

- ① 논증적 텍스트는 독자를 설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인 글이다. ()
- ② 비논증적 텍스트는 사실이나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 포함된다. ()
- ③ 비문자 텍스트는 제목이나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서 핵심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

3 텍스트 유형을 올바르게 연결해 보자.

논증적
텍스트

장기적으로 세계는 신·재생 에너지 시대에 접어들 것으로 생각한다. 화석 연료의 고갈로 인해 자원 확보 경쟁이 점점 심해지고,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에너지 공급 방식의 다양화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라 기후 변화 협약 등 국제적인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청정에너지의 비중을 확대할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으므로, 지속 가능한 미래 에너지로 신·재생 에너지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비논증적
텍스트

독도의 미래 자원으로는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있다. 가스 하이드레이트는 메탄이 주성분인 천연가스가 얼음에 둘러싸여 고체로 변화한 것으로 수심 300m 이상의 심해저에서 주로 발견된다. 이에 가스 하이드레이트를 일명 메탄 수화물, 메탄 하이드레이트, 불붙는 얼음, 고체 천연가스라고도 부른다. 가스 하이드레이트는 다른 연료보다 공해가 적고 이것에 있는 곳에는 석유가 묻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 동북아 역사 재단, 『독도 바로 알기』

2. 텍스트 유형별 분석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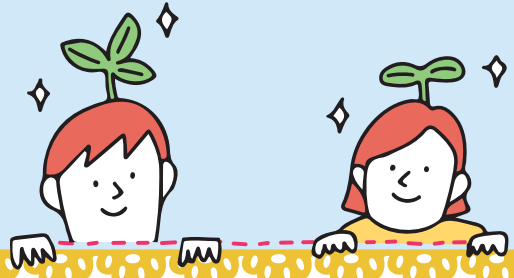
다음 공익 광고를 보고, 활동을 해 보자.



- 국제 어린이 구호 단체 '세이브더칠드런' 멕시코 지부의 공익 광고(2012년)

학습 목표

텍스트의 유형별 분석 방법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다.



말풍선에 들어갈
광고 문구를 써 봅시다.

A dashed blue speech bubble outline with a tail pointing towards the bottom right, intended for writing an advertisement slogan.

위와 같이 광고 문구를 쓴 이유는
무엇인가요?

A dashed blue speech bubble outline with a tail pointing towards the bottom right, intended for writing the reason for the advertisement slogan.

친구들이 쓴 광고 문구와 비교해 보고,
느낀 점을 이야기해 봅시다.

A dashed blue speech bubble outline with a tail pointing towards the bottom right, intended for comparing and discussing the advertisement slogans.

텍스트 분석하기

텍스트를 분석하는 방법은 텍스트의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글의 목적에 따라 텍스트의 유형은 비논증적 텍스트와 논증적 텍스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비논증적 텍스트는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므로, 설명하려는 대상을 제시하는 부분과 대상에 대한 자세한 설명으로 텍스트가 구성됩니다. 따라서 비논증적 텍스트를 분석할 때는 우선 설명하는 대상인 핵심어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의, 예시, 비교와 대조, 분류 등의 방법으로 핵심어를 설명하는 부분을 구분하면 됩니다.

다음 글을 분석해 봅시다.

◆ 레오나르도 다빈치(1452~1519) 르네상스 시대의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화가·건축가·과학자. 화가로서 『모나리자』, 『최후의 만찬』 등을 그렸고, 해부학에서도 큰 업적을 남겼다. 그 외에 천문학, 물리학, 지리학, 토목학, 병기 공학, 생물학 따위에서도 독창적인 연구 및 발명을 하였고 음악에도 뛰어난 소질이 있었다. 예술과 과학에 대한 다양한 기록을 남겼다.

◆ 비트루비우스 폴리오(?~?) 고대 로마의 건축가. 그의 책 『건축 10서』는 르네상스 시대에 재발견되어 1484년에 초판이 간행되었고, 유럽 건축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인체 비례도(비트루비안 맨)’는 인체의 황금 비율을 볼 수 있는 유명한 작품이다. 다빈치는 이 그림을 통해 인간의 신체에 담긴 우주의 질서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인체 비례도는 다빈치의 천재성을 보여 주는 그림으로도 유명하다. 다빈치는 이 위대한 그림의 아이디어를 어디에서 얻었을까? 다빈치가 그린 이 인체 비례도는 비트루비우스 폴리오◆의 건축물 배치법에서 영감을 얻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건축가 비트루비우스는 건축물들의 배치가 인체의 비율을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건축 10서』 3권에서 “신전 설계는 대칭을 기반으로 한다. 균형 잡힌 인체의 각 부분이 그러하듯, 신전의 각 부분은 정확한 비율로 설계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균형 잡힌 인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그는 “발의 길이는 신장의 1/6이 되어야 하며, 팔뚝 길이는 신장의 1/4, 가슴너비도 신장의 1/4이어야 한다. 다른 부위도 그 부위마다 적용되는 대칭적 균형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15세기에 이르러 다빈치는 비트루비우스의 철학을 그림으로 담아내려고 시도했다. 다빈치는 보다 명확한 비율을 계산하기 위해 컴퍼스와 삼각자를 이용해서 원과 정사각형을 그렸다. 그리고 남자의 팔을 그 위에 걸쳐 놓았고, 남자의 배꼽이 원의 중심에 정확하게 위치하도록 했다. 다빈치는 인체 비례도 아래에 기록을 남겨, 배

치에 대해 추가적으로 설명했다. “머리 위치가 신장보다 1/14 낮아질 정도로 양발을 충분히 벌리고 양손이 머리 꼭대기 선에 닿도록 활짝 뻗으면, 쪽 뻗은 팔다리의 중심은 배꼽이 되고 다리 사이의 공간은 정삼각형이 된다.” 다빈치는 보다 정확한 비율을 위해 다양한 측정과 조사를 했다. 이를 통해 인체 비례도에서 다루지는 22개 수치 중 절반 이상에서, 고대에 비트루비우스가 제시한 수치가 틀렸음을 밝혀내기도 했다. 이처럼 다빈치는 인체의 황금 비율을 완성하기 위해 해부학 등의 다양한 과학적 지식과 아름다운 신체를 보여 주기 위한 철학적 지식을 결합했다.

문단	핵심어	핵심어에 대한 설명
1	다빈치의 인체 비례도	다빈치의 인체 비례도는 비트루비우스의 건축물 배치법에서 영감을 얻었다.
2	비트루비우스의 건축물 배치법	비트루비우스의 건축물 배치법은 인체의 비율을 반영했다.
3	인체의 황금 비율	인체의 황금 비율에는 과학적 지식과 철학적 지식이 결합해 있다.

각 문단의 핵심어를 토대로 전체 텍스트의 핵심 내용을 분석해 보면, 이 글은 인체 비례도에 대한 소개를 시작으로 건축물과 인체 비례의 상관관계에 대해 설명하고, 인체의 황금 비율을 완성하기까지의 과정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비논증적 텍스트와 달리 논증적 텍스트는 합리적인 설득을 목적으로 하므로, 글쓴이의 주장이나 견해와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논증적 텍스트를 분석할 때는 먼저 핵심어를 찾은 다음, 글쓴이가 다루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글쓴이가 다루고 있는 문제를 ‘쟁점’이라고도 하는데, 보통 물음의 형태로 표현됩니다. 이 물음, 즉 쟁점에 대한 글쓴이의 ‘결론’이 바로 주장입니다. 정리해 보면 핵심어를 찾은 뒤에는 쟁점이 무엇인지, 쟁점에 대한 글쓴이의 결론(주장)은 무엇인지 파악하고, 마지막으로 결론(주장)을 정당화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파악하면 됩니다.



다음 글을 분석해 봅시다.

◆ **능력주의(meritocracy)** 개인의 능력에 따라 사회적 지위나 권력이 주어지는 사회를 추구하는 정치 철학을 말한다. 예를 들어 수능 시험을 통한 개인 능력 평가로 대학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가 사회가 능력에 따라 경제적 보상과 지위를 배분해야 한다는 생각은 몇 가지 이유에서 매력적이다. 그중 두 개는 능력 우선 채용에서 ‘바람직하다’고 본 효율성과 공정성을 원칙화한 것이다. 노력과 선도적 시도, 재능에 후하게 보상하는 경제 체제는 여타의 체제에 비해 생산적일 것이다. 오직 각자의 능력대로만 보상하는 시스템은 공정성을 갖는다. 또한 능력 위주로 보상하는 사회는 야망이라는 차원에서도 매력적이다. 이런 사고방식은 ‘오직 성공은 우리 하기 나름’이라는 생각과 연결이 된다. 우리는 재능과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높이 오르고 꿈을 이룰 수 있는 존재다.

- 마이클 샌델, 함규진 옮김, 『공정하다는 착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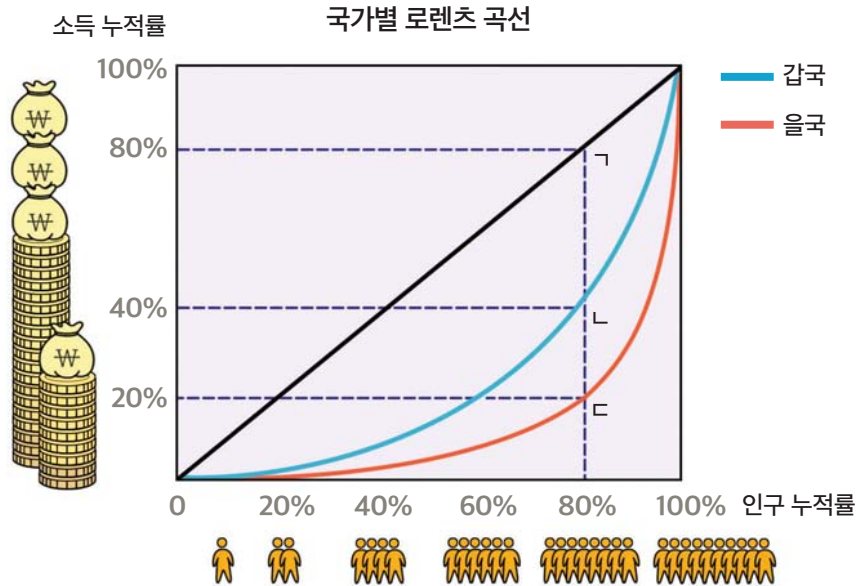
나 능력주의◆ 원칙은 폭압적으로 변할 수 있다. 사회가 그 원칙에 따르지 못할 때 뿐만 아니라, 따를 때도 그렇다. 능력주의의 이상은 개인의 책임에 큰 무게를 싣는다. 개인이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일은 바람직하다. 어느 정도까지는 말이다. 하지만, 우리 각자가 삶에서 주어진 결과를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는 말할 수 없다. 능력주의적 사고방식의 바탕에는 부(富)는 재능과 노력의 상징이며, 가난은 나태의 상징이라는 시각이 존재하고 있는 셈이다.

- 마이클 샌델, 함규진 옮김, 『공정하다는 착각』

우선 두 글의 핵심어와 쟁점을 찾아봅시다. 두 글은 모두 ‘능력주의’를 다루고 있으며, 쟁점은 ‘능력주의는 공정한가?’입니다. 이러한 쟁점에 대해 가는 ‘능력주의는 바람직하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효율성, 공정성, 야망의 성취’를 제시합니다. 반면에 나 는 ‘능력주의는 폭압적일 수 있다.’라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부와 가난 같은 삶의 결과가 전적으로 개인의 책임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들고 있습니다.

앞서 분석해 본 텍스트들은 문자 텍스트입니다. 그렇다면 비문자 텍스트는 어떻게 분석해야 할까요? 비문자 텍스트를 분석할 때는 제목과 자료에서 드러나는 정보를 확인합니다. 특히 비문자 텍스트의 제목에서는 무엇을 다루고 있는지가 드러나므로, 제목을 통해 자료 해석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료 해석의 방향을 정하고, 자료에서 파악한 정보를 비교하거나 상관관계를 따져 비문자 텍스트가 전달하는 핵심 내용을 추론하면 됩니다.

다음 비문자 텍스트를 분석해 봅시다.



이 그래프의 제목은 ‘국가별 로렌츠 곡선’입니다. 로렌츠 곡선은 한 나라 국민의 소득 분포의 불평등한 정도를 살펴볼 수 있는 그래프입니다. 국민을 소득에 따라 순서를 매겨 가로축에는 누적된 인구의 비율을, 세로축에는 누적된 소득의 비율을 표시합니다. 로렌츠 곡선이 직선에 가까울수록 소득이 평등하게 분배됨을 나타내며 곡선이 많이 휘수록 소득의 분배가 불평등함을 보여 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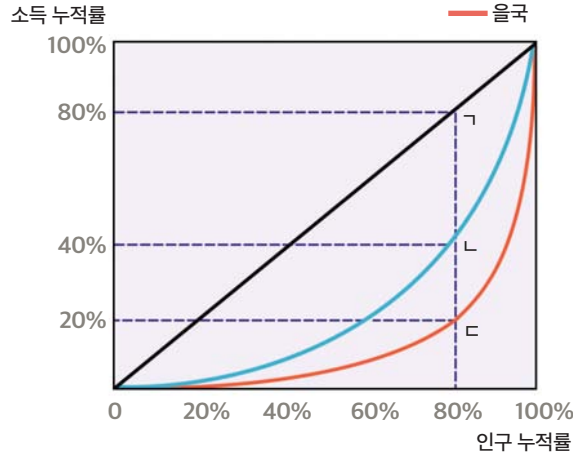
그래프에서 ㄱ은 완전 평등 선에 존재하는 점으로 80%의 인구가 전체 소득의 80%를 차지함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국가에서는 모든 사람의 소득이 동일하다는 의미인데,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인 국가의 상태입니다. 한편 갑국의 ㄴ에서는 소득 하위 80%의 인구가 전체 소득의 40%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바꿔 말하면, 갑국에서는 소득 상위 20%의 인구가 전체 국민 소득의 6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을국의 ㄷ에서는 소득 하위 80%의 인구가 전체 소득의 20%를 차지하고 있고, 소득 상위 20%가 전체 소득의 80%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프의 분석을 통해 파악한 정보를 바탕으로 을국의 소득 분배 상태가 갑국에 비해 불평등하다는 핵심 내용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앞의 그래프와 같이 비문자 텍스트는 주로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지만, 쟁점에 대한 결론(주장)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다음 두 개의 비문자 텍스트를 연관 지어 분석해 봅시다.

◆ **행복 지수** 유엔 산하 자문 기구인 지속 가능 발전 해법 네트워크(SDSN)에서 매년 발표하는 세계 행복 보고서에는, 각국의 행복 지수가 포함되어 있다. 행복 지수는 국내 총생산(GDP), 기대 수명, 사회적 지지, 삶에 대한 선택의 자유로움, 부정부패에 대한 인식, 관용 등 6개 항목의 3년치 자료를 토대로 산출한다.

가 국가별 로렌츠 곡선



나 국가별 행복 지수◆

국가	행복 지수
가국	7.82
나국	7.03
다국	6.80
갑국	6.61
라국	6.17
미국	6.12
을국	5.75
바국	4.51
사국	3.76

- 지속 가능 발전 해법 네트워크 (2022년)

가)는 앞에서 분석한 ‘국가별 로렌츠 곡선’으로, 핵심 내용은 ‘을국은 갑국보다 소득 분배가 불평등하다.’입니다. 나)는 ‘국가별 행복 지수’를 나타낸 통계표입니다. 나)에서 갑국과 을국의 행복 지수를 찾아서 비교해 보면, ‘갑국은 을국보다 행복 지수가 높다.’라는 핵심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 그래프를 통해 소득 분배의 불평등한 정도를 파악하면, 소득 분배가 불평등한 나라일수록 행복 지수가 낮으리라 예측할 수 있고, 나)의 표를 통해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가)와 나)의 비문자 텍스트를 연관 지어 분석하면 ‘소득 불평등의 수준과 행복 지수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있는가?’라는 쟁점과 ‘소득 불평등의 수준과 행복 지수 간에는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결론(주장)을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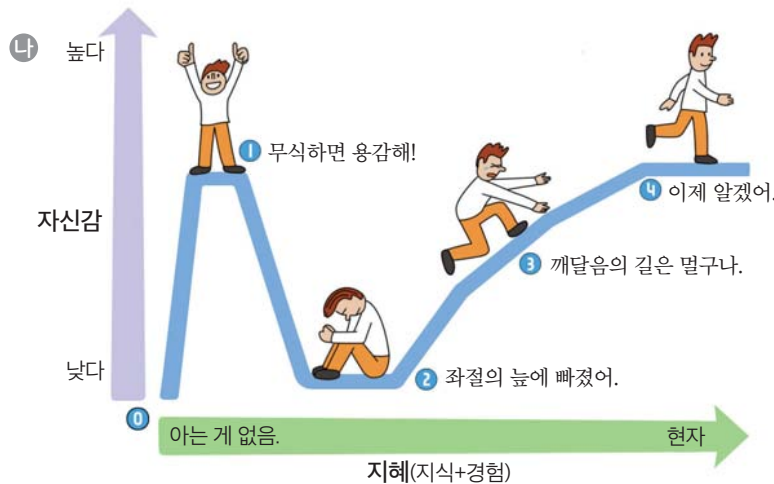
1 다음 텍스트를 분석해 보자.

학습
활동



가 미국 코넬 대학교의 두 심리학자 데이비드 더닝과 저스틴 크루거는 1999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논리적 사고, 문법, 유머 감각 등을 테스트한 결과, 하위 25%에 해당하는 실험 참가자들이 대체로 자신의 실력을 평균보다 훨씬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논문에 따르면 특정 분야에서 제한된 지식이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객관적 평가에 비해 자신의 지식이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이후 이들의 이름을 따 이 현상을 ‘더닝 크루거 효과’라고 부르고, 비논리적인 추론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는 인지 편향을 가리킬 때 사용한다. 흔히 ‘무식하면 용감하다.’라는 말과 맥락이 비슷하다.



(1) 가의 핵심어와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자.

핵심어	
핵심 내용	

(2) 나 는 ‘더닝 크루거 효과’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정리해 보자.



도움말

비논증적 텍스트를 분석할 때는 설명하는 대상을 파악하고 구체적으로 대상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을 찾으면 된다.

2 다음 텍스트를 분석하여 빈칸을 채워 보자.

외적의 침입과 상호 간의 권리 침해를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공통의 권력을 수립하는 유일한 길은 모든 사람의 의지를 다수결에 의해 하나의 의지로 결집하는 것, 즉 그들이 지닌 모든 권력과 힘을 ‘한 사람’ 혹은 ‘하나의 합의체’(이하 ‘국가’)에 양도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자신들 모두의 ‘인격’을 지니는 국가를 임명하여, 국가가 공공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어떤 행위를 하든 혹은 백성에게 어떤 행위를 하게 하든, 각자가 그 모든 행위의 ‘본인’이 되고 또한 본인임을 인정함으로써, 개개인의 의지를 국가의 의지에 종속시키고, 개개인의 다양한 판단들을 국가의 단 하나의 판단에 위임하는 것이다. 이것은 동의 혹은 화합 이상의 것이며, 만인이 만인과 상호 신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모든 인간이 단 하나의 인격으로 결합되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만인이 만인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 것과 같다.

“나는 스스로를 다스리는 권리를 국가(이 사람 혹은 이 합의체)에 완전히 양도할 것을 승인한다. 단, 그대도 그대의 권리를 양도하여 국가의 활동을 승인한다는 조건 아래.”

- 토머스 홉스, 진석용 옮김, 『리바이어던』



도움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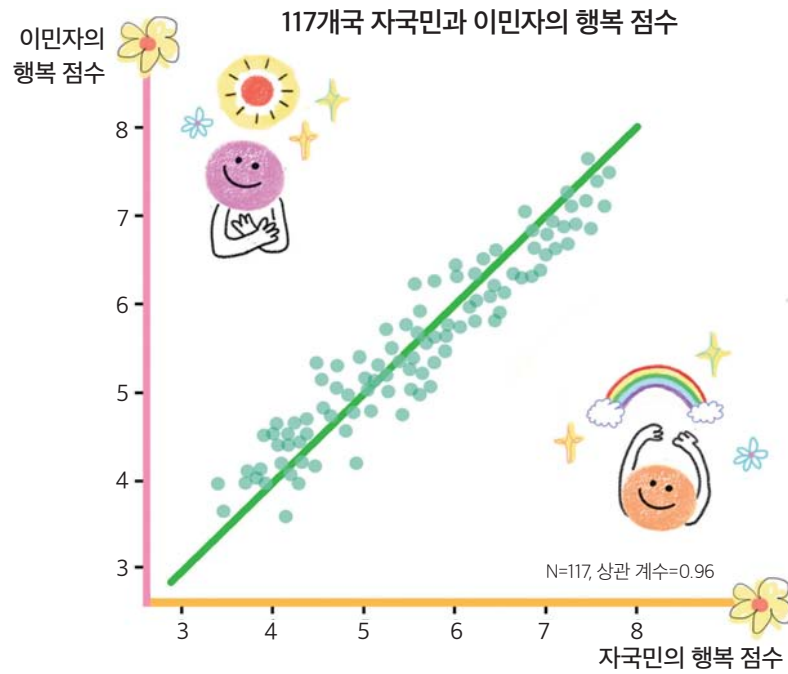
논증적 텍스트를 분석할 때는 먼저 핵심어를 찾고 글쓴이가 다루고 있는 문제, 즉 ‘쟁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핵심어	
쟁점	
결론(주장)	
근거	

모둠

3

다음 그래프를 분석해 보고, 그래프가 의미하는 바를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자.



- 지속 가능 발전 해법 네트워크(2018년)

핵심어	
쟁점	
결론(주장)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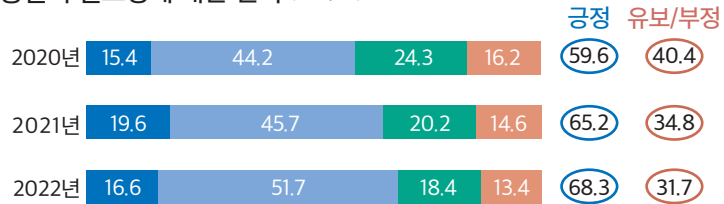
4 다음 텍스트를 유형별로 구분하고,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자.

가 강의 시간표

요일	월	수
과목	공사법(2차)	세법(2차)
시간	10:00~13:30	10:00~13:30

나 통일 연구원(KINU)은 ‘2022년 통일 의식 조사’ 보고서를 내놔다. 조사에 의하면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지향성은 약화되는 반면, 평화적 분단에 대한 지향성은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보고서는 통일과 평화적 분단이 남북의 미래에 대한 배타적 선택지가 아님을 보여 주기도 했다. 조사 결과를 분석하면 평화적 분단과 통일이 양립 가능할 수 있는 태도임이 분명하며, 평화적 분단 지향성과 통일 지향성이 모두 높은 국민의 비율이 22.9%였다. 즉, 공존의 과정을 통해 통일을 이루어 가길 원하는 국민의 비율이 그 정도 수준인 셈이다.

다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단위:%)



■ 반드시 통일이 돼야 한다 ■ 큰 부담만 없다면 통일되는 것이 좋다
■ 상당 기간 현 공존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 통일이 되지 않는 편이 더 낫다

- 케이비에스(KBS)(2022년)

구분	텍스트 유형	핵심 내용
가	문자 / 비문자 논증적 / 비논증적	
나	문자 / 비문자 논증적 / 비논증적	
다	문자 / 비문자 논증적 / 비논증적	



1 텍스트의 유형에 따른 글의 목적과 분석 방법을 올바르게 연결해 보자.

	글의 목적	분석 방법
논증적 텍스트	합리적 설득	핵심어를 파악하고 핵심어의 본질을 설명하는 부분을 찾는다.
비논증적 텍스트	정보 전달	핵심어를 찾고, 쟁점, 결론, 근거를 파악한다.

2 다음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를 써 보자.

그래프, 통계표, 그림, 동영상 등의 비문자 텍스트를 분석할 때는 ()와/과 텍스트에 드러나는 정보를 확인한다. ()을/를 통해 자료 해석의 방향을 설정하고, 파악한 정보를 비교하거나 상관 관계를 따져 핵심 내용을 추론하면 된다.

3 다음 공익 광고에 대한 설명이 맞으면 ○, 틀리면 ×를 해 보자.



- ① 이 공익 광고는 비논증적 비문자 텍스트에 해당한다. ()
- ② 이 공익 광고의 핵심어는 '댓글'이다. ()
- ③ 글쓴이의 결론(주장)은 '인터넷에서의 댓글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이다. ()

3. 요약문 작성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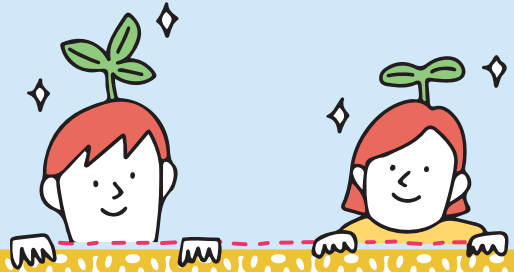
다음 워드 클라우드를 보고, 활동을 해 보자.



워드 클라우드는 특정 단어의 빈도나 중요성을 글자의 크기로 나타낸 이미지를 말한다. 위의 워드 클라우드는 이 책의 텍스트를 바탕으로 만들었다.

학습 목표

텍스트에 대한 분석 결과 및 요약의 일반 규칙을 적용하여
텍스트 유형에 맞는 요약문을 작성할 수 있다.



이 그림에서 글자의 크기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A large dashed rectangular box with a small tail pointing towards the bottom right, intended for a student's answer.

이 그림을 참고하여 ‘논술’이란
무엇인지 써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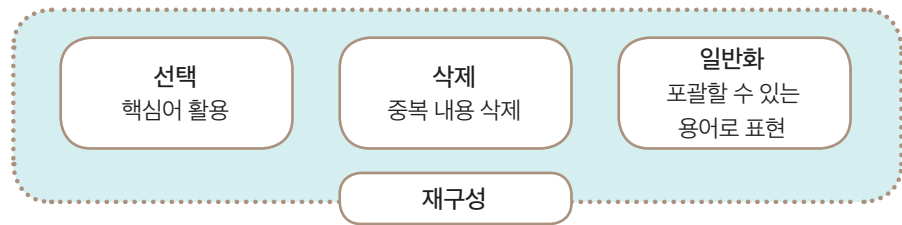
A large dashed rectangular box with a small tail pointing towards the bottom right, intended for a student's answer.

자신의 고등학교 생활을 대표하는
단어를 삽입하여 워드 클라우드로
만들어 보고, 친구들과 공유해 봅시다.

A large dashed rectangular box with a small tail pointing towards the bottom right, intended for a student's answer.

요약의 일반 규칙

요약문은 텍스트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여 간결하고 명료하며 알기 쉽게 표현하는 글입니다. 요약문은 텍스트의 분량을 줄이더라도 그 핵심 내용이 잘 드러나게 작성해야 합니다. 요약문을 작성할 때는 핵심어를 활용하는 방식, 중복 내용을 삭제하는 방식, 여러 사례를 포괄하는 방식 등을 사용하여 핵심 내용을 재구성합니다.



선택, 삭제, 일반화, 재구성을 요약의 일반 규칙이라고 하는데, 이 규칙은 차례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 선택

텍스트를 요약할 때는 핵심어를 먼저 찾고, 이를 중심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합니다. 요약해야 할 텍스트가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중심 문장을 선택하여 요약할 수 있습니다.

◆ 장기 부전 간, 신장, 심장 등 우리 몸 속의 여러 장기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멈추거나 심하게 저하되는 상태.

장기 기증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 장기 이식은 기존의 방법으로는 소생하기 힘든 말기 질환자의 장기를 정상 장기로 대체하여 새로운 삶을 살게 해 주는 치료법이다. 장기 기증은 장기 이식을 받으면 살 수 있는 장기 부전◆ 환자에게 장기를 나누어 줌으로써 생명을 살리는 것을 말한다. 장기 기증에는 생체 장기 기증, 뇌사자 장기 기증, 사후 장기 기증 등이 있다. 기증이 가능한 장기는 생체의 신장, 간장, 골수와 뇌사자의 췌장, 신장, 간장, 심장, 폐, 각막 그리고 사망자의 각막 등이다.

- 피엠지(pmg) 지식 엔진 연구소, 『시사 상식 사전』

이 텍스트에서 전체 내용을 아우르는 중심 문장을 선택하면 ‘장기 기증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입니다. 이를 간명하게 자신의 표현으로 재구성하여 ‘장기 기증은 생명을 살린다.’라고 요약문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삭제

텍스트에서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반복되거나 중요성이 낮은 문장을 삭제하여 중심 내용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해마는 뇌의 정보를 직조하는 직공이다. 무슨 일이 언제 어디서 일어났고, 그 의미는 무엇이며, 나는 그것을 어떻게 느꼈는가와 같은 우리의 경험에 포함된 정보들을 연결한다. 해마는 뇌의 여러 부분에 흩어져 있는 이 모든 다양한 정보들을 한 데 모아 나중에 한꺼번에 다시 불러올 수 있도록 하나의 연관된 데이터 단위로 묶는 역할을 한다.

- 리사 제노바, 윤승희 옮김, 『기억의 뇌 과학』

이 텍스트에서 중복되는 단어와 사례들을 삭제하고 표현을 재구성하면, ‘해마는 뇌의 다양한 정보를 하나의 데이터로 묶는 역할을 한다.’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3) 일반화

텍스트에 전체 내용을 포괄하는 중심 문장 없이 구체적인 사례들이 나열되었을 때는 그 사례들을 포괄하는 단어 혹은 개념을 활용하여 요약문을 작성하는데 이를 일반화라고 합니다. 일반화는 흔히 범주화의 개념으로 활용됩니다.

엠비티아이(MBTI)는 정신적 에너지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외향-내향(E-I)’, 정보 수집을 포함한 인식의 기능을 나타내는 ‘감각-직관(S-N)’,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는 ‘사고-감정(T-F)’, 인식 기능과 판단 기능이 실생활에서 적용되어 나타난 생활 양식을 보여 주는 ‘판단-인식(J-P)’을 기준으로 삼는 성격 검사이다.

이에 따라 사람들을 ‘직관·사고(NT)’의 성향을 보이는 ‘전략가, 발명가, 통솔자, 변론가’, ‘직관·감정(NF)’의 성향을 보이는 ‘옹호자, 중재자, 선도자, 활동가’, ‘감각·판단(SJ)’의 성향을 보이는 ‘현실주의자, 수호자, 경영자, 집정관’, ‘감각·인식(SP)’의 성향을 보이는 ‘장인, 모험가, 사업가, 연예인’ 중 하나로 분류한다.

이 텍스트에서 첫 문장에 나열된 내용을 포괄하는 단어로 ‘분류 기준’을, 이어진 문장에 나열된 내용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성격 유형’을 활용하면, ‘엠비티아이(MBTI)는 모든 사람을 4가지 분류 기준에 따라 16가지 성격 유형으로 분류한다.’는 요약문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도움말

일반화는 개별적인 것이나 특수한 것을 일반적인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문자 텍스트의 요약문 작성하기

요약의 일반 규칙을 활용하여 다음 텍스트의 요약문을 작성해 봅시다.

◆ 맨해튼 프로젝트 제2차 세계 대전 때 실시된 미국의 원자 폭탄 개발 계획. 미국과 영국, 캐나다를 대표하는 과학자들과 나치를 피해 미국에 와 있던 유럽의 과학자들이 참가했다. 1942년에 시작하여 1945년에 완성되었으며, 그 결과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 폭탄이 투하되었다.



1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다.’라는 말에 드러나 있는 일반적인 견해에 대해 생각해 보자. 발명은 한 사회가 아직 충족되지 못한 어떤 필요를 느낄 때, 즉 어떤 기술이 불만스럽거나 부족하다는 인식이 만연해 있을 때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발명가 지망생들은 금전이나 명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동기 부여를 받아 이 같은 필요를 감지하고 거기에 부응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다가 어떤 발명가가 드디어 기존의 불만스러운 기술보다 우수한 해결책을 찾아낸다. 이 해결책이 사회의 가치관이나 각종 기술과 배치되지 않는다면 사회는 그것을 받아들인다.

2 이처럼 필요가 발명의 어머니라고 보는 상식적인 견해를 뒷받침하는 발명품은 제법 많다. 제2차 세계 대전이 한창이던 1942년 미국 정부가 맨해튼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독일보다 먼저 만든 원자 폭탄이 있고, 영국의 탄광에서 배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769년 제임스 와트가 발명한 증기 기관 등이 있다.

3 이런 발명품들을 보다 보면 우리는 그 밖의 중요한 발명품들도 모두 필요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되었다고 착각하기 쉽다. 그러나 사실 수많은 발명품, 또는 대부분의 발명품은 호기심에 사로잡히거나 이것저것 주물럭거리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개발했고, 그들이 염두에 둔 제품에 대한 수요 따위는 처음부터 있지도 않았다. 일단 어떤 물건이 발명되면 그때부터 발명자는 그것의 용도를 찾아내야 했다. 그리고 상당 시간 사용된 이후에야 비로소 소비자들은 그것이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었다. 또 어떤 물건은 어느 한 가지 용도를 위해서 발명되었지만 결국에는 오히려 예기치 못했던 다른 용도에 더 많이 쓰이게 되었다. 놀랍게도 이렇게 어느 한 가지 쓸모를 위해 만들어졌던 발명품 중에는 현대에 이루어진 중요한 기술적 혁신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 비행기와 자동차, 내연 기관과 전구, 축음기와 트랜지스터 등도 예외가 아니다.

4 토머스 에디슨의 축음기는 좋은 예이다. 에디슨은 이 발명품이 소용될 만한 10가지의 용도를 제시하는 글을 발표했는데, 죽어 가는 사람의 마지막 말을 보존하는 일, 시각 장애인들이 들을 수 있도록 책을 녹음하는 일 등이었다. 음악을 재생하는 일은 우선순위에서 상위권에 들지도 못했고, 몇 년 후 에디슨은 자신의 발명품이 상업적 가치가 없다고 조수에게 말했다. 다시 몇 년 후에 축음기 판매 사업을 시작했을 때 그 용도는 사무용 구술 기계였다. 다른 사업가들이 축음기를 이용하여 동전을 넣으면 대중음악이 흘러나오는 주크박스를 만들었을 때 에디슨은 자신의 발명품이 사무용이라는 용도를 벗어나서 그렇게 전략하는 것에 반대했다.

5 자동차 역시 오늘날에는 그 용도가 명백해 보이는 발명품이지만, 니콜라우스

오토가 최초의 가스 기관을 만들었던 1866년 당시에는 호감 가는 물건이 아니었다. 1905년까지도 자동차는 여전히 부자들이나 즐길 수 있는 비싸고 불안정한 장난감에 불과했다. 말이나 철도에 대한 대중의 만족도는 제1차 세계 대전이 일어날 때까지만 해도 매우 높았다.

6 미국에서는 해마다 약 7만 건에 달하는 특허권이 발행된다. 그중에서 상업적인 생산에까지 이르는 것은 소수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발명에 대한 상식적인 견해는 실제로 발명과 필요의 일반적인 역할을 거꾸로 뒤집어 놓은 것이며, 그것은 와트나 에디슨 같은 희귀한 천재들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 ‘○○가 △△를 발명했다.’라는 뻔뻔한 주장 뒤에는 그보다 앞서 만들어졌는데도 무관심 속에 잊힌 전 단계의 형태가 숨어 있는 경우가 많다. 결국 기술이란 어느 영웅의 개별적인 행동을 통해서가 아니라 누적된 행동을 통해 발전하며, 기술이란 대개 어떤 필요를 미리 내다보고 발명되는 것이 아니라 발명된 이후에 그 용도가 새로 발견된다.

- 재러드 다이아몬드, 김진준 옮김, 『총, 군, 쇠』

먼저 텍스트를 문단에 따라 나누고, 일반 요약의 규칙을 적용하여 문단별로 요약합니다. 각각의 문단에서 중심 문장을 찾아서 ‘선택’하고 덜 중요한 문장은 ‘삭제’합니다. 중심 문장을 선택할 수 없을 때는 전체를 포괄하는 내용으로 ‘일반화’합니다. 내용이 복잡한 문단도 ‘선택’과 ‘삭제’, ‘일반화’를 적용하여 자신의 표현으로 ‘재구성’하면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텍스트를 문단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 일반적으로 발명은 필요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한다.
- 2** 필요에 따른 발명품이 많다.
- 3** 그러나 필요에 의해 발명되지 않은 경우도 무수히 많다.
- 4** 에디슨의 축음기는 처음의 용도와 달리 쓰인 발명품이다.
- 5** 자동차도 발명 초기에는 용도가 명백하지 않았다.
- 6** 기술이란 발명된 이후에 그 용도가 새로 발견된다.

다음으로 이 텍스트는 논증적 텍스트이므로 핵심어를 찾은 후, 쟁점이 무엇인지, 쟁점에 대한 글쓴이의 결론(주장)은 무엇인지, 결론(주장)을 정당화하는 근거는 무엇인지를 분석해야 합니다. 이 텍스트를 논증적 텍스트의 분석 방법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핵심어	발명, 필요
쟁점	일반적으로 발명은 필요에서 비롯되는가?
결론(주장)	일반적으로 발명된 후에 용도가 발견된다.
근거	1) 발명가는 발명 후에 용도를 찾아낸다. 2) 소비자는 발명품을 상당 기간 사용한 후에 필요를 느낀다. 3) 발명품은 예기치 못한 용도로 더 많이 사용된다. 4) 다수의 발명품이 상업적인 생산에 이르지 못한다.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이 텍스트의 요약문을 작성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글의 글쓴이는 ‘일반적으로 발명은 필요에서 비롯되는가?’ 하는 물음에 대해 ‘일반적으로 발명된 후에 용도가 발견된다.’라고 주장한다. 글쓴이는 그 근거로 발명가는 발명 후에 용도를 찾아낸다는 점, 소비자는 발명품을 상당 기간 사용한 후에 필요를 느낀다는 점, 발명품은 예기치 못한 용도로 더 많이 사용된다는 점, 다수의 발명품이 상업적인 생산에 이르지 못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비문자 텍스트의 요약문 작성하기

비문자 텍스트를 요약할 때는 비문자 텍스트에서 보여 주는 정보들을 근거로 요약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비문자 텍스트는 문자 이외의 양식으로 다양한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들에 대한 분석이 중요합니다. 특히, 논증적인 비문자 텍스트를 요약할 때는 보다 주의 깊은 분석이 요구됩니다.

다음의 비문자 텍스트를 요약해 봅시다.

갑국의 돼지고기 시장 변화 추이 (돼지 전염병 발생과 돼지고기 수입량 및 소비량의 상관관계) * 전 기간 동안 갑국의 다른 모든 조건은 동일하다고 가정함. * 돼지 전염병은 인간에게 감염되지 않는다는 것이 지난 100여 년간 과학적으로 입증되어 왔음.	연도	돼지고기 국내 생산량(톤)	돼지고기 수입량(톤)	국내 돼지 전염병 발생 건수	주요 수입국 돼지 전염병 발생 건수	국산 돼지고기 소비량(톤)
	2017	954,900	428,000	0	0	943,100
	2018	955,200	310,000	0	2	891,700
	2019	955,100	280,000	0	5	789,500
	2020	954,800	430,000	0	0	942,800

이 비문자 텍스트는 갑국의 돼지고기 시장의 변화를 국내 생산량, 수입량, 소비량, 돼지 전염병 발생 건수를 통해 보여 주고 있습니다.

제목	갑국의 돼지고기 시장 변화 추이
파악한 정보	• 돼지고기 생산량, 돼지고기 수입량, 돼지고기 소비량 • 주요 수입국 돼지 전염병 발생 건수 • 돼지 전염병이 인간에게 감염되지 않는다. • 돼지 전염병이 발생한 수입국에서의 돼지고기 수입은 감소하고, 돼지고기 소비량이 감소하는 상관관계
핵심 내용	돼지의 전염병이 인간에게 전염되지 않는다는 과학적 입증 사실을 알지만, 돼지고기 소비와 수입이 감소한다.

이 텍스트는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습니다.

핵심어	과학적 입증, 인식과 행동
쟁점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인식한 대로 행동하는가?
결론(주장)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인식한 대로 행동하지 않는다.
근거	돼지 전염병이 인간에게 전염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지만, 돼지 전염병이 발생한 국가로부터의 돼지고기 수입이 감소하고, 국내 소비가 감소함.

이를 바탕으로 요약문을 작성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갑국의 돼지고기 시장 변화 추이를 보면,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인식한 대로 행동하는가?’ 하는 물음에 대해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인식한 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근거로는 돼지 전염병이 인간에게 전염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지만, 돼지 전염병이 발생한 국가로부터의 돼지고기 수입이 감소했고, 갑국 국내에서 돼지고기 소비가 감소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1 다음 글을 읽고, 활동을 해 보자.

1 최근 전 세계 우주 선도국들이 달과 화성에 탐사선을 보내기 위한 경쟁을 벌이면서, 국가 기관 또는 민간 기업들의 로켓 발사 횟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미국의 우주 탐사 기업인 ○○○과 국가 기관은 수천 개의 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올렸다. ○○○은 저궤도 통신망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위해 지난 한 해에만 약 100회 로켓을 발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2 프랑스의 국제 보도 전문 채널에 따르면 현재 약 70개국에 우주 기관이 있으며, 우주 관련 민간 기업도 늘어나는 추세다. 인도만 해도 막대한 투자 아래 2021년 5월 기준 총 368개의 우주 기업을 보유하고 있다. 전 세계 우주 발사체 분야 시장은 2022년에 145억 달러(약 19조 4,000억 원)로 평가됐으며, 2030년까지 거의 3배인 430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기상학자 등 전문가들은 머지않아 인공위성 수가 100만 개를 넘을 것이며 이에 따라 오존층이 파괴되고 지구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

3 오존층이 파괴되어 태양의 자외선이 더 많이 지상에 쏟아지면, 인간과 생태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자외선은 피부 세포 속 유전자를 변형시켜 피부암을 일으키고, 면역력을 떨어뜨린다. 또한 농작물에도 치명적인 피해를 입혀서 생산량이 줄고, 바닷속의 플랑크톤을 죽여서 해양 생물의 먹이 사슬이 파괴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 문화일보(2024. 2. 6.)

(1) 각 문단에서 중심 문장을 찾아보자.

1

2

3

(2) 이 글을 문단별로 요약해 보자.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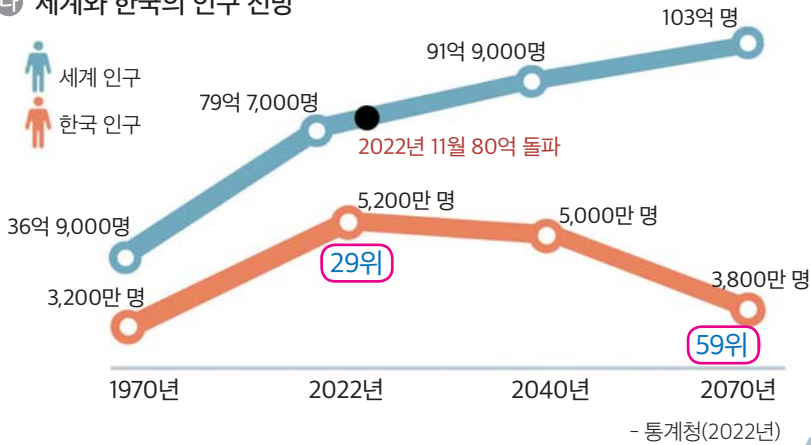
2

3

2 다음 텍스트를 요약해 보자.

가 청국장은 사포닌과 제니스테인을 함유하고 있어 암세포의 증식과 전이를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준다. 콩에 들어 있는 이소플라본 성분이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과 닮아 갱년기 여성에게 도움을 주고, 특히 유방암과 골다공증 예방에 효과가 있다. 또한 청국장에 들어 있는 섬유질과 유산균은 장의 운동을 도와 배변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데 도움을 준다. 이 밖에도 청국장에 들어 있는 다양한 항산화 성분들은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노화를 방지하는 데 효과가 있다.

나 세계와 한국의 인구 전망



(1) 가와 나 의 핵심어를 찾아보자.

구분	가	나
핵심어		

(2) (1)에서 찾은 핵심어를 활용하여 가, 나 를 각각 요약해 보자.

• 가 :

• 나 :



도움말

요약의 일반 규칙에는 '선택, 삭제, 일반화, 재구성'이 있고, 요약의 과정에서 이들은 동시에 적용된다.

3 다음 글을 읽고, 요약의 일반 규칙을 적용하여 요약해 보자.

가 뇌는 구조상 편향될 수밖에 없다. 편향이라고 하면 어감이 좋지지는 않다. 편향이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인종, 젠더, 성적 지향, 나이 등 어떤 사람의 핵심적인 특성을 이유로 편견을 가지고 불공정한 대우를 하거나 특혜를 제공하는 행위를 떠올린다. 하지만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편향은 그런 종류의 편향이 아니다. 뇌가 편향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말은 뇌가 정보를 받아들일 때 모든 정보를 동등하게 대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 아미시 자, 안진이 옮김, 『주의력 연습』

나 어려운 안무를 10초간 보여 주는 실험을 진행하면서, **㉠** 집단에게는 한 번을 보여 주고, **㉡** 집단에게는 열 번을 보여 준다. 이후에 안무를 얼마나 잘 따라할 수 있는지를 집단별로 물어보면, 안무를 잘 따라할 수 있다고 대답한 사람은 **㉠** 집단에 비해 **㉡** 집단이 확연히 높게 나타난다. 하지만 실제로 춤을 추게 하면 두 집단의 결과는 거의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런 유창성 착각의 현상은 멋진 요리를 완성하는 예능 프로그램을 보거나, 스포츠 경기를 보면서도 쉽게 나타난다.

(1) **가**와 **나**를 요약해 보자.

구분	가	나
요약		

(2) (1)에서 **가**, **나**를 요약하기 위해 주로 사용한 요약의 일반 규칙을 말해 보자.

구분	가	나
요약의 일반 규칙		

4 다음 글을 읽고, 요약문을 써 보자.

1 ‘공정성’이 최고의 화두가 된 지 오래다. 대학 입시 제도를 둘러싼 수시·정시 논쟁, 취업 경쟁에서의 공정성 논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관련 논쟁 등. 우리 사회에서 주로 논쟁의 대상이 되는 공정성이란 한 사회에서 좋은 대학, 번듯한 일자리같이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의 문제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헌법의 평등 원칙과도 결부된다.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원칙이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원리가 되기까지 숱한 혁명이 있었고, 많은 이들이 피를 흘려야만 했기에 ‘사회적 신분’을 세습하려는 기득권의 반칙과 특혜에 대한 분노는 정당하다.

2 더군다나 지금은 미래가 현재보다 나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저성장 시대다. 고속 성장 시대에도 반칙과 특혜가 있었지만 지금보다 나눌 수 있는 파이가 컸다. 누군가 반칙으로 작년보다 100% 더 벌었다지만 평범한 나도 30%는 더 버는 상황이라면 그 가속도에 취하여 경쟁자들에 대해 신경을 덜 써도 된다. 그러니 입시 비리, 취업 비리에 대해 덜 예민해진다. 지금은 다르다. 로스쿨 학생들이나 의대생들도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불안 장애, 우울증 진단을 받는 경우가 흔하다고 한다. 그 살벌한 입시 경쟁의 최종 승자 그룹이 이렇다면 대체 나머지 학생들은 어떻게겠는가. 이런 상황에서 다른 건 기대하지도 않으니 딱 하나, 경쟁이라도 공정하기를,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노력의 가치만큼은 무시당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3 문제는, 관성의 법칙에 따라 한번 질주하기 시작한 흐름은 적당한 곳에서 멈추지 못한다는 점이다. 지금 제시되는 공정성에 대한 요구는 분명히 정당한 분노에서 시작되었는데, 그 흐름이 강하게, 오래 계속되다 보니 일부 걱정스러운 주장들도 늘어난다. 어떤 영역이든 정당하게 시작한 흐름이 어느 순간 극단주의, 근본주의에 휘둘리기 시작하는 시기가 온다. 공정에 대해서도 갈수록 근본주의적 주장들이 득세하는 경향이 있다. ‘시험’ ‘능력’ ‘경쟁’을 극단적으로 찬양하고, 그 외의 가치를 불순물 취급하며 배격하는 경향이 그것이다.

4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지는 납득이 된다. 구조적으로 성공의 기회가 줄어드는 저성장 사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노력뿐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다. 그렇지만 이들이 주장하는 ‘공정성’에 대해서는 되짚어 볼 점이 많다. 시험을 통한 자원 배분을 생각해 보자. 겉은 자유 경쟁 및 결과에 대한 승복으로 포장되어 있어 마치 냉정한 시장 논리에 부합하는 것 같지만 시험을 통한 자원 배분 역시 효율성 요구보다는 공공성의 요구가 더 큰 배경을 이루고 있다.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는 훨씬 효율적인 수단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 채



도움말

문단별로 '선택'과 '삭제', '일반화'를 적용하여 자신의 표현으로 '재구성'하면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용, 그것도 '블라인드' 공개 채용을 기업에게 요구하는 것은 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다. 다만 그것이 '공공복리'에 부합하기에 정당화된다. 시험 만능을 주장하는 이 역시 일종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인 것이다. 결국 당장의 불공정을 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자칫 무한 경쟁만이 정의라고 착각하는 것은 곤란하다. 노력, 능력, 경쟁, 공정, 모두 중요한 가치다. 하지만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가지 가치만 추구할 수 없다. 공정 역시 결국에는 공존을 위한 수단 중의 하나인 것이다.

- 문유석, 『최소한의 선의』

(1) 이 글을 문단별로 요약해 보자.

1
2
3
4

(2) 이 글을 분석해 보자.

핵심어	
쟁점	
결론(주장)	
근거	

(3) (1), (2)를 바탕으로 하여 이 글의 요약문을 작성해 보자.



1 다음 설명이 맞으면 ○, 틀리면 ×를 해 보자.

- ① 요약의 일반 규칙은 동시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차례로 적용된다. ()
- ② 요약해야 할 텍스트가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중심 문장을 선택하여 요약할 수 있다. ()
- ③ 텍스트에서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반복되거나 중요성이 낮은 문장을 삭제하여 중심 내용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

2 요약의 일반 규칙과 그 방식을 올바르게 연결해 보자.

선택	•	•	포괄할 수 있는 용어로 표현한다.
삭제	•	•	중복된 내용을 삭제한다.
일반화	•	•	핵심어를 활용한다.

3 텍스트 유형과 요약의 특징을 올바르게 연결해 보자.

문자 텍스트	•	•	텍스트에 문자 이외의 양식이 다양한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어 정보들에 대한 분석이 매우 중요하고, 정보들을 근거로 요약한다.
비문자 텍스트	•	•	각각의 단락에서 중심 문장을 찾아내고 덜 중요한 문장은 삭제한다. 중심 문장을 선택할 수 없을 때는 전체를 포괄하는 내용으로 일반화한다. 내용이 복잡한 단락도 '선택', '삭제', '일반화'하여 자신의 표현으로 '재구성'하여 요약한다.

대단원 마무리

종합하기

이 단원에서 공부한 내용을 정리해 보자.



1. 요약의 필요성

- 요약은 텍스트를 이해하여 핵심 내용을 간추리는 것
- 텍스트 유형
 - 문자 텍스트, 비문자 텍스트
 - 논증적 텍스트, 비논증적 텍스트

2. 텍스트 유형별 분석 방법

- 논증적 텍스트: 핵심어를 찾은 후, 쟁점, 결론(주장), 근거를 파악함.
- 비논증적 텍스트: 핵심어를 파악하고, 핵심어를 설명하는 부분을 구분함.

3. 요약문 작성하기

- 요약의 일반 규칙

선택

삭제

일반화

재구성

평가하기

이 단원에서 공부한 내용을 생각하면서 스스로 평가해 보자.

소단원	학습 목표	평가		
		상	중	하
1. 요약의 필요성	텍스트 분석 및 요약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텍스트의 유형별 차이를 비교·탐색할 수 있다.			
2. 텍스트 유형별 분석 방법	텍스트의 유형별 분석 방법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다.			
3. 요약문 작성하기	텍스트에 대한 분석 결과 및 요약의 일반 규칙을 적용하여 텍스트 유형에 맞는 요약문을 작성할 수 있다.			

자기 성찰 일지



- 1 일상생활에서 요약이 필요했던 상황이나 사건을 떠올려 보고, 무슨 내용을 어떤 식으로 요약할 수 있었는지 써 보자.

- 요약이 필요했던 상황이나 사건:
- 요약한 내용과 방식:

- 2 최근에 재미있게 본 책, 드라마, 웹툰, 영화 중에서 하나를 골라 ‘추천 글’을 찾고, 이 단원에서 학습한 요약의 일반 규칙이 잘 적용되었는지 점검해 보자.

- 내가 찾은 추천 글:
- 점검하기:



논술과 관점 이야기

논술이라고 하면, 당장 엄청 어렵고 지루하겠다는 생각이 들죠? 공부할 때, 제일 힘들었던 부분에는 항상 ‘~을 논술하시오.’와 같은 문장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의외로 논술은 쉬운 것에서 출발하고, 우리 생활의 상당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는 도구가 되어 줍니다. 생각을 하다 보면 자연스레 이어지는 생각의 고리들이 생기기 마련이고, 그 고리들을 따라가다 보면 다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논술을 논술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는 ‘관점’입니다.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것들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논술은 관점을 키울 수 있는 중요한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고, 생각해 볼까요?



사과 그림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림의 빈칸에 작가는 어떤 문장을 넣었을까요?

단서를 주자면, ‘농부’가 한 말입니다. 그럼 좀 쉬워 지나요? 농부에게 사과가 떨어지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오랜 시간 사과를 키운 농부들에게 사과는 ‘가을이 되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관화의 제목이 ‘가을 사과’입니다. 여기에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지만, ‘때가 되었기

때문이지.’라는 문장이 가장 적합해 보입니다. 제목과 그림, 설명을 덧붙이니 이해가 될 것입니다.

물리학자의 눈에는 사과가 떨어지는 장면이 만유인력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이고, 농부의 눈에는 사과가 떨어지는 장면이 자연의 흐름으로 보입니다. 각자 가진 경험과 사고 방식에 따라 같은 장면이 전혀 다르게 보이고 해석됩니다.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 여러분에게 보여 주고 싶은 게 생각났습니다.



시험 한 번만 잘못 봐도 실패한 삶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해 본 것보다 아직 안 해 본 것들이 많은 친구들이 벌써부터 실패한 삶이라니요. 그런 친구가 옆에 있다면 쓰윽 한 번 보여 주세요. ‘현실의 벽에 가로막히면, 세로 시작하면 돼.’ 새로 시작하기 어렵다면 조금 돌아가도 돼.

때로 논술이 어렵고, 그보다 더 많이 학교생활이 힘들어서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겠지만, 그럴 때에는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 이렇게 관점을 바꾸면, 바로 지금 완전히 다른 세상이 보일 것입니다.



Ⅲ 평가하는 글쓰기

1. 텍스트 평가의 필요성과 평가 요소
2. 텍스트 평가하기
3. 평가문 작성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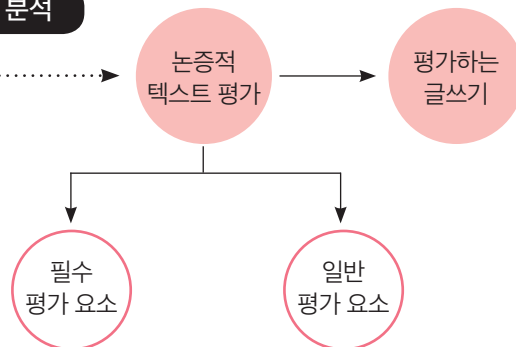


이 단원에서는

논증적 텍스트 평가의 의미와 필요성을 이해하고, 논증적 텍스트를 평가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들에 대해 알아본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논증적 텍스트가 범한 문제점을 파악하며 적절하게 평가하는 방법을 익히고 평가 내용을 묶어 글로 작성해 본다.

미리 보기

텍스트 분석



1. 텍스트 평가의 필요성과 평가 요소

생각
열기

다음 뉴스를 접한 학생들의 대화를 보고 이야기해 보자.

구분	초등학생		고등학생	
	직업명	비율(%)	직업명	비율(%)
1	운동선수	9.8	교사	8.0
2	교사	6.5	간호사	4.8
3	크리에이터	6.1	군인	3.6
4	의사	6.0	경찰관/수사관	3.3

- 교육부, 한국 직업 능력 연구원(2022년)

학생들에게 희망 직업을 조사한 결과, 초등학생 희망 직업 1위는 운동선수, 2위 교사, 3위 크리에이터인 반면, 고등학생 희망 직업 1위는 교사, 2위 간호사, 3위 군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초등학생 자녀 1명, 고등학생 자녀 1명을 둔 학부모 ○○○은 이에 대해 초등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비현실적인 직업관을 가지고 있음을 문제로 지적하며 초등학생에게 체계적인 진로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학부모의 말대로 초등학생의 직업관이 비현실적인 게 맞아. 내 동생도 꿈이 크리에이터라고 해서 우리 가족도 당황했던 적이 있어.



초등학생의 희망 직업이 고등학생과 다르다고 해서 비현실적인 직업관을 가졌다고 단정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아.



학습 목표

텍스트 평가의 의미와 필요성을 이해하고
필수 평가 요소와 일반 평가 요소의 차이를 알 수 있다.



뉴스에 보도된 학부모의
주장은 무엇인가요?

A dashed blue speech bubble with a tail pointing towards the bottom right, intended for a student's response to the first question.

학부모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A dashed blue speech bubble with a tail pointing towards the bottom right, intended for a student's response to the second question.

두 학생 중 누구의 의견에 동의하나요?
이들과 다른 의견이 있다면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A dashed blue speech bubble with a tail pointing towards the bottom right, intended for a student's response to the third question.

텍스트 평가의 의미와 필요성

텍스트를 평가한다는 것은, 대상이 되는 텍스트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텍스트를 비판적으로 평가할 때는 ‘비판’을 잘못된 점을 찾아내는 것으로만 좁게 생각하고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텍스트 평가는 텍스트가 주장하는 바가 참인지, 글쓴이가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정당화하는지, 해당 주장의 의의와 한계는 각각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히는 작업이죠. 이러한 평가 과정은 문제점을 찾아냄으로써 더 나은 논증으로 나아가게 하므로 꼭 필요합니다. 즉 ‘평가’는 비판적 사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합리적 설득 역시 텍스트 평가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입니다. 의견이 다른 상대를 설득하려면 상대의 주장과 근거를 충실히 분석한 상태에서 그 근거의 문제점을 지적해야 하죠. 그러면 상대가 이러한 합리적 문제 제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자기 견해를 보완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논증적 텍스트를 평가하려면, 쟁점과 결론(주장) 그리고 근거를 중심으로 한 텍스트 분석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엇을 다루고 있는지, 다루는 쟁점에 대해 어떤 주장을 펼치고 있는지, 어떤 근거를 들어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해야 비판적 검토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텍스트를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민주 시민으로서 합리적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필수 능력 중 하나입니다. 텍스트에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살피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왜 잘못되었는지 그 이유와 근거를 분명히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입장이 틀리지는 않았지만, 자신에게 더 좋은 대안이 있을 때는 적절한 이유와 근거를 들어 이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보다 나은 대안을 모색하면서 비판적 사고의 관점에서 텍스트를 올바르게 평가하는 태도를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수 평가 요소와 일반 평가 요소 차이 이해하기

텍스트에 대한 비판적 평가는 평가 요소의 성격에 따라 두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평가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필수 평가 요소	분명함 ◆ • 정보가 애매하지 않게, 분명하게 전달되는가?(↔애매함 ◆)
	명료함 ◆ • 정보가 모호하지 않게, 명료하게 제대로 전달되는가?(↔모호함 ◆)
	정확성 • 전달된 내용(주장)이 참인가, 거짓인가?(합리적 수용 가능성 ◆)
	적절성 • 쟁점과 결론(주장)의 관계 그리고 결론(주장)과 근거의 관계가 적절한가?
일반 평가 요소	중요성 • 중요한 쟁점을 다루고 있는가? 중요한 논의를 하고 있는가?
	충분성 • 논의에 필요한 내용이 다 고려되었는가? • 필요한 근거가 다 제시되고 있는가?
	일관성 • 논의 과정에 모순 ◆된 내용이 있지 않은가? • 글을 전개하면서 주장이 달라지지 않는가?
	공정성 • 자신에게만 유리한 주장을 자의적 ◆으로 펴고 있지 않은가? • 반대 입장을 가진 사람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가?
	독창성 • 근본적인 사고를 통해 관점을 전환하여 자신만의 생각으로 접근하고 있는가?
	심층성 •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 보지 않고 내부의 본질을 파악하여 내적인 관계와 실상을 드러내고 있는가?
	다각성 •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하여 구체적이고 의미 있는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는가?

- ◆ **분명함** 둘 이상의 것, 둘 이상의 개념들이 서로 간에 뚜렷하게 구분되는 것을 의미함.
- ◆ **애매함** 이것 아니면 저것인데 그중 어느 것인지 결정할 수 없는 다의성, 즉 정보가 복수로 전달되는 것을 의미함.
- ◆ **명료함** 한 개념이 어두운 구석 없이 깨끗하게 다 드러나 보이는 것, 이해되지 않는 구석이 없는 것을 의미함.
- ◆ **모호함** 의미가 부정확하여 적용되는 범위가 분명하지 않은 것, 즉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을 의미함.
- ◆ **합리적 수용 가능성** 정확성을 평가할 때 참과 거짓을 가리기 힘든 경우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없는지 따져 보는 것.
- ◆ **모순** 어떤 사실의 앞뒤, 또는 두 사실이 이치상 어긋나서 서로 맞지 않음을 이르는 말.
- ◆ **자의적** 일정한 질서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하는 것.

‘필수 평가 요소’는 텍스트가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조건을 평가하는 것으로 글쓴이의 의사가 분명하고 명료하게 전달되는지 평가하는 조건과 주장의 내용이 정확한지 평가하는 조건, 텍스트의 핵심 요소들 사이 관계가 적절한지를 평가하는

조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반 평가 요소’ 중 ‘중요성, 충분성, 일관성, 공정성’은 글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결격 사유 없는 논술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지켜야 할 조건들입니다. 한편, ‘독창성, 심층성, 다각성’은 항상 지켜야 할 필수 불가결한 조건들은 아니지만 충족되었을 경우 좋은 글 또는 창의적인 글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조건들입니다.



1 다음 토론 내용을 읽고, 활동을 해 보자.

사회자 오늘 토론 주제는 ‘동물 복지를 위해 동물원을 폐지해야 한다.’입니다.
찬성 측의 의견을 먼저 듣겠습니다.

찬성 측 저는 ‘동물 복지를 위해 동물원을 폐지해야 한다.’는 논제에 찬성합니다. 야생 본능을 가진 동물을 좁은 공간에 가두는 것은 동물 학대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반대 측 저는 ‘동물 복지를 위해 동물원을 폐지해야 한다.’는 논제에 반대합니다. 동물 복지 운운하며 동물원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동물원을 없애는 것은 무조건 안 됩니다.

학습
활동



(1)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주장과 근거를 정리해 보자.

찬성 측	주장	
	근거	
반대 측	주장	
	근거	

(2) 찬성 측과 반대 측의 근거에 대하여 평가해 보자.

- 찬성 측의 근거는 (적절하다 / 부적절하다). 왜냐하면 근거가 (타당한 비판 / 부당한 비난)이기 때문이다.
- 반대 측의 근거는 (적절하다 / 부적절하다). 왜냐하면 근거가 (타당한 비판 / 부당한 비난)이기 때문이다.



필수 평가 요소에는 '분명함, 명료함, 정확성, 적절성'이 있다. 이에 따라 텍스트를 평가할 때는 개념이 분명하고 명료하게 전달되는지, 주장의 내용이 정확한지, 논증이 적절한지 등을 따져 봐야 한다.

◆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논쟁에서 가설을 설정하는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고, 성급하게 제한된 증거를 가지고 바로 어떤 결론을 도출하는 오류를 말한다.

2 다음 글을 필수 평가 요소에 따라 평가해 보자.



모든 분단 국가에서 통일은 손해이다. 왜냐하면 독일 통일이 실패했기 때문이다. 통일 이후 독일은 유럽 내에서 지위와 역할이 더욱 약화되었다. 또한 동독 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통일 이후 빈부 격차가 더욱 심해졌다는 답변이 50%에 이르렀다.

(1) 이 글의 주장과 근거를 정리해 보자.

주장	
근거	

(2) <보기>에서 적절한 단어를 골라 이 글에 대한 평가를 완성해 보자.

보기

분명함

명료함

정확성

적절성

이 글은 주장과 근거 사이에 ()이 떨어진다. '모든 분단 국가에서 통일은 손해이다.'라는 주장이 독일 한 나라의 사례에서 도출되었다는 점에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또한 내용의 참과 거짓을 따질 때 ()도 떨어진다. '통일 이후 독일은 유럽 내에서 지위와 역할이 더욱 약화되었다.'라는 내용은 통일 이후 독일이 유럽 연합(EU) 설립을 주도하였으며, 유럽 내 국가 경쟁력 1위 국가로 부상했다는 사실과 다르다. 설문 조사 결과 또한 동독 지역에 사는 저소득층 시민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독일 시민 전체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의미한 통계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다음 대담 내용을 일반 평가 요소에 따라 평가해 보자.

기자 전염병을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통제하는 정책이 바람직한지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 보겠습니다.

시민 1 전염병 예방이라는 명분으로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통제하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자유는 다른 무엇보다 우선해야 합니다. 전염병을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시민 개개인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하거나 개인의 신상 정보를 관리하여 예방 접종을 강요하는 행위는 자유 민주주의 원칙에서 벗어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시민 2 전염병을 예방하고 모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어느 정도 통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개인의 자유를 우선하다가 공동체 전체가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개인의 이동 제한이나 개인의 신상 정보 관리를 통해 전염병을 예방함으로써 다수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킬 수 있다면 그로 인한 공익이 개인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얻는 것보다 크다고 생각합니다.



(1) 이 대담의 쟁점과 '시민 1, 2'가 주장하는 바를 정리해 보자.

쟁점:

'시민 1'의 주장

.....

.....

.....

.....

'시민 2'의 주장

.....

.....

.....

.....

(2) '시민 1'과 '시민 2'의 발언에서 주장에 대한 근거를 찾아 정리해 보자.

시민 1	• 근거 1: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자유는 다른 무엇보다 우선해야 하는 것이다. • 근거 2:
시민 2	• 근거 1: • 근거 2: 전염병을 예방함으로써 다수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킬 수 있다면 그로 인한 공익이 개인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얻는 것보다 크다.

(3) 다음은 두 시민의 발언에 대한 댓글이다. <보기>에서 적절한 단어를 골라 댓글을 완성해 보자.

보기

중요성

충분성

일관성

공정성

‘시민 1’의 근거는 주장을 적절하게 정당화하고 있으니 적절성을 갖추고 있다. 또한 중요한 쟁점을 다루고 있으므로 ()을 갖추고 있다. ‘시민 2’의 발언에서 정보는 명료하게 전달되니 명료함을 갖추고 있다. 또한 논의 과정에 모순된 내용이 있지 않으므로 ()을 갖추고 있다.





1 다음 설명이 맞으면 ○, 틀리면 ×를 해 보자.

- ① 텍스트를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무엇이 잘못인지 약점을 잡아내어 반박하는 것이다. ()
- ② 논증적 텍스트 평가는 텍스트를 분석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

2 ()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 써 보자.

보기 애매한 모호한 정확성 적절성 충분성

- (1) ‘그는 나처럼 동생이 있지 않다.’라는 진술은 ‘나도 동생이 없지만, 그도 동생이 없다.’라는 뜻일 수도 있고, ‘나는 동생이 있지만, 그는 동생이 없다.’라는 뜻일 수도 있어서 () 표현이다.
- (2) ()은 논증적 텍스트를 평가할 때 참과 거짓을 가리기 힘든 경우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없는지 따져 보는 평가 요소이다.
- (3) 일반 평가 요소 중 논의에 필요한 내용을 남김없이 고려하여 근거로 제시하는 기준은 ()이다.

3 평가 요소와 그 의미를 올바르게 연결해 보자.

일관성 •

• 자신에게만 유리한 주장을
자의적으로 펴고 있지 않은가?

심층성 •

•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 보지 않고
내부의 본질을 파악하여 실상을 드러내고 있는가?

공정성 •

• 논의 과정에 모순된 내용이 있지 않은가?

2. 텍스트 평가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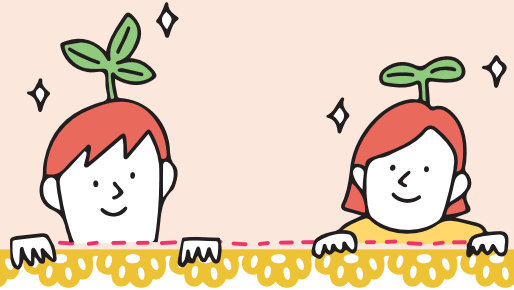
생각
열기

다음은 영화에 나오는 음식을 소개하는 방송 채널이다. 이를 보고 이야기해 보자.



학습 목표

필수 평가 요소와 일반 평가 요소를 적용하여
논증적 텍스트를 평가할 수 있다.



진행자의 말 중 애매한 표현은
무엇인가요?

A dashed blue speech bubble with a tail pointing towards the bottom right, intended for the user to write their answer to the first question.

진행자에게 '유명'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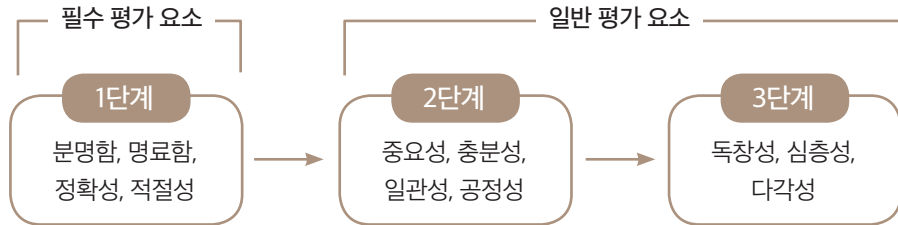
A dashed blue speech bubble with a tail pointing towards the bottom right, intended for the user to write their answer to the second question.

진행자의 말을
어떻게 고쳐야 할까요?

A dashed blue speech bubble with a tail pointing towards the bottom right, intended for the user to write their answer to the third question.

텍스트 평가 단계

텍스트에 대한 비판적 평가는 평가 과정에 따라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단계에 적용하는 '분명함, 명료함, 정확성, 적절성'은 텍스트가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조건이고, 2단계에 적용하는 '중요성, 충분성, 일관성, 공정성'은 논증적 텍스트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조건이다.

텍스트를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1단계는 의사 전달이 제대로 되는지 평가하는 것으로, 필수 평가 요소에 해당하는 '분명함, 명료함, 정확성, 적절성'을 다룹니다. 2단계는 일반 평가 요소 중 '중요성, 충분성, 일관성, 공정성'을 기준으로 하는데, 논증적 텍스트라면 기본적으로 충족해야 하는 기준들이기 때문에 이를 모두 만족해야 제대로 된 글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3단계는 논증적 텍스트가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기준에 다다랐을 때 좋은 글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 평가 요소인 '독창성, 심층성, 다각성'을 기준으로 합니다. 3단계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일반적으로 창의적인 글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1단계를 적용하여 다음 예문을 평가해 봅시다.

감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규칙적이면서도 적절한 강도의 운동과 함께 적당한 양의 음식을 먹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이 글은 '적절한 강도'와 '적당한 양'이 어느 정도의 강도와 양을 의미하는지 명료하지 않아 모호한 표현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2단계를 적용하여 다음 예문을 평가해 봅시다.

우리 학교 학생들은 급식 만족도가 매우 높다. 우리 동아리 1학년 학생들과 우리 반 친구들에게 물으니 만족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이 글은 ‘우리 학교 학생들은 급식 만족도가 매우 높다.’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론을 이끌어 내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어 충분성이 부족합니다. 또한 자신의 주장을 자의적으로 펼치면서 반대 입장을 가진 사람도 받아들일 만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아 공정성 측면에서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3단계를 적용하여 다음 예문을 평가해 봅시다.

운동을 하다가 근육을 다쳤을 때 무조건 냉찜질이 좋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우선 뼈를 다쳤는지 병원에서 정확한 검사와 진단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부상 발생 시기와 부상 부위 및 상태에 따라 냉찜질과 온찜질을 선택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부상 발생 직후 2일 이내에는 혈관을 수축하여 손상 부위의 혈류를 줄이는 냉찜질이 효과적이고, 부상 발생 2~3일 이후 출혈이 멈추고 부기가 가라앉았을 때에는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뭉친 근육을 풀어 주는 온찜질이 효과적이다.



이 글은 근육 부상에 냉찜질이 좋다고 여기는 사람들의 통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뼈를 다친 것은 아닌지 병원에서 정확히 진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 부상 시기와 부상 부위 및 상태에 따라 냉찜질과 온찜질을 선택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점을 제시하며 깊이 있고 다각적인 논의를 전개한다는 점에서 심층성과 다각성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습 활동



1 다음은 연수에게 조별 활동을 함께하자고 제안한 네 명의 문자 메시지가다. 이를 읽고 활동을 해 보자.



민서

㉠ 연수야, 너의 단짝 민서야. 다음 주에 있을 논술 주제 탐구 조별 활동을 너랑 함께 하고 싶어. 네가 이해력은 좋은데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걸 어려워하잖아. 난 발표하는 걸 좋아하니까 우리 둘이 한 조를 이루면 잘 맞을 거야. 뛰어난 능력을 지닌 너의 친구인 나와 함께하지 않을까? ^^

마지막 문장에 “뛰어난 능력을 지닌 너의 친구”라고 했는데 뛰어난 능력을 지닌 게 나라는 의미인지 민서 자신이라는 의미인지 헷갈려서 답을 주기가 난감하네.



지호

㉡ 안녕, 나는 너랑 같은 반인 지호야. 너랑 같은 반에서 수업을 받으며 다양한 조별 활동과 팀으로 참여하는 교내 활동을 함께해서 좋았어. 다음 주에 있을 논술 주제 탐구 조별 활동에서도 더 많은 것들을 함께하면 좋을 것 같아. 나랑 같은 조 할 거지?

마지막에 적힌 ‘더 많은’의 범위가 어디까지인 걸까? 논술 주제 탐구 조별 활동 내에서 많은 정보를 공유하는 의미일까? 논술 주제 탐구 조별 활동 외에 친목을 나누는 시간을 갖자는 의미일까? ‘더 많은’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겠으니 난감하네.



채민

㉢ 안녕, 나는 채민이라고 해. 너는 옆 반에 있는 날 모를 수 있겠지만, 우리는 논술 수업을 같이 듣고 있어. 지난 시간에 제시문의 주장과 근거를 분석할 때 네가 주장 요약은 잘 하지만 근거 파악을 어려워하는 걸 봤어. 나는 근거 파악은 잘하지만 주장 요약을 잘 못하거든. 조별 활동을 함께하면 서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때?

논술 과목을 함께 수강하는 채민이가 누구인지 잘 모르겠어. 무엇보다 나는 지난 수업에서 주장 요약은 어려웠고, 근거 파악은 꽤 잘했었어. 아무래도 내가 받을 문자가 아닌 것 같은데, 이것 참 난감하네.



효정

㉣ 안녕, 나는 효정이야. 네가 늘 민서와 함께 있어서 나는 네가 민서랑만 조별 활동을 하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 너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 두 사람이 그냥 친한 친구일 뿐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 이런 점에서 네가 나와 조별 활동을 하는 게 탁월한 선택이라고 생각해.

효정이가 누구지? 내가 민서랑 그냥 친한 친구일 뿐이라는 점과, 내가 효정이 자기와 조별 활동하는 게 탁월한 선택이라는 주장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어. 이것 참 난감하네.

무슨
말이지?



(1) 연수가 각 문자 메시지에서 난감함을 느낀 이유를 <보기>의 필수 평가 요소를 적용하여 이야기해 보자.

보기

분명함

명료함

정확성

적절성

문자 메시지	난감함을 느낀 이유
㉠	
㉡	
㉢	
㉣	



필수 평가 요소인 '분명함, 명료함, 정확성, 적절성'은 텍스트를 통해 의사 전달이 제대로 되는지를 평가하는 조건이다.

(2) (1)을 바탕으로 하여 연수의 입장에서 네 사람 중 한 명에게 답장을 써 보자.

(민서 / 지호 / 채민 / 효정)에게

* 제안에 대한 거절의 의사를 표현하거나, 제안을 승낙할지 판단하려면 어떠한 내용이 더 필요한지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답해 보자.





2 도난 사건이 일어난 산장에서 수사관은 다음 진술을 듣고 네 사람을 용의자로 지목하였다. 진술 내용을 중심으로 활동을 해 보자.



김○○

저는 범인이 아닙니다. 값비싼 시계가 없어지기 전까지 산장 주인의 사무실 서랍에 들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처럼 산장을 이용하는 투숙객이 일반적으로 산장 주인의 사무실 서랍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사무실 천장에 있는 폐회로 텔레비전(CCTV)이 모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설령 절도를 마음먹은 투숙객이라 할지라도 폐회로 텔레비전이 설치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공간에서 절도를 감행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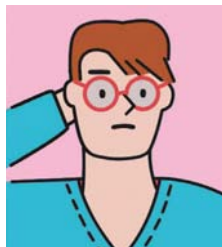
이○○

저는 범인이 아닙니다. 저는 오후 1시에 산장을 나가 점심 먹은 걸 소화시킬 겸 산책을 했습니다. 산장 밖 산책로에서 산책하다가 3시쯤 산장으로 돌아온 것을 산장 입구와 산책로 전 구간에 설치된 폐회로 텔레비전 영상으로 이미 확인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산장 주인과 함께 마당에서 철판 요리를 해 먹었습니다. 그 시간에 제가 마당에서 자리를 뜨지 않은 건 산장 주인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시간에도 제가 시계를 훔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박○○

저는 범인이 아닙니다. 절도라는 게 일반적으로 감수해야 할 위험 부담보다 성공했을 때의 이득이 훨씬 더 크다고 판단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도난당한 시계의 값어치가 대단하게 느껴지지 않을 만큼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절도범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었을 때 잃을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산장에 묵고 있는 투숙객들은 모두 저보다 재력이 막강합니다. 사람은 가진 것이 많을수록 더 탐욕스러워지기 십상이니, 저보다는 다른 사람을 범인으로 의심해야 하는 게 이치에 맞습니다.



최○○

저는 범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의심 가는 사람은 있어요. 오후에 모든 투숙객을 마당에 불러 내어 산장 주인이 거기서 철판 요리를 할 때였어요. 그때 다른 투숙객들은 요리하는 산장 주인의 손놀림에 감탄했는데, 투숙객 □□는 시계를 찬 산장 주인의 손목을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투숙객 □□는 오전에 제가 친해질 생각으로 다가가 인사를 건넸을 때 반말로 쌀쌀맞게 대꾸해서 일행들 앞에서 저를 무안하게 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가 뭔가 거슬리고 수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 각 진술에서 사실에 관한 서술은 모두 참이며, 도난은 오후 2시부터 6시 사이에 일어났다고 가정함.

(1) 수사관이 네 사람의 진술에 적용한 평가 요소를 골라 보자.

수사관이 적용한 2단계 일반 평가 요소: 중요성, 충분성, 일관성, 공정성

용의자	평가 요소	평가 내용
김OO		주장의 근거가 일반적인 투숙객이라면 산장 주인의 사무실 서랍 속 사정을 알 수 없다가나 폐회로 텔레비전이 설치된 공간에서 절도를 감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일반적이고 사소한 논의에 그쳤어. 자신이 범인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 하는데 그런 중요한 논의를 하지 않는군.
이OO		주장의 근거가 3시쯤 산책을 하고 돌아왔고,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산장 주인과 철판 요리를 해 먹었다는 것이야. 하지만 도난 추정 시간(2시~6시) 가운데 그가 산장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3시~4시 행적에 대한 해명이 있지 않으니 필요한 근거가 모두 제시되었다고 볼 수 없겠군.
박OO		주장의 근거가 자신이 도난당한 시계의 값어치를 대단하게 여기지 않을 만큼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이어지는 내용에서 다른 투숙객이 자신보다 재력이 막강하고 많이 가진 사람이 더 탐욕스러워지기 십상이니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이 범인이라고 했어. 앞뒤 논의가 양립할 수 없는, 모순된 내용이군.
최OO		주장의 근거로 다른 투숙객과 달리 투숙객 □□가 주인의 손목을 보고 있었던 것 같다고 했어. 그러면서 그가 자신에게 쌀쌀맞게 대한 점 등을 들어 수상하다고 한 것은 주장을 납득할 만한 근거가 없고 자의적이라 문제가 있군.



도움말

필수 평가 요소 면에서는 문제가 없는 글일지라도 일반 평가 요소 중 중요성·충분성·일관성·공정성을 충족하지 못한 글은 제대로 된 논증적 텍스트라고 할 수 없다.

(2) 네 사람 중 범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지목하고, 2단계 일반 평가 요소를 고려하여 그 이유를 말해 보자.

- 범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
- 그 이유:



3 다음은 '1인 가구'를 주제로 한 교내 모의 창업 대회에서 결선에 오른 세 팀의 투자 유치 발표이다.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활동해 보자.

*각 팀의 창업 내용은 모두 현재는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것이라고 가정함.

가 청소의 재구성

저희가 기획한 품목은 대도시에서 혼자 살면서 대청소할 정신적·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는 1인 가구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청소 대행 서비스 '청소의 재구성'입니다.

청소 대행 서비스에 대한 통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규모가 큰 집이 이용하는 서비스다. 둘째, 값비싼 서비스다. 셋째, 고객이 청소 과정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서비스다.

저희는 이러한 통념을 완전히 뒤집어 보았습니다. 대규모 장비나 인력을 동원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며 주로 혼자 있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 말입니다.

'청소의 재구성'은 대도시에서 생활하는 1인 가구를 고객으로 합니다. 이들은 기존 청소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기에 비용 면에서 부담이 있고 시간 제약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저희는 서비스 신청 고객에게 360도 회전 카메라를 한 대 보냅니다. 고객은 전용 앱과 360도 회전 카메라로 집의 각 공간을 촬영한 후 요청 사항을 입력합니다. '여기는 손대지 마라.', '이 부분을 특히 깨끗이 해 달라.' 이런 식으로 고객이 요청 사항을 제출하면, 우리는 예상 비용과 날짜를 안내하고 일정을 확정 후 각종 청소 장비를 장착한 요원 한 명을 고객의 집으로 파견합니다. 요원은 고객이 집을 비운 사이 헬멧에 달린 카메라와 이미 설치된 360도 회전 카메라로 청소 전 과정을 촬영합니다. 그리고 청소가 끝나는 즉시 영상을 고객에게 보냅니다.

이 서비스는 점포가 필요 없고, 고가의 청소 장비 또한 필요치 않으며, 밀집도가 높은 대도시 1인 가구가 대상이라 청소 요원 한 명이 담당할 수 있는 고객 수가 많다는 점에서 창업 비용 부담이 적고 경제적입니다. 또한 미래 사회의 가구 변화에도 부합하고, 사람들의 여가 시간을 늘려 주고 거주 환경을 쾌적하게 하는 등의 공공선도 실현할 수 있으며, 경제적 이윤 창출 효과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투자를 바랍니다.



나 요리에서 퇴비까지

저희가 투자자 여러분께 선보일 창업 품목은 ‘요리에서 퇴비까지’입니다. ◇◇ 장터, 신선△△ 등 신선식품 배송을 전문으로 하는 온라인 업체들이 큰 성장세를 보이다가 최근 주춤한 상황에 주목하여 기획하였습니다. 이름에서 짐작하셨겠지만 건강한 먹거리 배송에서 요리 후 처리 과정까지를 상품화한 창업 품목입니다.

저희는 식당에서 외식을 자주 하는 소비자는 여전히 신선식품 온라인 배송에 냉담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들을 겨냥해 ‘밀 키트’가 등장했지만, 이 역시 충분치 않았죠. 그 이유를 살펴보니 요리를 하면 설거지, 음식물 쓰레기 처리 등 뒤따르는 일거리들이 많은데, 퇴근 후 온전한 휴식을 바라는 사람에게 이런 일은 부담스럽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1인 가구’는 무엇이든 본인이 직접 해야 하기 때문에, ‘집밥’만이 줄 수 있는 행복감과 건강에 대한 갈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식이나 배달 음식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저희 서비스를 처음 이용하는 고객에게는 벽면에 부착하는 스마트폰 거치대를 기념품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제품 배송 시 음식물 쓰레기를 담아서 내놓을 용기, 세제가 필요 없는 일회용 종이 수세미를 함께 드립니다. 저희 제품은 기성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먹고 싶은 요리를 선택한 후 양과 맛에 대한 취향을 선택하면 그에 맞춰 필요한 식재료를 보내 드립니다. 이와 함께 여기에 맞춘 조리법 안내서도 제공됩니다.

고객은 요리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하여 사용자 제작 동영상 플랫폼에 올립니다. 사용한 그릇은 일회용 종이 수세미로 씻고, 남은 음식물 쓰레기는 제공된 밀폐 용기에 담아서 현관에 내놓으면 저희가 무상으로 수거합니다. 수거한 쓰레기의 양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제품을 재구매하거나 텃밭용 퇴비를 구매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 적립금’으로 돌려드립니다. 물론 이 퇴비는 수거한 음식물 쓰레기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해서 만든 것입니다.

수익성을 고려해 1인 가구가 밀집한 지역에 직배송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서두에 밝힌 대로 기존 시장에서 간과한 잠재적 수요를 파고들어 충성도 높은 고객을 유치하는 것이 저희의 전략입니다. 많은 투자를 바랍니다.

◆ 밀 키트 소비자가 쉽게 요리를 할 수 있도록, 요리에 알맞게 손질된 식재료와 배합된 양념 따위를 모아 놓은 세트. 비슷한말로 ‘바로 요리세트’가 있다.



- ◆ **임대인** 빌린 물건에 대하여 일정한 대가를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에서 물건을 빌려준 사람.
- ◆ **임차인** 임대차 계약에서 돈을 내고 물건을 빌려 쓰는 사람.

- ◆ **규제 샌드박스** 기업이 새로운 제품이나 기술, 서비스 등을 출시할 때 정부가 일정한 기간 동안 기존의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

다 좌우지간

저희가 소개할 창업 품목은 실내 건축 분야로, 이름은 ‘좌우지간’입니다. 저희는 급증하는 대도시 1인 가구를 위한 오피스텔이 늘고 있는 상황에 주목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이득을 볼 수 있는 공유 주거용 실내 건축 디자인 품목을 소개하겠습니다.

설명 내용을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들어 보세요. 먼저 사각형을 그려 봅시다. 윗변은 창문이 있는 벽입니다. 아랫변 가운데에는 현관문이 있고 양옆으로 화장실과 부엌에 해당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좌변과 우변! 이 양변에는 붙박이장, 접이식 침대, 책상 등 각종 가구가 한 세트씩 있고, 사생활 보호를 위한 잠금장치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려지셨나요? 이런 형태의 집을, 독립된 두 사람이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좌우지간’입니다.

이렇게 구성된 집 하나를 주거 시간이 겹치지 않는 두 사람이 사용합니다. 현재의 부분 임대 가능 주택이 ‘공간’을 나눠 쓴다면, 저희 ‘좌우지간’은 ‘시간’을 나눠 쓰는 데 방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대도시 1인 가구 상당수가 365일 내내 거주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주말이면 가족들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과 거꾸로 주말에만 머무는 사람이 한 공간을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학기가 끝나면 타 지역으로 가는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주 4일제 회사와 주 3일제 회사에 다니는 두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좌우지간’을 이용하면, 임대인이 하나의 집을 두 명에게 임대하여 임대 수익을 극대화할 수도 있고, 한 명에게 임대하면서 해당 임차인에게 실거주하지 않는 기간은 재임대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여 집의 상품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체 임대 기간 중 자신이 실거주하는 기간만큼의 비율로 저렴하게 실거주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자신에게 맞는 공간을 거래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도 제공합니다.

저희 품목을 규제 샌드박스 관련 정부 부처에 문의한 결과, 거주자 별로 독립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시민들의 주거 문제 해결에 고심하는 지자체, 기숙사의 수익성을 높이려는 대학교, 대도시에서 공유 사무실을 운영하는 임대 업체 등에 이르기까지 두루 유효한 품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많은 투자를 바랍니다.





(1) 세 팀이 결선에 오를 수 있었던 이유를 다음 평가 요소를 고려하여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자.

구분	3단계 일반 평가 요소	긍정적으로 평가받은 이유
가	독창성	
나	심층성	
다	다각성	



3단계 일반 평가 요소인 '독창성, 심층성, 다각성'은 필수적 강제 조건들은 아니지만 만족했을 경우 좋은 글이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며, 이 기준에 맞는 글은 일반적으로 창의적인 글이다.

- (2) 다음은 모의 창업 대회에서 각 팀에 투자한 학생들이 투자 이유를 밝힌 댓글이다. **가~다**의 발표와 댓글을 바탕으로 하여 자신이 투자할 팀을 고르고, 그 이유를 써 보자.

모의 창업 대회, 당신의 선택은?

가 청소의 재구성
나 요리에서 퇴비까지
다 좌우지간

└─▶

가 팀 투자자

집 주인이 없어도 청소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을 제공한다
니 1인 가구 고객 입장에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서비스라 많은 수요가 있을 것 같아.

└─▶

나 팀 투자자

신선식품 배송 서비스를 넘어 요리에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까지 돕는 서비스라 매우 매력적이고 투자 가치가 높은 창업 품목이라고 생각해.

└─▶

다 팀 투자자

임대인뿐 아니라 임차인 입장에서든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공유 주거 디자인이라는 점에서 시장 가치가 충분히 높은 품목이야.

- 투자할 팀:
- 그 이유:

}



1 다음 설명이 맞으면 ○, 틀리면 ×를 해 보자.

- ① 2단계 평가 요소는, 논증적 텍스트라면 기본적으로 충족해야 하는 기준들이기 때문에 이를 모두 만족해야 제대로 된 글로 평가받을 수 있다. ()
- ② ‘그는 나처럼 책을 좋아하지 않아.’라는 진술은 애매성이라는 문제가 있다. ()
- ③ 3단계 평가 요소는 논증적 텍스트에 대한 필수 평가 요소이다. ()

2 각 단계에 들어갈 알맞은 평가 요소를 <보기>에서 골라 써 보자.

보기

공정성

다각성

독창성

분명함

명료함

심층성

일관성

적절성

정확성

중요성

충분성

구분	평가 요소
1단계	
2단계	
3단계	

3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써 문장을 완성해 보자.

- (1) 필수 평가 요소는 의사 전달이 제대로 되는지 평가하는 것으로 ‘분명함, 명료함, □□□, □□□’ 이 이에 해당한다.
- (2) 반대 입장을 가진 사람도 받아들일 만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을 논의의 □□□이라고 한다.

3. 평가문 작성하기



인터넷 자막 뉴스에 달린 시청자 댓글을 읽고 이야기해 보자.



기후 위기가 생태계 전반의 변화는 물론 기후 난민까지 속출하게 하는 등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앞으로 지구의 평균 기온이 2도 이상 상승할 경우, 세계는 되돌릴 수 없는 재앙을 맞이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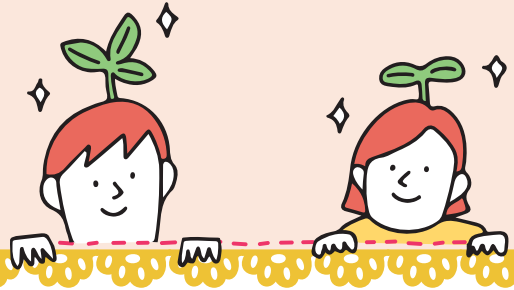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최근 세계 기상 기구(WMO)는 향후 5년 내에 지구 평균 기온이 1.5도 상승할 확률이 66%라는 예측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기후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행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 ○○○

기후 위기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언론에서 호들갑을 떨지만 나는 이러한 보도를 믿지 않아. 기후 위기의 징후가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데 올해 우리나라 겨울 기온은 작년과 비슷했어. 기후 위기와 지구 온난화에 대한 주장은 친환경을 구실로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과 같이 값비싼 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유인하려는 다국적 에너지 기업과 선진국들의 음모일 뿐이야.

학습 목표

평가 요소를 활용하여 평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나의 완결된 평가문을 작성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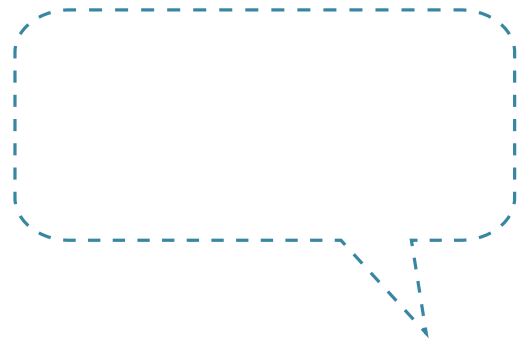


댓글을 단 시청자의 주장은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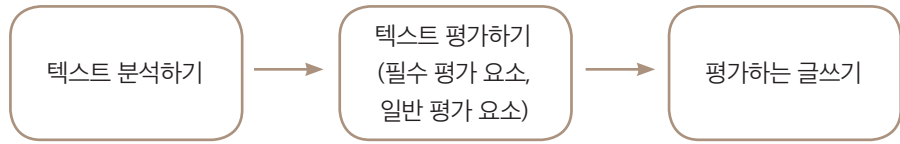
주장:

- 근거: 1. 지구 온난화라는데 올해 우리나라 겨울 기온은 작년과 비슷했다.
2. 기후 위기를 주장하는 것은 값비싼 재생 에너지 사용을 유도하려는 다국적 에너지 기업과 선진국의 음모이다.

시청자의 주장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해 봅시다.



평가하는 글쓰기의 과정



텍스트 평가는 텍스트 분석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논증적 텍스트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인 필수 평가 요소와 일반 평가 요소를 적용하여 텍스트를 평가한 후, 평가 내용을 묶어 하나의 평가하는 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비판적 사고의 관점에서 텍스트를 올바르게 평가하는 태도를 갖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를 유의해야 합니다. 먼저 텍스트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동시에 봐야 합니다. 그리고 주관적 관점에 부적절하게 치우치거나 논점에서 벗어난 평가가 되지 않도록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다음 글을 읽어 봅시다.

◆ **합계 출산율** 여성 한 명이 가임 기간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 출산이 가능한 연령대인 15세부터 49세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국가 중 합계 출산율◆이 한 명 미만인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인구 동향 조사’에 따르면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전년(0.81명) 대비 0.03명 감소했다. 저출산 문제는 젊은이들이 개인의 삶을 중시하면서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 최근 통계청과 농림 축산 식품부에서 발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8~2020년까지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 비율은 29.3%에서 31.3%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혼자 사는 젊은이들이 반려동물을 키우며 지내는 것으로 가족의 정서적 친밀감과 유대를 대체하는 경향성마저 보여 준다. 같은 기간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비율 역시 23.7%에서 27.7%로 증가하여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1인 가구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려면 관련 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1인 가구 반려동물 허가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 저출산 문제 토론회 참가자의 주장

이 글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쟁점:** 저출산 문제의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 **결론(주장):**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1인 가구 반려동물 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
- **근거:** 1. 저출산 문제는 젊은이들이 개인의 삶을 중시하고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기 때문이다.
2. 저출산 문제는 젊은이들이 혼자 살면서 반려동물 키우기로 가족의 유대를 대체하기 때문이다.

필수 평가 요소와 일반 평가 요소를 활용하여 이 글을 평가해 보았습니다.

필수 평가 요소로 평가	분명함, 명료함, 정확성, 적절성	• 분명함: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1인 가구 반려동물 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분명하게 전달됨. • 명료함: 의미가 모호하지 않게, 명료하게 전달됨. • 정확성: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1인 가구 반려동물 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의 합리적 수용 가능성이 떨어짐. • 적절성: ‘저출산 문제의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라는 쟁점과 ‘1인 가구 반려동물 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라는 주장의 관계, 이 주장과 ‘저출산 문제는 젊은이들이 혼자 살면서 반려동물 키우기로 가족의 유대를 대체하기 때문’이라는 근거의 관계가 적절하지 않음.
일반 평가 요소로 평가	중요성, 충분성, 일관성, 공정성	• 중요성: 저출산 문제 해결책으로 제시된 주장이 중요한 논의를 하지 않고 그 효과가 크지 않을 주변적 해결책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충분성: 1인 가구 중 반려동물 양육 비율과 2인 이상 다인 가구 중 반려동물 양육 비율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한 양적 제시로 단정함. • 일관성: 저출산 문제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모순된 내용이 없으며, 주장이 달라지지 않음. • 공정성: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받아들일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자의적인 주장으로 공정성을 해침.
	독창성, 심층성, 다각성	• 1인 가구와 반려동물 키우기를 연결한 주장의 독창성이 있다고 평가할 수도 있으나 심층성과 다각성은 갖추지 못함.

이렇게 평가한 내용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하는 글을 작성하면 됩니다. 이 때 앞에서 말한 것처럼 평가의 대상이 되는 텍스트의 긍정적인 측면도 함께 다루도록 합니다.

이 글의 긍정적인 측면을 먼저 평가한다면 글의 첫머리에서 대한민국이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하게 한 명 미만의 합계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통계청 자료로 제시하며 쟁점에 대한 관심을 환기한 점이다. 그리고 글쓴이가 저출산 문제와 1인 가구, 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 등을 연결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1인 가구 반려동물 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참신하다는 점에서 독창성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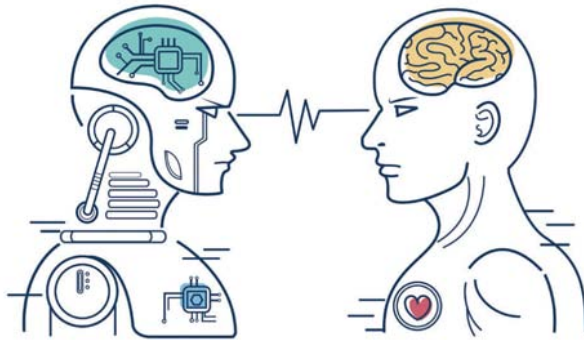
하지만 내용의 정확성과 적절성 측면에서는 비판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글쓴이는 저출산의 원인이 개인의 삶을 중시하는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러한 경향성은 1인 가구의 증가로 나타났다고 하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 증가와도 깊은 상관성이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1인 가구 증가가 고령화에 따른 독거노인 비율의 증가와도 상관성이 있음을 고려할 때 1인 가구의 증가를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청년층 1인 가구의 증가로만 한정하는 것은 주장의 합리적 수용 가능성이 부족하고 적절하지 않다.

적절성 측면에서, 저출산 문제의 책임을 젊은 층의 개인주의적 가치관에 두고 그 해결책으로 1인 가구의 반려동물 허가제 도입을 주장한 것은 쟁점과 주장의 관계가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글쓴이의 주장은 문제 해결에 대한 중요한 논의에 이르지 못하고, 그 효과가 크지 않을 주변적 해결책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도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근거로 제시한 통계의 양적 비교 역시 오류이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2인 이상 다인 가구 비율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 없이 단순한 양적 비교로 1인 가구 비율 증가와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 비율 증가를 연결하여 1인 가구가 반려동물을 많이 키울 것이라고 추론한 점은 근거로 적절하지 않다. 또한 이 글은 저출산이 취업 경쟁이 과도한 현실이나 양육비, 교육비 지출 부담 등 사회 경제적 문제와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여 문제의 원인을 살피는 심층적인 고려나 다각적인 접근이 부족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1 다음은 ‘인공 지능(AI)은 인간의 일자리를 위협한다.’는 논제를 다룬 입론이다. 이를 읽고 평가하는 글을 써 보자.

‘인공 지능은 인간의 일자리를 위협한다.’라는 논제에 대해 저는 동의합니다. 인공 지능은 인간의 지능과 유사한 컴퓨터 시스템으로, 인간의 지능을 기계 등에 인공적으로 구현하여 인간의 역할을 대신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공 지능의 발전은 인간을 노동으로부터 소외시키고 인간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최근 무인 단말기(키오스크[◆]) 등 비대면 결제 시스템의 등장으로 판매 계산원 등 서비스직 일자리가 크게 줄어든 것은 그러한 사례 중 하나입니다. 앞으로 기계화, 자동화가 가속화하고 인간의 일자리가 인공 지능과 로봇에 의해 대체되면 대규모 실업이 발생해 경제 대공황과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단순 노무직 일자리 대체는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년 3월 산업 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인공 지능으로 대체될 일자리는 약 327만 개(2022년 기준)로, 산업별로는 건설업(51만 개),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46만 개), 정보 통신업(41만 개)순으로 위험 일자리 수가 많았습니다. 직종별로는 인공 지능으로 대체 가능한 일자리의 59.9%인 193만 개가 공학, 정보 통신, 금융 분야의 전문직에 집중되었습니다.



(1) 이 글을 분석해 보자.

쟁점	
결론(주장)	
근거	1. 2.

학습
활동



◆ 키오스크(kiosk) 역·관청·병원·박물관 따위의 공공 장소에 설치하는 무인 정보 단말기. 보통 정 다수가 터치스크린 등을 통해 필요한 정보에 접근하거나, 여러 가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도움말
입론이란, 찬성 측과 반대 측이 각각 논제와 관련해서 자신의 주장을 세우는 것을 의미한다.

(2) (1)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다음 평가 내용을 완성해 보자.

필수 평가 요소로 평가	분명함, 명료함, 정확성, 적절성	• 분명함: 인공 지능의 개념을 정의하며, 다루고자 하는 논점을 분명히 함. • 적절성: 인용한 ()을/를 보면 인공 지능으로 대체 가능한 일자리의 59.9%인 193만 개가 공학, 정보 통신, 금융 분야의 전문직에 집중된다고 하므로, 단순 노무직 대체율이 심각하다는 결론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적절하지 않음.
일반 평가 요소로 평가	중요성, 충분성, 일관성, 공정성	• (): 인공 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위협한다는 일관된 논의를 전개하고 있음. • 공정성: 위험한 노동이나 불필요한 노동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을 수 있으므로 노동으로부터 소외시킨다는 내용이 ()임.
	독창성, 심층성, 다각성	• (): 인공 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현상이 자본주의 시장의 규모가 거대해지고 세계화하고 있는 현실과 관련 있음을 밝혀내지는 못하고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 진단한 것에 그침. • 다각성: 인공 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음을 다양한 차원과 수준에서 접근하여 논의를 전개하지는 못함.

(3) (2)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한 편의 평가하는 글을 작성해 보자.





1 다음 설명이 맞으면 ○, 틀리면 ×를 해 보자.

- ① 논증적 텍스트를 평가할 때는 필수 평가 요소만 적용하여 평가한다. ()
- ② 논증적 텍스트를 올바르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관점에 치우치거나 부정적인 측면만 평가하지 않도록 스스로 점검해야 한다. ()

2 ()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 써 보자.

보기 본질 현상 텍스트 분석 텍스트 평가

- (1) 심층적인 접근이란 겉으로 드러난 ()만 보지 않고 내부의 ()을/를 파악하여 내적인 관계와 실상을 드러내는 것을 말한다.
- (2) 평가하는 글을 쓸 때는 먼저 ()을/를 한 다음에 ()을/를 하고 그 내용을 모아 하나의 글로 완성하는 과정을 거친다.

3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써 문장을 완성해 보자.

- (1) 텍스트 평가는 텍스트 □□에서 출발한다.
- (2) 텍스트를 올바르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텍스트의 □□□ 측면과 □□□ 측면을 동시에 봐야 한다.

대단원 마무리

종합하기

이 단원에서 공부한 내용을 정리해 보자.



1. 텍스트 평가의 필요성과 평가 요소

- 텍스트 평가의 의미: 평가는 비판적 사고의 핵심
- 민주 시민으로서 합리적 의사소통을 하려면 비판적인 평가를 통해 텍스트의 문제점을 살피고, 나아가 더 좋은 대안은 없는지 모색하는 태도가 필요함.
- 텍스트 평가 요소
 - 필수 평가 요소: 분명함, 명료함, 정확성, 적절성
 - 일반 평가 요소: 중요성, 충분성, 일관성, 공정성, 독창성, 심층성, 다각성

2. 텍스트 평가하기

- 필수 평가 요소와 일반 평가 요소를 적용하여 평가하되, 평가 대상이 되는 텍스트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동시에 살피도록 함.
- 주관적 관점에 치우치거나 부정적인 측면만 평가하지 않도록 주의함.

3. 평가문 작성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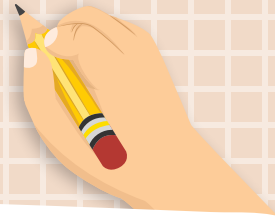
- 작성 단계: 텍스트 분석·요약 → 텍스트 평가 → 평가문 작성 → 검토
- 구성: 처음 - 텍스트 분석·요약 내용(대상 텍스트의 쟁점, 결론, 근거 중심)
중간 - 텍스트 평가 내용
끝 - 전체적인 평가 마무리

평가하기

이 단원에서 공부한 내용을 생각하면서 스스로 평가해 보자.

소단원	학습 목표	평가		
		상	중	하
1. 텍스트 평가의 필요성과 평가 요소	텍스트 평가의 의미와 필요성을 이해하고 필수 평가 요소와 일반 평가 요소의 차이를 알 수 있다.			
2. 텍스트 평가하기	필수 평가 요소와 일반 평가 요소를 적용하여 논증적 텍스트를 평가할 수 있다.			
3. 평가문 작성하기	평가 요소를 활용하여 평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나의 완결된 평가문을 작성할 수 있다.			

자기 성찰 일지



- 이전에 자신이 쓴 글 중에서 주장이 담긴 글을 하나 골라 비판적으로 평가해 보자.

(1)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 요소와 그 이유

(2)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 요소와 그 이유

(3) 느낀 점



비판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다른 나라의 논술 시험

4차 산업 혁명 시대에는 학생들의 사고력과 창의력이 중요해지는 만큼 논술 시험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36개국 중 우리의 수능처럼 객관식(선다형) 시험을 채택하고 있는 곳은 스웨덴·멕시코·터키·칠레 정도이고 나머지 국가는 논·서술형 대입 시험이 대세를 이루는 추세입니다.

글쓰기를 강조하는 입시는 선진국 교육의 큰 흐름으로, 읽기(독해)와 쓰기(표현)를 모든 지적 활동의 출발점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의 대입 시험인 바칼로레아와 독일의 고교 졸업 자격 시험인 아비투어, 영국의 고교 졸업 자격 시험 그리고 글쓰기(에세이)가 포함된 미국의 대학 입학 자격 시험을 보더라도 선진국에서는 글쓰기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중 논술 시험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해외 사례는 프랑스의 ‘바칼로레아’입니다. 바칼로레아는 1808년에 시작되어 200년이 훌쩍 넘는 전통을 자랑하는 논술형 시험입니다. 제시되는 텍스트를 읽고 두 가지 논술 문제 중 하나를 골라 4시간 동안 한 편의 글을 써야 합니다.



바칼로레아 문제

인문학 질문 1: 스스로 의식하지 못하는 행복이 가능한가?

질문 2: 우리가 하고 있는 말에는 우리 자신이 의식하고 있는 것만이 담기는가?

질문 3: 철학자는 과학자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

과학 질문 1: 생물학적 지식은 일체의 유기체를 기계로만 여기기를 요구하는가?

질문 2: 우리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만을 진리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질문 3: 오류는 진리를 발견하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 지원자는 자신이 평소 쌓은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써야 합니다. 바칼로레아는 ‘생각하는 힘’에 중점을 두고 논리적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지식과 비판적 사고력, 의사소통 능력을 드러내야 하므로 그 과정에서 기존의 지식(견해)에 해당하는 텍스트를 평가하는 역량은 매우 중요합니다.

독일 역시 대입 시험 문제를 논술형으로 출제합니다. 독일에서 대학 입학에 결정짓는 ‘아비투어’ 시험에는 어떤 문제가 나올까요? 독일은 아비투어를 주별로 독립적으로 출제하는데, 객관식 문항은 하나도 없으며 모든 문제가 논술형입니다. 한 과목을 치르는 시험 시간이 무려 315분이며, 분량에 제한이 없는 문항도 있습니다.



독일 바이에른주 아비투어 기출 문제

- 힐데 도민의 시 「낮선 자」를 독해하여 해설하십시오. 특히, 시적 자아인 ‘나’가 이 시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 논술하십시오. 당신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실존적 자아 상실’이라는 주제가 다른 문학작품에서는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밝히시오. (제시문 있음.)
- 다음 두 가지 문항 중 하나를 선택하여 논술하십시오. (제시문 있음.)
 - 선택 1: 디지털화된 미디어 세상에서 ‘읽기’가 의미를 잃어 가는지 논술하십시오. 다음 제시문에 근거하여 작성하되 개인적 경험과 배경지식을 최대한 활용하십시오.
 - 선택 2: ‘글쓰기 문화의 종말’이 계속 화제가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신문에서는 ‘디지털화된 미디어 세상에서 읽기 활동이 의미를 잃는다.’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 제기에 관한 당신의 생각을 800자로 논술하십시오. 다음 제시문에 근거하여 작성하되 개인적 경험과 배경지식을 활용하십시오. 적절한 제목도 붙이시오.

문제를 읽어 보면 문학 작품을 스스로 분석하고 정해진 주제에 관한 견해를 밝히는 것, 제시문을 읽고 쟁점에 대한 자신의 비판적·논리적 사고를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IV 주장하는 글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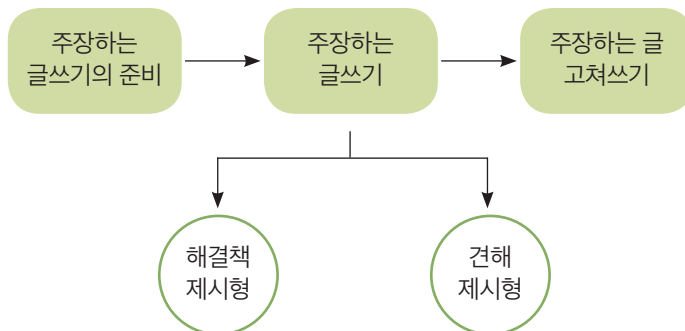
1. 주장하는 글쓰기의 필요성
2. 주장하는 글 작성하기
3. 주장하는 글 고쳐쓰기



이 단원에서는

주장하는 글쓰기는 문제 해결이나 의사 결정을 위한 글쓰기이며, 주장하는 글은 체계적인 논리와 적절한 근거나 증거에 기초하면 좋은 글이 된다. 주장하는 글쓰기에 앞서 논제를 정하고 개요를 작성하는 방법을 먼저 익힌다. 개요를 바탕으로 주장하는 글을 실제로 써 보고, 고쳐쓰기를 거쳐 글의 완성도를 높인다.

미리 보기



1. 주장하는 글쓰기의 필요성

생각
열기

다음 상황을 보고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자.

학교에 급식 메뉴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상준: 다음 주에 급식 소위원회가 있대. 그때 우리의 주장을 전달하자. 너희는 급식 메뉴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해? 문제를 몇 가지로 간추리고, 그것이 왜 문제인지 근거를 들어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좋겠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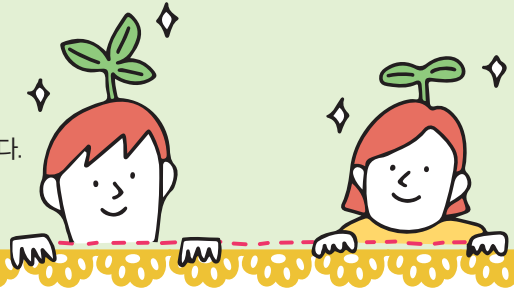
은수: 우리 반 선호네 어머니께서 학교 운영 위원회 활동을 하셔. 내가 그 친구 어머니를 통해서 교장 선생님께 부탁을 드려 볼게. 평소에 그 어머니께 좋은 인상을 보여 드렸으니 내 부탁을 들어주실 거야.

미희: 우리 동아리에도 급식 메뉴에 불만이 있는 친구들이 많아. 내가 동아리에 가서 다 함께 학교 누리집 게시판에 불만의 글을 잔뜩 쓰자고 이야기해 볼게. 너희들도 힘을 모아서 글 올릴 친구들을 많이 섭외해 봐.



학습 목표

주장하는 글쓰기의 의미와 작성 시 주의 사항을 이해하고,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밝히는 글쓰기의 필요성을 알 수 있다.



누구의 주장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나요?

A dashed rectangular box with a small tail pointing towards the bottom right, intended for writing an answer to the question above it.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dashed rectangular box with a small tail pointing towards the bottom right, intended for writing an answer to the question above it.

다른 주장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dashed rectangular box with a small tail pointing towards the bottom right, intended for writing an answer to the question above it.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자는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A dashed rectangular box with a small tail pointing towards the bottom right, intended for writing an answer to the question above it.

주장하는 글쓰기의 의미와 필요성

◆ 적절한 근거란?

적절한 근거는 참이어야 하고, 주장과 관련이 있으며, 주장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

주장하는 글쓰기는 기존 입장이나 자료를 분석적으로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검토한 것을 토대로 하여, 문제를 해결하거나 쟁점에 대한 견해를 밝히기 위해 자신의 주장이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한 편의 글을 쓰는 활동입니다.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적절한 근거◆증거를 제시함으로써 상대(독자)를 합리적으로 설득하려는 목적을 가진 글이죠. 주장하는 글쓰기는 문제 해결이나 의사 결정이 필요한 상황에 합당한 해결책이나 견해를 형성하여 합리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게 해 줍니다. 우리가 민주 시민으로서 합리적인 일상생활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능력, 쟁점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 해결책이나 견해를 제시하는 능력, 제시된 해결책이나 견해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소통하고 검토하여 문제 해결이나 의사 결정에 이르는 능력이 꼭 필요합니다.

주장하는 글쓰기는 문제를 해결할 적절한 방법이 없을 때나 기존의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을 찾고자 할 때, 또는 의사 결정 과정에서 어떤 쟁점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필요합니다. 이때 전자의 경우에는 ‘해결책 제시형’으로 주장하는 글을 쓰고, 후자의 경우에는 ‘견해 제시형’의 글을 쓰게 됩니다.



도움말

예를 들어 ‘학생 협동조합의 조합원 수와 수익금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문제에 대하여 ‘조합원 수와 수익금을 늘릴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자.’라고 한다면 제대로 된 해결책이 아니라 단순히 문제를 반복한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 ‘대안’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주장을 밝히고 그 주장에 대한 적절한 근거를 제시해야 제대로 된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다.

주장하는 글쓰기의 주의 사항

‘해결책 제시형’에서는 어떤 현상이나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때는 문제점을 확인한 후 문제 발생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고, 적절한 근거를 들어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다음은 ‘해결책 제시형’의 한 예입니다.

● 문제 상황 파악

우리 학교 매점 운영을 위한 학생 협동조합 설립 2년 차를 맞아, 지난 1년간의 활동을 분기별로 평가해 본 결과, 전교생 대비 조합원 비율과 매점의 수익금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 원인 분석

조합원 비율이 감소한 이유는 조합원에 대한 별다른 혜택이 제공되지 않아 기존 조합원의 탈퇴가 늘고 있으며, 신규 가입도 저조하기 때문이다. 매점의 수익금이 감소한 이유는 판매 품목과 운영 시간에 대한 불만이 쌓여서 이용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 해결책 제시

조합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수익금 중 일부를 조합원 복지에 사용하는 등 조합원을 위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조합원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그 사실이 널리 알려지면 탈퇴자가 줄고 신규 가입자가 늘어날 것이다. 이에 더하여 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신규 회원 가입을 유도해야 한다.

매점의 수익을 늘리기 위해서는 매점 이용자들이 선호하는 판매 품목을 신속히 파악하고 구비해 두어야 한다. 또 매점 운영 시간도 학생들이 원하는 시간을 파악하여 매점 운영 위원 뿐만 아니라 학교 측과 조율하면 매점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늘어 수익금이 증가할 것이다.

이처럼 문제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이렇게 찾아낸 문제 발생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적절한 근거를 활용하여 제시해야 합니다.

‘견해 제시형’에서는 주어진 선택지 중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때는 기존의 여러 의견을 검토하여 그중에서 자신의 견해를 선택하고, 이 견해가 타당하다는 근거를 충분히 제시해야 합니다. 다음은 ‘견해 제시형’의 한 예입니다.

● 견해 결정

최근 학교 홈페이지 학생 게시판에서 ‘점심시간 교내 음악 방송 폐지’에 대한 찬반 논쟁이 뜨겁다. 이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지지한다.

● 근거 제시

학교는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 음악 방송은 학생들이 수업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풀고 점심시간을 보다 즐겁고 편안하게 보내도록 도와준다. 또한, 음악 방송은



도움말

- 문제 상황의 원인이 무엇인지 밝히는 것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주장)의 근거가 된다.
- 제시한 해결책이 문제 상황의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논리적 근거와 함께 객관적인 증거도 제시하면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다.



도움말

‘견해 제시형’은 찬성과 반대의 양자택일 상황뿐 아니라 다수의 선택지 중 하나를 골라야 하는 상황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교내에서 착용 가능한 복장의 허용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처럼 다양한 견해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이에 해당한다.

예술적인 측면에서 학생들의 창의성과 표현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큰 역할을 한다. 점심시간에 교실에서 공부할 때 음악 방송이 방해된다고 주장하는 학생들은 조용한 자습실에 가서 공부할 수도 있다. 이들을 위해서 자습실 등 학습 공간을 개방하면 된다. 그러면 음악을 듣고 싶은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모두 만족할 것이다.

이처럼 찬성과 반대 중 하나를 자신의 견해로 결정했으면 이를 뒷받침할 근거를 충분히 갖추어서 주장하는 글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입장에 대한 반론까지 고려하면 더욱 설득력 있는 글이 됩니다.



1 다음 논제를 유형에 따라 분류해 보자.

논제	유형	
	해결책 제시형	견해 제시형
원자력 발전은 필요한가?		
인공 지능 법관을 도입해야 하는가?		
반려동물 보유세를 부과해야 하는가?		
대학 입시 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독도 주변 바다의 사막화를 방지할 방안은 무엇인가?		
패스트 패션♦의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은 무엇인가?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감염병 유행 시기에 시민의 집회·결사의 자유는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가?		



♦ 패스트 패션 빠르게 변화하는 유행을 따라 저가로 대량 생산한 의류를 판매하는 것을 패스트 푸드에 빗대어 표현한 것. 유행을 따르는 소비자들이 이같이 저렴하게 만들어진 의류를 버리는 일이 많기 때문에 환경 문제로 비판받고 있기도 하다.

2 다음은 '청소년 참여 활동'에 관한 글이다. 글을 읽고 활동해 보자.

청소년이 디지털 문화의 생산과 소비 주체로 등장하면서 청소년 참여 활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다. 청소년 참여 활동은 청소년이 자기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활동으로 청소년의 자아 성취와 청소년이 속한 학교나 조직, 지역 사회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그러나 아직은 청소년의 참여율이 낮은 편이다.

청소년의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로는 첫째, 청소년들이 청소년 참여 활동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해서 참여 방법을 잘 모른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둘째, 청소년의 관심을 끄는 청소년 참여 활동 프로그램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셋째, 청소년 참여 활동이 학업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학부모나 학생의 부정적인 인식도 크게 작용한다.

청소년 참여 활동을 활성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학교 등 청소년 참여 활동 관련 기관에서는 청소년 참여 활동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학생들의 참여를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 지역 사회, 청소년 단체 등은 청소년이 참여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이 글은 어떤 현상이나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해결책 제시형'에 해당한다. 글쓴이가 제시한 문제점과 문제 발생의 원인, 주장하고 있는 해결책을 파악하며 읽어 보자.



(1) 글쓴이가 파악한 문제점은 무엇인지 한 문장으로 써 보자.

A light green rectangular box with rounded corners, intended for writing a sentence. A silver paperclip is attached to the top right corner.

(2) 글쓴이가 제시하는 문제점의 원인을 정리해 보자.

A light green rectangular box with rounded corners, intended for writing. A silver paperclip is attached to the top right corner.

(3) 글쓴이가 주장하는 해결책을 찾아보자.

A light green rectangular box with rounded corners, intended for writing. A silver paperclip is attached to the top right corner.

(4) 글쓴이가 주장하는 해결책에 덧붙일 해결책이 있는지 친구들과 의견을 나누어 보자.

A light green rectangular box with rounded corners, intended for writing. A silver paperclip is attached to the top right corner.

3 다음은 '다문화 자녀의 언어 교육'에 관한 글이다. 글을 읽고, 글쓴이의 견해를 검토해 보자.

국제결혼 가정 자녀, 외국인 가정 자녀, 북한 이탈 주민 자녀, 외국에 장기 체류한 후 귀국한 가정의 자녀, 재외 동포 중 역이민 온 가정의 자녀 등이 증가하고 있는 우리 사회는 이미 다문화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이러한 인종적, 민족적, 문화적 다양성은 학교 공간에도 점차 반영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어가 제1 언어가 아닌 다문화 자녀들이 우리 사회의 여러 집단에 참여하고 적응하며 만족스럽게 생활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다문화 자녀의 언어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노력이 나타나고 있다.

다문화 자녀들은 한국 문화와 사회적 규범에 적응하기 위해 한국어를 잘 이해하고 구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최근까지 우세하였다. 그러나 모어보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더 능숙해진 다문화 자녀들은 모어를 사용하는 가족들과 언어적, 문화적 갈등을 겪으며 가족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대부분의 다문화 자녀들은 한국의 학교에서 학업을 수행해야 하므로 한국어 교육을 우선해야 학업 성취도를 높일 수 있다는 주장도 최근까지 힘을 얻었다. 그러나 다문화 자녀들에게 한국어는 모어가 아닌 경우가 많으므로 한국어로 이루어지는 교육에서 언어적 장벽에 부딪혀 자아 효능감이 하락하고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그렇다면 다문화 자녀들이 한국 사회의 여러 집단과 어울려 살며 만족스러운 생활을 영위할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 다문화 자녀의 이중 언어 교육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우선 이중 언어 교육은 다문화 자녀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킨다. 다문화 자녀는 모어를 사용하는 가족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그들로부터 전통과 문화를 물려받아 자신의 뿌리에 대한 자긍심과 자아 정체성을 함양한다. 나아가 이중 언어 교육은 다문화 자녀의 학습 능력도 향상시킨다. 이중 언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학습자는 사고력과 창의력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다문화 자녀가 두 언어와 두 문화를 익히면 학습 능력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역량까지 향상되어 세계화 시대에 세계 시민으로서의 경쟁력도 갖추게 될 것이다.



이 글은 어떤 쟁점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는 '견해 제시형'에 해당한다. 기존의 견해에 대한 글쓴이의 검토 의견, 글쓴이의 견해와 그 근거를 파악하며 읽어 보자.

◆ **모어**: 개인이 어렸을 때 가정에서 배운 첫 언어이며, 현재도 이 해하는 언어.

◆ **자아 효능감**: 특정한 상황에서 자신이 적절한 행동을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신념 또는 기대감.



- (1) 다문화 자녀의 언어 교육과 관련한 기존의 견해와 그에 대한 글쓴이의 검토 의견을 정리해 보자.

기존	견해	한국어 교육을 우선하자.	
	근거	한국 문화와 사회적 규범에 적응해야 한다.	한국의 학교에서 학업을 수행해야 한다.
글쓴이의 검토 의견			

- (2) 글쓴이의 견해와 근거를 찾아 정리해 보자.

글쓴이의 견해	
근거	

- (3) 다문화 자녀의 언어 교육과 관련하여 모둠의 견해를 정한 다음,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해 보자.

모둠의 견해	
근거	



1 문맥을 고려하여 () 안에서 알맞은 말을 골라 보자.

주장하는 글쓰기는 (요약하는 글쓰기 / 평가하는 글쓰기 / 문제 해결·의사 결정을 위한 글쓰기)이다.

2 논제의 유형과 설명을 연결해 보자.

견해 제시형

•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제시

해결책 제시형

• 의사 결정할 쟁점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제시

3 다음 글을 읽고 논제의 유형을 골라 ☒ 표시를 해 보자.

청소년의 팬덤 활동은 청소년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팬덤’은 특정 인물이나 분야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집단을 말한다. 팬덤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은 친구와 관심사를 공유하고 인간 관계를 확장하기 때문이다.

⇒ ☐ 견해 제시형 ☐ 해결책 제시형

우리나라는 심폐 소생술 시행 비율이 낮다. 그 이유는 학교에서 의무 교육을 받는 학생들에 비해 일반인은 심폐 소생술 교육에 참여하는 비율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일반인의 심폐 소생술 교육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심폐 소생술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개선과 함께 일반인이 손쉽게 심폐 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심정지 환자를 목격한 사람이 즉시 심폐 소생술을 시행하면, 그러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2.4배 높아졌다는 조사 자료가 있다. 일반인의 심폐 소생술 교육 참여율이 높아져야 하는 이유이다.

⇒ ☐ 견해 제시형 ☐ 해결책 제시형

2. 주장하는 글 작성하기



다음을 보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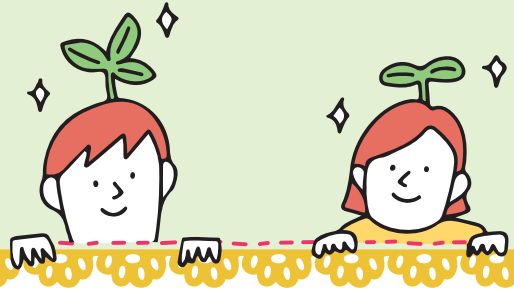
2015년 유엔 총회에서는 지속 가능 발전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열일곱 개의 인류 공동의 목표를 채택하였다. 우리나라도 국제 사회 공동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한국 사회가 처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수립하였다.



- 국가 지속 가능 발전 목표

학습 목표

다양한 자료와 정보를 활용하여 적절한 근거를 제시하며
주장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글을 작성할 수 있다.



가장 먼저 달성해야 할 목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A dashed blue speech bubble with a tail pointing towards the bottom right, intended for the student to write their answer to the first ques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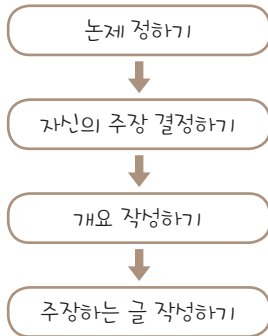
자신이 선택한 목표를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주장'의 형식으로 제시해 봅시다.

A dashed blue speech bubble with a tail pointing towards the bottom right, intended for the student to write their answer to the second question.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수집해 봅시다.

A dashed blue speech bubble with a tail pointing towards the bottom right, intended for the student to write their answer to the third question.

주장하는 글쓰기의 과정



주장하는 글을 쓸 때에는 먼저 논제를 정하고 이 논제와 관련한 기존의 다양한 견해들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자신의 주장(해결책이나 견해)을 결정하고, 자신이 제시하는 해결책이나 견해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신뢰성 있는 자료를 선택하고 정리하여 이를 근거로 활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마련한 ‘논제·주장·근거’를 글로 옮기려면 개요 작성을 통해 논리적 정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글 전체의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논제 정하기

주어진 논제에 대하여 글을 쓸 때도 있지만, 스스로 논제를 설정하여 주장하는 글을 쓰게 될 때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 자신의 관심사에서 현안을 추출하여 논제를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관심을 갖는 모든 현안이 곧바로 논제가 될 수는 없어요. 논제를 스스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글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고 해결 가능한 것을 논제로 정해야 합니다.

- 자유와 평등 중에서 무엇을 우선해야 하는가?
- 환경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무엇인가?

이런 논제들은 제 나름대로 가치가 있는 질문이지만 너무 추상적이고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아서 충분한 논증이 어려울 것입니다. 논증에 성공하려면 논의의 범위를 좀 더 좁히고 시기나 대상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현재 우리나라에 기본 소득 제도♦ 도입이 필요한가?
- 일상생활에서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번에 제시한 논제에서는 ‘현재 우리나라’라는 시기와 대상이 특정되어 있고 ‘기본 소득 제도’라는 구체적인 제도를 다루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자료를 수집

♦ **기본 소득 제도** 모든 시민이 일정한 금액의 기본 소득을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제도. 일자리나 소득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시민에게 일정한 수준의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장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탄소 발자국** 개인, 기업, 혹은 조직 등이 일정 기간 동안 생산한 온실가스 중에서 이산화 탄소의 양을 측정한 것. 이산화 탄소는 지구 온난화의 원인 중 하나이며, 전기 사용, 교통 이용, 산업 생산, 육식 등 대부분의 인간 활동이 이산화 탄소를 발생시킨다.

하고 검토하면 적절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주장하는 글을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주장하는 글에서 논제는 그 글 안에서 충분히 입증이 가능한 대상이어야 하는데,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방법’을 논제로 제시할 때도 ‘일상생활에서’라는 단서가 있으므로 고등학생의 입장에서도 논의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주장 결정하기

어떤 논제에 대하여 자신의 주장을 결정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평소 자신의 생각이나 선호에 따르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선호에 대한 근거가 적절하고 충분하다면 그대로 주장으로 결정해도 됩니다. 하지만 주장만 제시하고 근거로 뒷받침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합리적 설득력이 없겠죠? 그러니 ‘주장을 어떤 근거로 정당화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논제와 관련한 기존의 다양한 생각들을 검토하고, 관련이 있는 자료들을 수집하여 선정하는 과정을 통해 마련한 근거로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을 자신의 주장으로 삼아야 합니다. 근거를 갖춘 주장을 결정했다면 예상되는 반론을 검토한 후, 이에 대한 재반론의 근거까지 확보하면 더욱 설득력이 있는 글을 쓸 수 있습니다.

(1) 해결책 제시형

‘해결책 제시형’에서는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논제가 제시됩니다. 아마도 해결책이 없거나 기존의 해결책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겠죠. 예를 들어 ‘일상생활에서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방법은 무엇인가?’라는 논제가 제시되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선 ‘탄소 발자국’에 관한 기존의 자료를 수집해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탄소 발자국’이란 무엇이며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문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가, 이것은 어떤 원인으로 생겨나는 것인가에 대한 자료들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을 찾아내고 나면, 이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을 해결책으로 제시하면 됩니다. 먼저 문제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문제 발생의 원인을 분석하는데 성공하고 나면, 해결책이 타당한지 여부는 이 해결책이 분석해 낸 원인을 제





자료 조사는 책, 신문, 인터넷을 활용하거나 전문가 면담과 설문 조사 등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조사한 자료들을 텍스트 분석 및 평가의 방법에 따라 요약하고 분류해 두면, 해결책과 견해를 결정할 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해결책과 견해를 뒷받침하는 충분한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

거할 수 있는지 여부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탄소 발자국을 줄이기 위한 노력에 소홀하다.’는 것을 문제 상황으로 파악하고, 이런 문제가 어떤 원인으로 생겨나는 것인가에 대한 자료를 찾아봅시다.

- **탄소 발자국 측정의 어려움** 우리가 생활하며 먹고, 입고, 거주하는 다양한 활동에서 발생하는 탄소 발자국의 총량은 어느 정도인지 알기 어렵다. 또한 탄소 발자국의 양을 줄이기 위한 행동의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도 불확실하다. 이 점 때문에 사람들이 실천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 **편의성과 경제적 고려** 탄소 감축을 위한 노력은 종종 개인의 편의성을 희생해야 하거나 추가적인 비용을 들여야 한다. 이 점이 부담이 되어 탄소 발자국을 줄이려는 행동을 실천하지 못한다.
- **정보 부족** 탄소 발자국을 줄이기 위한 방법과 그 영향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사람들은 어떻게 노력해야 하는지 모르니 실천할 수가 없다.
- **사회적 압력 부족** 주변이나 지역 사회에서 탄소 발자국 감소에 대한 압력이 부족한 경우, 개개인은 더 나은 환경적 선택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주변에서 신경 쓰지 않는 일을 굳이 나서서 노력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탄소 발자국을 줄이기 위한 노력에 소홀하게 된 문제’의 원인을 다양한 자료에서 찾은 후에 정말 그것이 문제와 인과 관계가 있는지, 주요한 원인이 맞는지, 자신의 능력으로 충분히 다룰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문제’와 ‘원인’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나면 이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을 ‘해결책’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 수준에서 ‘탄소 발자국 측정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과학적·기술적 대안을 제시하기는 어려울 테니 우리가 쓸 글에서는 원인을 다른 것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편의성과 경제적 고려’를 고려한다면 정부에서 좀 더 편리한 방법이나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을 해결책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편의

성을 조금 희생하더라도 탄소 발자국 줄이기를 실천하면 궁극적으로는 경제적 이익이 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앞서 ‘원인’을 찾은 후에는 그것이 ‘문제’와 인과 관계가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해결책’을 찾은 후에는 그것이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인지, 실제로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인지를 검토하여 그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견해 제시형

‘견해 제시형’에서는 현안에 대해 쟁점을 두고 찬성인지 반대인지를 묻는 ‘찬반형’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해외 원조와 국내 원조 중 무엇을 우선해야 하는가?’라는 쟁점이 제시되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선 이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기존 자료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자신의 입장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각 입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들을 찾아봅시다.

찬성 입장 국내 원조를 우선해야 한다.

- **국내 경제 지원** 국내 기업과 산업을 지원함으로써 국내 경제가 성장하고, 일자리가 늘어나며 국내 소득 수준이 향상될 수 있다. 이는 국가의 안정성과 자립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 **자금 이탈 방지** 해외 원조는 우리 자금이 국외로 이탈될 가능성이 있다. 국내 원조는 자금 이탈 없이 국가의 재정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 **균형 발전** 국내 원조를 우선하면 낙후된 지역에 원조함으로써 자원의 중앙 집중화를 막고 지역 간 격차를 줄일 수 있다. 이는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을 촉진한다.
- **긴급 상황 대응** 국내 원조는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는 데 더 빠르게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국내 재난이나 긴급 상황 발생 시 해외 원조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반대 입장 국내 원조보다는 해외 원조를 우선해야 한다.

- **세계적 연대의 중요성** 국제 사회에서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 해외 원조를 통해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며 국제 사회에서 국가의 명성을 높일 수 있다.
- **인간적 책임** 세계 어디에서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돕는 것은 인류의 의무이다. 자국만을

우선시하며 타국에 냉담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인류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 **지구 환경 문제 대응** 해외 원조는 국제적인 환경 문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수 있다. 지구 온난화, 생태계 파괴 등의 문제는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
- **외교적 이점** 해외 원조는 외교적 이점을 가져올 수 있다. 다른 국가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국제적 신뢰를 구축하고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일 뿐만 아니라 안보와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각 입장들을 지지하는 근거들을 수집한 후에는, 각 근거의 신뢰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비교하여 자신의 입장을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국내 원조를 우선하는 것에 대한 찬성을 자신의 입장으로 결정했다면 자신이 수집한 근거들이 이 주장을 정당화하기에 충분한 것인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주장에 대한 근거들이 타당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방법으로는 그 견해가 어떤 기준으로 선택된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의 재정 상황이 해외 원조를 감당할 만한 수준인가?’, ‘선택한 견해가 국민들의 삶의 수준 향상에 도움이 되는가?’가 선택의 기준이었다면 국내 원조를 우선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우리나라 재정 상황은 여유가 많지 않아서 해외 원조를 우선하다 보면 국내에 필수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분야에 결손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일단 우리 국민의 삶부터 챙기고 나서 타국 국민도 돕는 것이 순서이다.’ 등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예상되는 반론을 고려하면 논의가 더 풍부해집니다. 여기서 ‘해외 원조를 통해 타국과 좋은 유대 관계를 맺으면 장기적으로 안보 유지와 경제 교류에 유리하다. 이렇게 경제 교류가 활성화되면 우리 국민들의 경제적 이익도 커지고 국가 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등의 반론이 가능하니 이에 대하여 적절한 근거를 들어 재반론하면 더욱 설득력 있는 글이 됩니다.

개요 작성하기

개요를 작성하는 방법도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해결책 제시형’은 ‘문제 상황 파악’, ‘문제 원인 분석’, ‘해결책 제시’가 개요의 주요 구성 요소입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논제와 관련하여 문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원인을 분석하는 것,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 등입니다.

‘견해 제시형’은 ‘견해 결정’, ‘근거 제시’가 개요의 주요 구성 요소입니다. 이때는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것, 그 견해를 정당화하는 적절한 근거를 충분히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견해 제시형’에서는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다른 견해가 반론으로 제시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재반론까지 보여 주면 설득력이 커집니다. 예상되는 반론을 검토하는 것은 ‘견해 제시형’뿐 아니라 ‘해결책 제시형’에서도 자기주장의 설득력을 높이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개요를 작성한 후 곧바로 글을 쓰지 말고 개요를 다시 점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본격적으로 글을 쓰기 전에 자신의 개요가 ‘논제의 요구 사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지’, ‘각 항목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세부 항목의 근거가 적절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충하고 적절치 않은 부분은 수정해야 합니다. 써 놓은 글을 고치는 것보다 쓰기 전에 개요를 고치는 것이 훨씬 쉽고 효과적입니다.

<해결책 제시형>

- 문제 상황 파악
- 문제 원인 분석
- 해결책 제시

<견해 제시형>

- 견해 결정
- 근거 제시
- 반론 검토 및 재반론



개요의 '각 항목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검토할 때는 주장과 근거의 관계뿐만 아니라 제기한 주장들 사이에도 적절한 연결 고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주장하는 글 작성하기

다음은 ‘해결책 제시형’으로 글을 쓰기 위해 작성한 개요입니다. 글을 쓰기 위한 설계도로서 ‘문제 상황 파악’, ‘문제 원인 분석’, ‘해결책 제시’를 주요 요소로 하되, 각 요소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성을 가져야 합니다.

- 논제: 일상생활에서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방법은 무엇인가?
- 문제 상황 파악: 일상생활에서 탄소 발자국을 줄이기 위한 노력에 소홀하다.
- 문제 원인 분석:
 1. 탄소 발자국을 줄이기 위해서는 편리함을 희생해야 한다.
 2.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일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
- 해결책 제시:
 1. 친환경적인 선택과 실천이 더 편리하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2.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일에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다음은 위 개요에 따라서 작성한 글입니다. 주장하는 글을 작성할 때는 개요의 설계에 따라 각 부분들이 유기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며 특히 자신의 해결책 혹은 견해를 정당화하기 위해 신뢰성 있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 문제 상황 파악

이산화 탄소는 온실 효과로 지구의 기온을 상승시킬 뿐 아니라 물에 녹아서 해양 산성화를 초래하여 생태계를 위협하기도 한다. 사람들이 이산화 탄소 농도가 높은 공기를 마시면 호흡기 질환, 심장 질환, 뇌졸중, 암 등 건강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산화 탄소는 지구 환경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전 인류가 협력하여 그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은 이산화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에 소홀하다.

● 문제 원인 분석

우리가 탄소 발자국을 줄이기 위한 노력에 소홀한 이유는 첫째, 일상생활의 편리함을 희생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자가용 운행을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이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데는 시간과 노력이 더 필요할 수 있다. 둘째, 사람들은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노력을 경제적 부담으로 여기기도 한다. 일상생활에서 친환경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더 비싼 비용을 치러야 하고, 태양광 발전 설비를 가정에 설치하려면 초기 비용이 많이 든다. 이렇게 일상생활의 편리함을 희생해야 하고, 경제적 제약이 있는 경우 탄소 발자국 줄이기에 소홀해질 수 있다.

● 해결책 제시

일상생활에서 탄소 발자국을 줄이려면 친환경적인 선택을 쉽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우선 친환경적인 선택이 생활을 더 편리하게 만드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대중교통 시스템을 개선하고, 자전거 도로망을 확대하여 사람들이 친환경적인 대안을 선택하기 쉽게 만들어야 한다. 친환경 도시를 표방한 덴마크의 코펜하겐에는 390km의 자전거 도로가 조성되었고 심지어 도심 한가운데에 자전거 전용 간선 도로도 놓여 있다. 자전거 대여 서비스도 양질로 저렴한 가격에 운영되고 있어 하루에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이 40%에 이른다.

그리고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선택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친환경 제품을 이용하거나 구매하고 설치하는 일에 대해 세금 감면, 보조금 지급, 할인 혜택 등의 경제적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사람들이 탄소 발자국 줄이기에 동참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2023년 기준)에서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은 가전제품을 구입하면 최대 30만 원까지 구매 비용의 10%를 환급해 준다. 또 전기 자동차는 최대 1,900만 원, 수소 연료 전지 차는 최대 3,600만 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최대 500만 원의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고속도로 통행료와 공영 주차장 이용료를 할인해 주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실제로 친환경 제품 구매율이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위 주장에 대해서 ‘세금 감면, 보조금 지급, 할인 혜택 등의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정부 재정의 부담을 초래할 수 있고 이는 곧 국민들의 부담이 된다.’라는 반론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초기에는 비용이 들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적 이점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재반론을 제시하면 더욱 설득력이 있을 것입니다.





1 다음은 '사회 현안 해결 프로젝트' 공고문이다. 모둠별로 다음 과제를 수행해 보자.

사회 현안 해결 프로젝트

주제: 지구 환경 문제
 내용: 환경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주장(해결책 또는 견해) 제시
 공모 기간: ○○월 ○○일~○○월 ○○일
 선정 모둠: ○○개 모둠
 선정 모둠 특전: 활동비 지원, 우수 과제 시상 및 부상, 활동 증명서 발급
 신청 방법: 지원서 전자 우편 접수

(1) 모둠별 협의를 통해 주제와 관련한 사회 현안을 선정해 보자.

(2) (1)에서 선정한 사회 현안으로 해결책 제시형 논제를 작성해 보자.

(3) (1)에서 선정한 사회 현안으로 견해 제시형 논제를 작성해 보자.



프로젝트 주제와 관련이 있으면서, 주장하는 글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고 해결 가능한 것을 논제로 정해야 한다. 너무 추상적이고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은 논제는 충분한 논증이 어려우므로 논의의 범위를 좁히거나 시기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가 있다.

2 다음 글을 읽고 글쓰기가 계획했을 법한 개요를 작성해 보자.

청소년의 흉악 범죄가 뉴스에 나올 때마다 소년법 폐지를 요구하는 여론이 빗발친다. 소년법을 폐지해 성인과 똑같이 형사 처벌하고 형사 미성년자 연령도 낮춰야 한다는 국민 청원이 제기되고, 많은 국민이 공감을 표하기도 한다. 그러나 소년법은 유지되어야 한다.

형벌은 응보♦보다는 교화♦와 범죄 예방에 주된 목적이 있다. 특히 소년에 관한 한 후자에 중점을 두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소년법이 소년법에 대해 보호 처분이란 특수한 제재 수단을 채용하고 있는 것도 바로 여기에 이유가 있다.

소년법을 폐지하자는 데 공감하는 사람들은 강력한 처벌을 내리면 소년의 강력 범죄도 그만큼 줄어들 것이라 믿는다. 엄한 처벌로 범죄 소년을 사회와 격리한다면 재범을 막을 수 있으며,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처벌받는 것을 두려워하면 범죄 예방 효과가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형벌이 갖는 일벌백계♦ 효과에는 한계가 있다. 강력한 처벌이 범죄를 예방하거나 줄이는 데 실질적 효과가 있다는 과학적 분석은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보호자 위탁이나 수강 명령 등 사회 내 처분을 통해 충동적인 소년들을 밀착 지도하고, 아동 복지 시설이나 의료 소년원 위탁 등 시설 내 처분을 통해 우범 환경을 차단하면 범죄 예방에 훨씬 더 효과적이다.

소년은 인격적으로 미성숙하여 설익은 과일과 같은 존재이다.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은 감정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향이 강하다. 우리 사회가 좀 더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교육과 선도에 힘쓰고 범죄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환경을 차단한다면 얼마든지 많은 소년 범죄를 막을 수 있다. 모든 책임을 소년 개인에게만 돌리는 것은 소년을 돌보고 교육해야 할 책무를 진 우리 어른들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

- 김인겸, 「소년법 폐지만이 정답인가」

♦ 응보 죄에 대한 정당한 보복을 가함.

♦ 교화 가르치고 이끌어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함.

♦ 일벌백계 한 사람을 벌주어 백 사람을 경계한다는 뜻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하여 본보기로 한 사람에게 엄한 처벌을 하는 일을 이르는 말.

문제 상황	
견해 결정	
근거 제시	
반론 검토	
재반론	



3 다음 글을 읽고, 맥락을 고려하여 개요를 완성해 보자.

<도입>

최근 ○○시에서는 학교 급식에 채식을 원하는 학생들을 위한 ‘채식 선택제’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채식 선택제를 도입하게 된 이유는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학생들에게 인간과 자연의 공존이 중요함을 교육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수를 배려하고 공존하는 태도, 불평등과 권리 침해 없이 나가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교육의 목적 중 하나이기 때문에, 채식 선택제는 그 목적에 적합한 제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채식 선택제가 도입되면 다양한 식단이 구성되어 학생들의 선택권도 늘어날 것입니다. 더불어 채식만을 하는 친구들이 겪던 불편함이 사라지고 환경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전국도덕교사모임, 『도덕적 시민의 눈으로 세상 읽기』

개요 작성

- 논제: 학교 급식의 채식 선택제를 활성화할 방안은 무엇인가?
- 문제 상황: ‘채식 선택제’ 참여 학교의 비율이 낮음.
- 원인 분석: ① 일반 식단에 채식 식단을 추가하므로 비용이 많이 듦.
② 식단 구성에 전문성과 시간이 필요함.
③ 일부 학생들은 육식을 선호하며 채식을 기피함.
- 해결 방안:



4 다음은 ‘게임 중독의 질병 지정’과 관련된 자료이다. 이를 활용하여 활동을 해 보자.

- 세계 보건 기구(WHO)가 ‘게임 중독’을 국제 질병 분류에 등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1월부터 전 세계 200여 개국 정부는 게임 중독을 정식 질환으로 분류해 관리하게 되었다.
- 세계 보건 기구(WHO)의 게임 중독 기준은 ‘게임 이용 시간이나 횟수에 대한 통제력 불능의 상태, 게임이 일상생활보다 우선순위가 높아진 경우, 게임으로 인해 부정적인 결과가 생겨도 지속하는 경우’ 이 세 가지다. 이러한 행동이 12개월 이상 반복되면 게임 중독으로 본다.
- 게임업계 관계자는 “지금도 해소해야 할 규제가 산더미인데 게임이 질병이 되면 이용자들마저도 외면하게 될 것”이라며 “국내 규제 기관들은 기존보다 더 부정적인 태도를 취할 것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라고 말했다.
- 학교 폭력 예방 교육 센터장은 “최근 들어 일본, 독일 등 일부 선진국들이 다중 접속 역할 수행 게임(MMORPG) 중심의 중독성 있는 국내 게임 수입을 차단하고 있다.”며 “게임 중독 예방뿐만 아니라, 초기 치료를 통한 사회적 비용 절감도 고려해야 한다. 규제로 볼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보호 장치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 정신 의학과 교수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국가가 책임지고 효과적인 서비스를 하지 못하고 있다. 질병이라는 정의가 없어 이를 지지하고 보호할 주체가 없기 때문”이라며 “공중 보건학적으로 보았을 때 전 세계적으로 게임 중독으로 인한 정신 건강 문제가 1~3%나 된다.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주장했다.
- 문화 체육 관광부,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등은 콘텐츠 수출 및 아이티(IT) 발전 저해 등 관련 산업이 연쇄적으로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문화 체육 관광부 관계자는 “게임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우리 사회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이라며 “사회적인 합의도 없이 국민의 대표적인 여가 생활을 질병으로 낙인찍는 것은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 아주경제(2019. 5. 26.)



도움말

‘견해 제시형’의 주장하는 글을 쓸 때는 각 입장들을 지지하는 근거들을 수집한 후, 각 근거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비교하여 자신의 입장을 선택해야 한다. 제시된 자료를 쟁점에 대한 찬반 입장으로 구분한 뒤, 자신의 견해를 정해 본다.

(1) 자료를 참고하여 쟁점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정해 보자.

쟁점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지정해야 하는가?
자신의 견해	

(2)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자신의 견해를 지지하는 문단을 써 보자.

- 자신의 견해:

- 지지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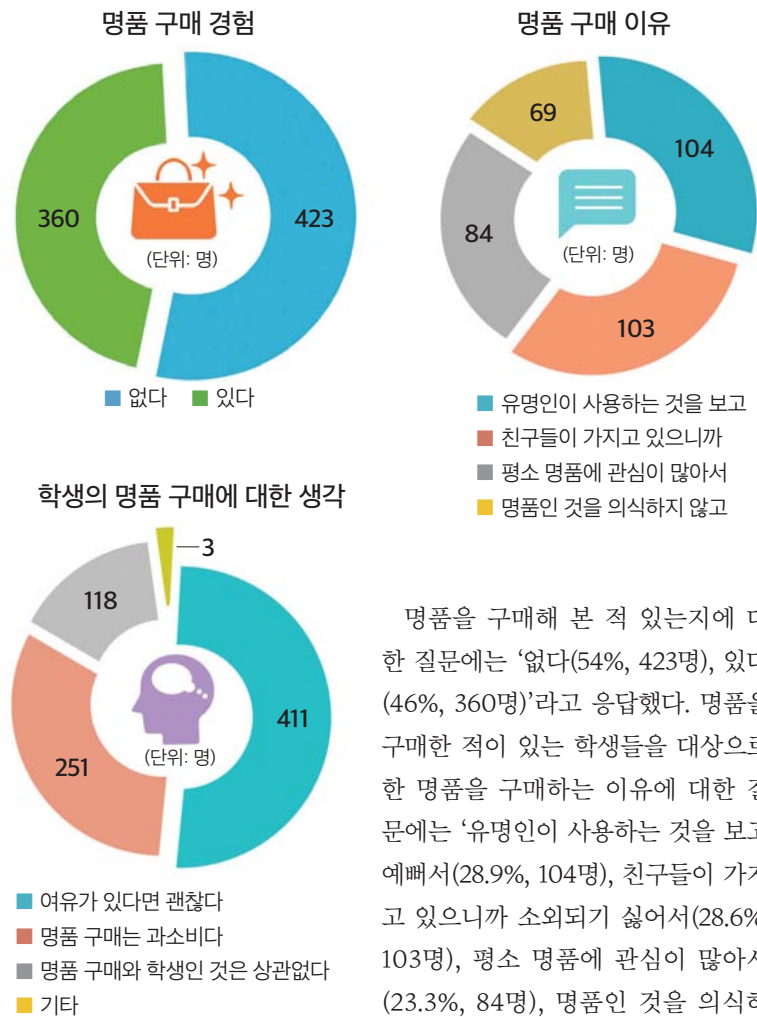
(3)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자신과 다른 견해를 반박하는 문단을 써 보자.

- 자신과 다른 견해:

- 반박 근거:

5 다음 자료와 개요를 활용하여 ‘청소년의 그릇된 소비 태도를 개선하자.’라는 글을 써 보자.

○○ 학생복은 학생들의 명품 소비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가운데 청소년들의 소비문화를 알아보고자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다.



명품을 구매해 본 적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없다(54%, 423명), 있다(46%, 360명)’라고 응답했다. 명품을 구매한 적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명품을 구매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는 ‘유명인이 사용하는 것을 보고 예뻐서(28.9%, 104명), 친구들이 가지고 있으니 소외되기 싫어서(28.6%, 103명), 평소 명품에 관심이 많아서(23.3%, 84명), 명품인 것을 의식하지 않고 구매(19.1%, 69명)’한다고 응

답했다. 학생들의 명품 구매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는 ‘여유가 있다면 구매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한다(52.5%, 411명), 명품 구매는 과소비라고 생각한다(32.1%, 251명), 명품 구매와 학생인 것은 상관없다(15.1%, 118명), 기타(0.4%, 3명)’라고 응답했다.

- 제민일보(2021. 12. 20.)

개요

- 논제: 청소년 소비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 주제: 청소년의 그릇된 소비 태도를 개선하자.
- 문제 상황: 청소년의 무분별한 명품 소비
- 원인 분석: ① 특정인이나 또래 집단의 소비를 따라 하려는 심리
② 상품 가치에 기대어 자신을 드러내려는 심리
- 해결 방안: ① 자신만의 개성을 발휘하려는 노력
(또는 • 여러 가지 문화 체험을 통해 소비 선택을 다양화하려는 노력
• 소비의 의미를 이해하고 합리적 소비를 선택하려는 노력)
② 내적 가치의 발견을 통한 자아 존중감 확립

6 활동 1에서 작성한 논제 중 하나를 정하여 다음 활동을 해 보자.

- (1) 논제에 대한 자신의 주장(해결책 또는 견해)을 정하고 다양한 자료와 정보를 찾아 보자.

논제	
자신의 주장	
자료와 정보	

- (2) 자신의 주장을 담은 글을 쓰기 위한 개요를 작성해 보자.



- (3) 작성한 개요를 모둠원과 서로 평가하고, 평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자신의 개요를 수정해 보자.



작성한 개요를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 모둠원들과 공유하며 서로 평가한다. 평가 내용을 댓글로 작성할 때는 여러 사람이 함께 보는 공간임을 고려하도록 한다.





1 다음 설명이 맞으면 ○, 틀리면 ×를 해 보자.

- ① 논제를 스스로 결정할 때는 글의 목적과 견해를 정당화할 자신의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 ()
- ② 주장하는 글쓰기를 위해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주장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
- ③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신뢰성 있는 자료를 선택하여 근거로 활용한다. ()

2 논제 유형과 개요의 구성 요소를 올바르게 연결해 보자.

해결책 제시형 •

• 문제 상황-원인 분석-해결 방안

견해 제시형 •

• 자신의 견해와 근거-예상 반론과 재반론

3 ()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 써 보자.

보기 구성 근거 논제 비판 재반론

- (1) 개요를 점검할 때는 ()의 요구 사항이 모두 포함되었는지, 각 항목의 ()이/가 유기적인지, 세부 항목을 뒷받침하는 ()이/가 적절한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 (2) 예상 반론을 검토하는 것은 자신의 문제 해결에 스스로 ()을/를 제기한 뒤 이를 ()함으로써 자기주장의 설득력을 높이는 과정이다.

3. 주장하는 글 고쳐쓰기

생각
열기

다음 상황을 보고 활동해 보자.

논제: 강력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

민정: 강력 범죄자라도 수사가 시작됐을 때 범죄자의 신상 공개는 매우 위험합니다. 무해한 사람과 그 사람의 가족들까지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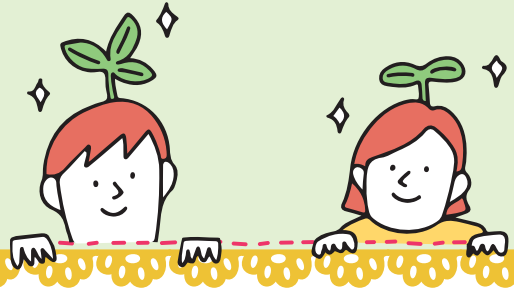
창수: 강력 범죄자에게도 스스로 반성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강력 범죄 사건을 보면 피가 거꾸로 솟고 이가 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연을 알게 되면 범죄자에게도 동정심이 생기고 어떤 경우에는 공감이 되기도 합니다.

기영: 강력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해야 합니다. 물론 범죄자가 법적인 처벌 외에 추가적인 차별과 혐오를 받고 개인의 인권을 침해받을 수 있다는 반론도 가능하긴 합니다.

지현: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습니다. 게다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피의자 주변에 있는 일반인의 알 권리도 보장받아야 합니다.

학습 목표

고쳐쓰기의 방법을 익혀 주장하는 글을 완성할 수 있다.



각 토론자의 발언에 대한 평가로
적절한 내용을 연결해 봅시다.

- | | |
|------|-----------------------------------|
| 민정 • | • 주장이 없습니다. |
| 창수 • | • 주장이 논제를 벗어났습니다. |
| 기영 • | • 단어의 사용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
| 지현 • | • 예상되는 반론만 있고 재반론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

각 토론자의 발언을 고쳐 봅시다.

주장하는 글쓰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명확한 주장과 근거를 통한 자기주장의 정당화입니다. 글을 쓰고 나면 스스로 주장은 명확한지 주장과 근거 사이에 문제점이 없는지 점검하고, 적절하게 수정하여 주장을 정당화해야 합니다. 자신의 글을 점검할 때는 글의 내용, 구성, 표현의 측면에서 살펴봅니다.

내용 점검하기

먼저 내용을 점검할 때는 주장이 분명하고 명료하면서 논제에 부합하는지 살펴보고 다듬어야 합니다. 이때 논제에서 벗어나는 내용을 삭제하여 글이 일관성을 갖추도록 합니다. 또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타당한지 살펴봅니다. 반론을 포함하고 그에 대한 재반론까지 적절하다면 정당화가 잘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성 다듬기

글을 쓸 때는 내용뿐 아니라 글을 전개해 가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각 문단들과 문장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중심으로 다음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문단 안에서는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이 잘 갖추어져 있는지,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어는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문단과 문단을 연결

하는 지시어나 연결어도 주장의 흐름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문단 간의 배열이 체계적이고 논리적인지 확인하여 적절치 않은 점을 발견했다면 재조정해야 합니다. 각 문단의 분량을 비교하여 너무 길거나 짧아서 전체적인 균형을 깨트리지 않았는지도 점검해야 합니다.



표현 바로잡기

글의 내용과 짜임새를 검토하고 난 후에는 각 문장들의 명확성을 검토하고 어법에 맞지 않거나 어색한 표현은 없는지 검토할 차례입니다. 단어의 사용은 적절한지, 동의어를 반복하거나 불필요하게 추상적이거나 어려운 어휘를 사용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부득이하게 사용된 전문 용어가 있을 경우 그 의미를 충분히 설명하였는지 점검합니다.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적절하지 않은 문장, 꼭 필요한 문장 성분을 생략한 문장, 지나치게 긴 복문을 사용한 문장 등은 없는지 점검하고 적절하게 수정해야 합니다.

고쳐쓰기 연습

다음은 ‘해외 원조보다 국내 원조를 우선해야 하는가?’라는 논제에 대하여 견해를 주장한 글의 초안입니다. 이 글을 읽고 내용, 구성, 표현을 검토해 봅시다.

논제: 해외 원조보다 국내 원조를 우선해야 하는가?

견해 결정: 해외 원조를 국내 원조보다 우선해야 한다.

근거 1: 첫 번째로, 우리나라는 해외 원조를 통해 국제 사회에서의 명성과 영향력을 높일 수 있어서 국내 발전과 국민 복지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근거 2: 두 번째로, 해외 원조는 인류의 발전과 번영에 기여한다. 세계 여러 나라와 협력하여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세계를 만들어 가는 것은 인류 전체에 이익이 된다. 이는 우리나라가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다하는 것이며, 우리 국민이 세계 시민의 일원으로서 공동의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가치 있는 일이다.

예상되는 반론: 어떤 사람들은 한정된 자원을 국내 문제 해결에 우선 투여하지 않는 것은 국가 발전에 제약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우리나라의 발전을 저해하고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면서까지 다른 나라를 돕는 것은 어리석은 선택이라는 주장이다. 먼저 국내 원조를 통해 우리나라의 자주 국방 능력을 갖추고 충분한 전쟁 역지력을 확보한 후에야



도움말

‘해외 원조보다 국내 원조를 우선해야 하는가?’라는 논제는 ‘견해 제시형’에 해당한다. 그에 따라 주장하는 글도 ‘견해 결정-근거 제시-예상되는 반론-재반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분쟁이 해결되도록 돕고 평화를 이루어 낼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남을 돕다가 우리나라 존립이 위태롭게 될 수 있다.

재반론: 그러나 해외 원조는 자원의 낭비가 아닌 효율적인 투자이며, 국제적인 교류를 통해 우리의 경제 성장과 발전을 촉진할 수 있기에 타국과의 경제적 연결을 통해 우리 국민들도 더 많은 기회와 혜택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발전과 국민 복지를 동시에 추구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이고, 해외에 원조한다고 해서 국내는 등한시되고 소외되는 것이 아니라 는 점에 주목하고 오히려 우리나라 발전의 기회가 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1) 내용 점검

먼저 국내 원조를 통해 우리나라의 자주 국방 능력을 갖추고 충분한 전쟁 역지력을 확보한 후에야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분쟁이 해결되도록 돕고 평화를 이루어 낼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남을 돕다가 우리나라 존립이 위태롭게 될 수 있다.

‘예상되는 반론’ 내용 중 ‘자주 국방 능력’은 논제에서 벗어난 부분입니다. ‘국내 원조’와 ‘국방’은 관련성을 찾기 힘든 분야이므로 삭제해야 합니다.

(2) 구성 다듬기

첫 번째로, 우리나라는 해외 원조를 통해 국제 사회에서의 명성과 영향력을 높일 수 있어서 국내 발전과 국민 복지에 도움이 될 것이다.

초안에서 첫 번째 근거 내용은 두 번째에 비해서 지나치게 분량이 짧아서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내용을 보충하여 제시한 두 근거가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3) 표현 바로잡기

그러나 해외 원조는 자원의 낭비가 아닌 효율적인 투자이며, 국제적인 교류를 통해 우리의 경제 성장과 발전을 촉진할 수 있기에 타국과의 경제적 연결을 통해 우리 국민들도 더 많은 기회와 혜택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발전과 국민 복지를 동시에 추구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이고, 해외에 원조한다고 해서 국내는 등한

시되고 소외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고 오히려 우리나라 발전의 기회가 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초안의 재반론 부분은 한 문단 전체가 하나의 문장으로 이어져 있어서 읽기가 어렵습니다. 지나치게 긴 복문을 사용하지 말고 적절히 끊어서 문장을 재구성함으로써 의미가 분명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의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고쳐 쓸 수 있습니다.

논제: 해외 원조보다 국내 원조를 우선해야 하는가?

견해 결정: 해외 원조를 국내 원조보다 우선해야 한다.

근거 1: 첫 번째로, 국제 사회와의 협력과 유대 관계는 국가의 발전에 필수적이다. 우리나라는 해외 원조를 통해 국제 사회에서 명성과 영향력을 높일 수 있다. 좋은 유대 관계를 유지하고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우리의 경제 교류, 정치적 영향력, 국제 지위 등은 향상된다. 이는 국내 발전과 국민 복지를 더욱 견고하게 지탱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근거 2: 두 번째로, 해외 원조는 인류의 발전과 번영에 기여한다. 세계 여러 나라와 협력하여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세계를 만들어 가는 것은 인류 전체에 이익이 된다. 이는 우리나라가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다하는 것이며, 우리 국민이 세계 시민의 일원으로서 공동의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가치 있는 일이다.

예상되는 반론: 어떤 사람들은 한정된 자원을 국내 문제 해결에 우선 투여하지 않는 것은 국가 발전에 제약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우리나라의 발전을 저해하고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면서까지 다른 나라를 돕는 것은 어리석은 선택이라는 주장이다.

재반론: 그러나 해외 원조는 자원의 낭비가 아닌 효율적인 투자이다. 타국과 경제적 연결을 통해 더 많은 기회와 혜택을 얻음으로써, 국내 발전과 국민 복지를 동시에 추구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이다. 국제 교류를 통해 우리의 경제 성장과 발전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해외 원조가 오히려 우리나라 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결론: 국내 원조를 우선하는 것은 국제 협력과 발전을 제한하는 선택이다. 우리나라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서는 국제 사회와의 협력과 유대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타국에 대한 원조를 통해 우리 경제를 발전시키고 국내 발전과 국민 복지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전략이다.



1 다음 <점검표>를 활용하여 <초고>를 고쳐 써 보자.

<초고>

한식의 표준화가 통일성 있는 맛과 품질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주장이 있다. 한식 표준화는 국내외의 한식 소비자가 한식의 원래 맛과 특징을 느끼게 하며, 한식만의 고유한 가치 보존에도 기여하기 때문이다. 한식의 표준화가 이루어지고 나면 한식을 외국 소비자에게 알리는 활동을 더욱 활발히 전개해야 한다. 그 점에 있어 한식의 표준화는 일관성 있는 맛과 품질의 유지를 강조하여 오히려 음식의 다양성을 감소시킨다. 이는 지역마다 특색 있는 음식이 사라지거나 맛이 일정해지는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한식의 표준화는 창조성을 감소시킨다.

<점검표>

점검 항목	해당 부분	고쳐쓰기
부적절한 어휘	통일성	
논제에서 벗어난 부분		해당 내용 삭제
부적절한 연결어	그 점에 있어	
부족한 근거	또한 한식의 표준화는 창조성을 감소시킨다.	또한 한식의 표준화는 창조성을 감소시킨다. 왜냐하면 ().

모듬
2

다음은 ‘감정 노동자 보호’를 주제로 쓴 글이다. 글을 읽고, 활동을 해 보자.

‘감정 노동’은 고객의 기분에 맞추기 위해, 혹은 기업에서 요구하는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 노동자가 자신의 감정을 고무시키거나 억제하는 노동을 뜻한다. 직접 고객을 응대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 종사자들이 주로 해당한다. 고용 노동부에 따르면 감정 노동자의 규모는 약 8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문제는 감정 노동자들이 정신적 스트레스에 쉽게 노출된다는 점이다. 한국 노동 안전 보건 연구소가 2021년 사무 금융 종사자를 대상으로 정신 질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노동자가 직무 스트레스 고위험군에 해당했다.

감정 노동자가 겪는 고충의 원인은 첫째 상대방의 감정을 수용하고 대처하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희생하는 데서 비롯된다. 둘째 소비자와의 갈등을 줄이고 평판을 신경 쓰는 기업이 친절을 강조하다 보니 감정 노동을 더욱 부추기는 상황이 보편적이기 때문이다.

감정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 개선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기업과 정부 차원의 노력이 요구된다. 먼저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어야 한다. 고객이라는 ‘갑’의 위치를 빙자◆해 이들에게 함부로 대할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다. 이들은 우리의 부모, 자녀, 가족들이다. ‘갑’과 ‘을’의 위치는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주어진 환경과 상황에 따라 뒤바뀌어 움직인다는 점도 직시해야 한다.

직원이 행복해야 기업도 고객도 행복하다. 기업은 감정 노동과 고객의 폭력 등에 노출되는 노동자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기업은 노동자가 도움을 요청하면 즉시 가해 고객으로부터 노동자를 분리하고 담당자를 교체할 뿐만 아니라 해당 노동자에게 치료와 상담을 지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감정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구체화해야 한다.

◆ 빙자 말막음을 위하여 핑계로 내세움.





도움말

개요를 공유했던 인터넷 게시판에, 각자 쓴 주장하는 글을 올리고 모둠원들과 공유하며 제시된 기준에 따라 점검한다.

(1) 이 글을 읽고 다음 내용을 점검해 보자.

점검 기준	점검
글의 주장이 명확한가?	
글 전체가 일관성이 있는가?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적절하고 타당한가?	
문단의 배열 순서가 체계적인가?	
각 문단은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마지막 문단 미흡함.

(2) (1)에서 점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고쳐쓰기를 해 보자.



3 155쪽의 활동 6에서 쓴 글을 점검하고 고쳐쓰기를 해 보자.

(1) 각자 쓴 글을 모둠원과 서로 바꾸어 다음 기준에 따라 점검해 보자.

점검 기준	점검 결과
글의 주장이 명확한가?	
글 전체가 일관성이 있는가?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적절하고 타당한가?	
예상 반론을 제시할 경우 그에 대한 재반론이 적절한가?	
문단의 배열 순서가 체계적인가?	
각 문단은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문장 표현이 어법에 맞고 자연스러운가?	
단어의 사용은 적절한가?	

(2) (1)에서 점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고쳐쓰기를 해 보자.

(3) 고쳐 쓴 글을 모둠별로 발표하고 상호 평가를 해 보자.



1 다음 설명이 맞으면 ○, 틀리면 ×를 해 보자.

- ① 주장하는 글을 고쳐 쓸 때는 주장과 근거가 잘 드러나 있는지 논리적인 면을 점검한다. ()
- ② 주장하는 글은 반드시 '도입-본문-마무리'의 형식을 갖추었는지 점검한다. ()
- ③ 고쳐쓰기는 좋은 글이 되는 글쓰기의 한 과정이다. ()

2 ()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 써 보자.

보기 근거 어법 일관성 재반론 주장 중심 체계적

<고쳐쓰기 점검 기준>

- 글의 ()이/가 명확하다.
- 글 전체가 ()이/가 있다.
-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가 적절하고 타당하다.
- 반론이 소개되고 그에 대한 ()이/가 적절하다.
- 배열된 문단의 순서가 ()이다.
- 각 문단은 () 문장과 뒷받침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 문장 표현이 ()에 맞고 자연스럽다.
- 단어의 사용이 적절하다.

대단원 마무리

종합하기

이 단원에서 공부한 내용을 정리해 보자.



1. 주장하는 글쓰기의 필요성	- 주장하는 글쓰기의 의미: 문제 해결적 글쓰기, 의사 결정을 위한 글쓰기 - 주장하는 글쓰기의 유형 - 해결책 제시형 - 견해 제시형
2. 주장하는 글 작성하기	- 논제 정하기 → 자신의 주장 결정하기 → 개요 작성하기 → 주장하는 글 작성하기 - 논제의 성격에 따라 개요를 작성함.
3. 주장하는 글 고쳐쓰기	- 내용: 명확성, 일관성, 적절성, 타당성 - 구성: 논리성, 체계성 - 표현: 어문 규정, 어법

평가하기

이 단원에서 공부한 내용을 생각하면서 스스로 평가해 보자.

소단원	학습 목표	평가		
		상	중	하
1. 주장하는 글쓰기의 필요성	주장하는 글쓰기의 의미와 작성 시 주의 사항을 이해하고,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밝히는 글쓰기의 필요성을 알 수 있다.			
2. 주장하는 글 작성하기	다양한 자료와 정보를 활용하여 적절한 근거를 제시하며 주장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글을 작성할 수 있다.			
3. 주장하는 글 고쳐쓰기	고쳐쓰기의 방법을 익혀 주장하는 글을 완성할 수 있다.			

자기 성찰 일지



1 이 단원을 공부하면서 자신이 쓴 주장하는 글을 다시 한번 펼쳐 두고, 다음의 물음에 답해 보자.

(1) 자신의 글에서 주장하는 바는 무엇인가?

(2) 자신의 글이 충분한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되는가?

① 자신의 글이 설득에 성공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② 자신의 글이 설득에 실패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2 '주장하는 글쓰기'를 배우면서 자신은 어떤 부분에서 성장했는지 생각해 보자.

(1) 알게 된 지식은 무엇인가?

(2) 할 줄 알게 되거나 익숙해진 능력은 무엇인가?

(3) 이 성장을 통해 앞으로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며, 그에 대한 계획은 무엇인가?



모든 미래 세대의 눈이 여러분을 향해 있습니다

2019년 9월, 스웨덴의 청소년 환경 운동가인 그레타 툰베리는 유엔 기후 행동 정상 회의에서 세계 정상들에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 ◆ **티핑 포인트** 작은 변화들이 발생해 쌓이다가 갑자기 엄청난 변화로 확산할 수 있는 시점.
- ◆ **피드백 루프** 어떤 시스템에서 처리 결과의 정밀도, 특성 유지를 위하여 입력, 처리, 출력, 입력의 순으로 결과를 자동적으로 재투입하도록 설정된 순환 회로.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죽어 가고 있어요. 생태계 전체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멸종의 시작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는 이야기는 전부 돈과 영원한 경제 성장의 신화에 대한 것뿐입니다. 어떻게 감히 그럴 수 있습니까?

지난 30년이 넘도록 과학은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해결할 정책은 보여 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여러분은 이 자리에서 충분히 하고 있다고 말하나요? 어떻게 감히 그렇게 외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우리의 말을 듣고 이해한다고 말하지만, 나는 그것을 믿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여러분이 정말로 지금의 상황을 이해하면서도 여전히 행동하지 않는 것이라면, 여러분은 악마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지 않습니다.

10년 안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자는 아이디어를 실천한다고 해도, 겨우 지구 온도 상승폭을 1.5도 이하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50%일 뿐입니다. 이 정도로는 인간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 돌이킬 수 없는 연쇄 반응을 일으킬 위험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50%의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여러 티핑 포인트◆, 대부분의 피드백 루프◆, 대기 오염에 숨겨진 추가적 온난화는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후 정의와 평등의 측면도 고려하지 않았습니 다. 또한 아직 존재하지 않는 기술로 수천억 톤의 이산화 탄소를 제거해야 할 임무를 우리 세대에게 떠넘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50%의 위험한 결과를 감수하라는 것을 우리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에서 제시한 최선안에 따르면, 2018년 1월 1일에 남아 있던 이산화 탄소 배출량 420기가 톤 예산이 이미 350기가 톤 미만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어떻게 감히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하나도 바꾸지 않고 몇몇 기술적인 해결책만으로 이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는 척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처럼 탄소 배출을 계속한다면, 남아 있는 이산화 탄소 예산마저도 8년 반 안에 모두 소진되어 버릴 텐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제시되는 어떠한 해결책도 탄소 예산 잔액을 고려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탄소 예산을 나타내는 이 수치는 여러분에게 매우 불편할 것이고, 여러분은 아직 사실을 직시하고 인정할 만큼 충분히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대는 여러분의 배신을 알아채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든 미래 세대의 눈이 여러분을 향해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를 실망시킬 길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결코 여러분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 책임에서 빠져나갈 수 없게 할 것입니다. 바로 여기, 지금이 우리가 선을 긋는 곳입니다. 좋은 선택이 깨어나고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연설에서 '어떻게 감히'라든지 '~라면 여러분은 악마일 것'이라는 표현은 논술에 어울리지 않는 감정적 표현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연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런 감정적 표현보다는 톰베리의 명확한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 수치와 함께 제시하는 증거를 통해 성공적으로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평가는 어떤가요?





부록

프로젝트 활동 174

1. 시사 탐구 논술
2. 진로 고찰 논술

인용 자료 및 사진 자료 출처 196



프로젝트 활동

여러분, 스포츠 종목 중 진지하게 배웠거나 지금도 배우는 중인 것이 있나요? 여러분이 그런 경험이 있다면 어떤 스포츠 종목도, 경기하기 위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한 번에 배우기 어렵다는 것을 알 거예요. 예컨대 사격을 배운다고 하면, 첫째 날은 사격장에서 지켜야 할 안전 수칙과 사격할 때의 바른 태도만 배웁니다. 둘째 날은 사대 앞에 바르게 서는 법, 총을 바르게 쥐는 법, 장전하는 법 정도를 배울 거예요. 이후로도 호흡하는 법, 조준하는 법, 격발하는 법 등을 하나씩 차근차근 배워야 합니다.

단계별로 하나하나 배운 내용들은 실제 사격 경기에 나가거나 스포츠로서 사격을 즐길 때 비로소 빛을 발하게 됩니다. 축구, 배구, 농구 등 다른 종목도 다 그렇고, 심지어 스포츠 뿐만 아니라 인간 사회의 여러 분야가 비슷한 이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계별로 배운 것들은 조각난 채로 두었을 때는 그 가치와 의미를 잘 모를 수 있지만, 그것이 한데 모여 완성된 종합적 능력으로 쓰일 때 비로소 진가를 발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12개 소단원에 마련된 본문을 읽고, 학습 활동을 수행하며 논술 과목의 학습 목표를 하나씩 달성해 가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중간에 여러 어려움을 겪고 미흡한 부분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 여러분은 이미 제법 훌륭한 ‘논술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자신의 실제 희망 진로’ 또는 ‘실생활 속 시사 이슈’로 한 편의 완성된 논술문을 써 보며 어엿한 ‘논술인’이 된 자기 모습을 확인해 봅시다. 그리고 논술 과목을 근사하게 마무리하기를 바랍니다.

1 | 시사 탐구 논술

1 논제 정하기

해결책 또는 견해가 둘 이상으로 제시될 수 있는 이슈를 논제로 정한다. 정하는 과정에서 탐구 동기, 시사적 배경, 주요 용어, 관련된 교과의 핵심 개념, 자신의 잠정적 주장도 밝힌다.

----- 176쪽

2 자료 수집하기

논제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여 요약한다.

----- 177~179쪽

3 개요 작성하기

수집한 자료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개요를 작성한다.

- 해결책 제시형 ----- 180쪽
- 견해 제시형 ----- 181쪽

4 초고 쓰기

논술문의 초고를 쓴다.

- 해결책 제시형 ----- 182쪽
- 견해 제시형 ----- 183쪽

5 초고 점검하기 / 6 고쳐쓰기

초고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고쳐 써서 논술문을 완성한다.

----- 184~185쪽

2 | 진로 고찰 논술

1 논제에 대한 생각 나누기

‘(본인 이름)은/는 생애 첫 직업으로 () 되기를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논제를 세우고, 이 논제와 관련된 생각을 친구와 자유롭게 나눈다.

----- 187쪽

2 생각 정리하기 /

3 쟁점별 진위 또는 구체적 수준 파악하기

나눈 생각을 찬반별·쟁점별로 정리하며 추리고, 추린 내용들은 자료 수집을 통해 진위 또는 구체적 실체를 파악한다.

----- 188~190쪽

4 개요 작성하기

파악한 내용으로 개요를 작성한다.

----- 191쪽

5 초고 쓰기

논술문의 초고를 쓴다.

----- 192쪽

6 초고 점검하기 / 7 고쳐쓰기

초고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고쳐 써서 논술문을 완성한다.

----- 193~194쪽

논제	☐ 해결책 제시형 ☐ 견해 제시형
주장(결론)	
탐구 동기	
시사적 배경	
용어 정의	
관련 교과 의 핵심 개념	

주장(결론)

자료 검색 및
요약하기

자료 검색 및
요약하기

- 제목:
- 출처:
- 핵심어:
- 핵심 내용:

- 제목:
- 출처:
- 핵심어:
- 핵심 내용:

2 자료 수집하기

주장(결론)

자료 검색 및
요약하기

- 제목:
- 출처:
- 핵심어:
- 핵심 내용:

자료 검색 및
요약하기

- 제목:
- 출처:
- 핵심어:
- 핵심 내용:

2 자료 수집하기

주장(결론)	
자료 검색 및 요약하기	• 제목: • 출처: • 핵심어: • 핵심 내용:
자료 검색 및 요약하기	• 제목: • 출처: • 핵심어: • 핵심 내용:

주장(결론)

문제 상황 정리

문제 원인 분석

해결책 제시

□ 찬성	□ 반대
• 주장:	• 주장:
• 근거·증거:	• 근거·증거:
• 근거·증거:	• 근거·증거:
• 근거·증거:	• 근거·증거:

주장	
들어가기 (주장하기)	* 포함할 요소: 독자의 관심 유도(핵심 용어 풀이, 논제와 관련된 사건이나 일화 언급, 경구나 관용어의 인용 등), 논제 소개, 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
문제 상황의 심각성 (근거·증거)	
문제 원인 분석 (근거·증거)	
해결책 제시 (근거·증거)	
마무리 (주장 강조)	* 포함할 요소: 자신의 해결책 강조 및 예상 반론과 재반론, 자신의 해결책이 지닌 의미(사회적, 정신적, 장기적 차원)

주장	
들어가기 (주장하기)	* 포함할 요소: 독자의 관심 유도(핵심 용어 풀이, 논제와 관련된 사건이나 일화 언급, 경구나 관용어의 인용 등), 논제 소개, 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
근거·증거	
반론의 근거·증거	
반론을 꺾는 근거·증거	
마무리 (주장 강조)	* 포함할 요소: 논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 강조, 자신의 견해가 지닌 의미(사회적, 정신적, 장기적 차원)

■ 평가 요소에 따라 점검하기

구분		점검 결과
필수 평가 요소	분명함, 명료함, 정확성, 적절성	
일반 평가 요소	중요성, 충분성, 일관성, 공정성	
	독창성, 심층성, 다각성	



초고에 대한
평가문

■ 내용, 구성, 표현의 측면에서 점검하기

점검 기준	점검 결과
글의 주장이 명확한가?	
글 전체가 일관성이 있는가?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적절하고 타당한가?	
예상 반론을 제시할 경우 그에 대한 재반론이 적절한가?	
문단의 배열 순서가 체계적인가?	
각 문단은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문장 표현이 어법에 맞고 자연스러운가?	
단어의 사용은 적절한가?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_____

도달한 성취기준

* 특히 잘 도달한 성취기준을 고르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자.

- ① 논술은 지식의 수용과 전달 및 합리적 설득을 위한 의사소통 방법임을 이해하고, 합리적 설득과 비합리적 설득의 차이를 비교·탐색한다.
- ② 비판적 사고의 의미와 필요성을 이해하고 논술이 비판적 사고에 기반한 글쓰기임을 인식한다.
- ③ 자료 활용 방법과 글쓰기 윤리를 이해하고 글쓰기에 적용한다.
- ④ 텍스트 분석 및 요약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텍스트의 유형별 차이를 비교·탐색한다.
- ⑤ 텍스트 유형별 분석 방법을 이해하고 분석에 적용한다.
- ⑥ 텍스트에 대한 분석 결과 및 요약의 일반 규칙을 적용하여 텍스트의 유형에 맞는 요약문을 작성한다.
- ⑦ 논증적 텍스트 평가의 의미와 필요성을 이해

- 하고, 필수 평가 요소와 일반 평가 요소의 차이를 비교·탐색한다.
- ⑧ 필수 평가 요소와 일반 평가 요소를 적용하여 논증적 텍스트를 평가한다.
 - ⑨ 평가 내용을 중심으로 평가문을 작성한다.
 - ⑩ 주장하는 글쓰기의 의미와 작성 시 주의 사항을 이해하고,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밝히는 글쓰기의 필요성을 인식한다.
 - ⑪ 합리적 설득의 의미와 필요성을 이해하고, 다양한 자료와 정보를 활용하여 적절한 근거를 제시하며 주장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글을 작성한다.
 - ⑫ 퇴고·수정하는 방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글의 구성이나 내용을 정확하고 치밀하게 검토하며 글을 완성한다.

성장한 핵심역량

* 특히 잘 성장한 핵심역량을 고르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자.

- ① **자기관리 역량:** 자아정체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과 진로를 스스로 설계하며 이에 필요한 기초 능력과 자질을 갖추어 자기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역량
- ② **지식정보처리 역량:**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영역의 지식과 정보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탐구하며 활용할 수 있는 역량
- ③ **창의적 사고 역량:** 폭넓은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 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을 융합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역량

- ④ **심미적 감성 역량:** 인간에 대한 공감적 이해와 문화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성찰하고 향유하는 역량
- ⑤ **협력적 소통 역량:** 다른 사람의 관점을 존중하고 경청하는 가운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며 상호협력적인 관계에서 공동의 목적을 구현하는 역량
- ⑥ **공동체 역량:** 지역·국가·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개방적·포용적 가치와 태도로 지속 가능한 인류 공동체 발전에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게 참여하는 역량

논제	()은/는 생애 첫 직업으로 () 되기를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장(결론)	☐ 바람직하다. ☐ 바람직하지 않다.
논제와 관련하여 나눠 본 생각 ()은/는 어떠한 사람인가? ()은/는 어떠한 직업인가? '바람직하다'의 요건은 무엇인가? 그 외	

찬성(바람직하다)		반대(바람직하지 않다)
	쟁점 1 ()면	
	쟁점 2 ()면	
	쟁점 3 ()면	
	쟁점 4 ()면	
• 기타(공통 사항 등)		

쟁점 1	
파악 결과	
파악 내용	[증거 자료] • 제목: • 출처: [자료에서 쟁점의 진위 또는 구체적 수준을 파악하는 데 관련된 부분] • 핵심어: • 핵심 내용:
쟁점 2	
파악 결과	
파악 내용	[증거 자료] • 제목: • 출처: [자료에서 쟁점의 진위 또는 구체적 수준을 파악하는 데 관련된 부분] • 핵심어: • 핵심 내용:

3 쟁점별 진위 또는 구체적 수준 파악하기

쟁점 3	
파악 결과	
파악 내용	[증거 자료] • 제목: • 출처: [자료에서 쟁점의 진위 또는 구체적 수준을 파악하는 데 관련된 부분] • 핵심어: • 핵심 내용:

쟁점 4	
파악 결과	
파악 내용	[증거 자료] • 제목: • 출처: [자료에서 쟁점의 진위 또는 구체적 수준을 파악하는 데 관련된 부분] • 핵심어: • 핵심 내용:

논제와 주장	• 논제: • 주장: • 용어 정의:
근거·증거	• 근거 1: ↳ 증거 1: • 근거 2: ↳ 증거 2:
예상 가능한 반론과 반박	• 예상 가능한 반론 1: ↳ 반론에 대한 반박(또는 제한적 인정) 1: ↳ 반박(또는 제한적 인정)의 근거·증거 1: • 예상 가능한 반론 2: ↳ 반론에 대한 반박(또는 제한적 인정) 2: ↳ 반박(또는 제한적 인정)의 근거·증거 2:
논의 요약 및 평가	• 논의 요약: ↳ 논의 평가(무엇이 더 중요한 가치인가?): ↳ 찬반 양측의 설득력 평가:
끝맺음 (주장 재강조)	

서론

본론 1

본론 2

본론 3

본론 4

결론

■ 평가 요소에 따라 점검하기

구분		점검 결과
필수 평가 요소	분명함, 명료함, 정확성, 적절성	
일반 평가 요소	중요성, 충분성, 일관성, 공정성	
	독창성, 심층성, 다각성	



초고에 대한
평가문

■ 내용, 구성, 표현의 측면에서 점검하기

점검 기준	점검 결과
글의 주장이 명확한가?	
글 전체가 일관성이 있는가?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적절하고 타당한가?	
예상 반론을 제시할 경우 그에 대한 재반론이 적절한가?	
문단의 배열 순서가 체계적인가?	
각 문단은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문장 표현이 어법에 맞고 자연스러운가?	
단어의 사용은 적절한가?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_____

도달한 성취기준

* 특히 잘 도달한 성취기준을 고르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자.

- ① 논술은 지식의 수용과 전달 및 합리적 설득을 위한 의사소통 방법임을 이해하고, 합리적 설득과 비합리적 설득의 차이를 비교·탐색한다.
- ② 비판적 사고의 의미와 필요성을 이해하고 논술이 비판적 사고에 기반한 글쓰기임을 인식한다.
- ③ 자료 활용 방법과 글쓰기 윤리를 이해하고 글쓰기에 적용한다.
- ④ 텍스트 분석 및 요약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텍스트의 유형별 차이를 비교·탐색한다.
- ⑤ 텍스트 유형별 분석 방법을 이해하고 분석에 적용한다.
- ⑥ 텍스트에 대한 분석 결과 및 요약의 일반 규칙을 적용하여 텍스트의 유형에 맞는 요약문을 작성한다.
- ⑦ 논증적 텍스트 평가의 의미와 필요성을 이해

- 하고, 필수 평가 요소와 일반 평가 요소의 차이를 비교·탐색한다.
- ⑧ 필수 평가 요소와 일반 평가 요소를 적용하여 논증적 텍스트를 평가한다.
 - ⑨ 평가 내용을 중심으로 평가문을 작성한다.
 - ⑩ 주장하는 글쓰기의 의미와 작성 시 주의 사항을 이해하고,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밝히는 글쓰기의 필요성을 인식한다.
 - ⑪ 합리적 설득의 의미와 필요성을 이해하고, 다양한 자료와 정보를 활용하여 적절한 근거를 제시하며 주장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글을 작성한다.
 - ⑫ 퇴고·수정하는 방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글의 구성이나 내용을 정확하고 치밀하게 검토하며 글을 완성한다.

성장한 핵심역량

* 특히 잘 성장한 핵심역량을 고르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자.

- ① **자기관리 역량:** 자아정체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과 진로를 스스로 설계하며 이에 필요한 기초 능력과 자질을 갖추어 자기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역량
- ② **지식정보처리 역량:**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영역의 지식과 정보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탐구하며 활용할 수 있는 역량
- ③ **창의적 사고 역량:** 폭넓은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 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을 융합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역량

- ④ **심미적 감성 역량:** 인간에 대한 공감적 이해와 문화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성찰하고 향유하는 역량
- ⑤ **협력적 소통 역량:** 다른 사람의 관점을 존중하고 경청하는 가운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며 상호협력적인 관계에서 공동의 목적을 구현하는 역량
- ⑥ **공동체 역량:** 지역·국가·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개방적·포용적 가치와 태도로 지속 가능한 인류 공동체 발전에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게 참여하는 역량

인용 자료 및 사전 자료 출처

인용 및 참고 자료 출처

I. 논술과 비판적 사고

- 11쪽 윌리엄 쉬어·마리아노 아르티가스, 고종숙 옮김, 『갈릴레오의 진실』(동아시아, 2006) 참고
- 16쪽 Lawrence Kohlberg, 『Essays on Moral Development, Vol 1.: The Philosophy of Moral Development』(San Francisco, CA: Harper & Row, 1981)
- 20쪽 이순신, 『난중일기 4』-1597, 정유년 6월 22일 일기, 한국고전번역원(<https://db.itkc.or.kr/>),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경성부사: 국역 제3권』(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2014) 764쪽 참고
- 28쪽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https://creativecommons.org/share-your-work/cclicenses/> 참고
- 29쪽 저작권법 제28조: <https://www.law.go.kr/법령/저작권법>
- 30쪽 공공누리: <https://www.kogl.or.kr/info/license.do>
- 31쪽 가: 국민일보, 2017년 6월 23일 자
나: 법률신문, 2019년 1월 17일 자
- 32쪽 • 저작권법 제28조: [https://www.law.go.kr/법령/저작권법/\(11903,20130716\)](https://www.law.go.kr/법령/저작권법/(11903,20130716))
• 부정 경쟁 방지법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11963,20130730\)](https://www.law.go.kr/법령/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11963,20130730))
- 33쪽 가·나: 송지현·정은영, 「대학 신입생의 대학 생활 적응 영향 요인」(한국웰니스학회, 『한국웰니스학회지』 15권 1호, 173~183쪽, 2020) 173, 174, 182, 183쪽
- 단원 참고 자료
• 박정하·박은미·현남숙·이현재·이정호, 『세상 읽기와 논술』(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II. 요약하는 글쓰기

- 44쪽 나: 하종오, 『아시아계 한국인들』(삶이보이는창, 2007) 10~11쪽
- 46쪽 서울경제신문, 2022년 12월 15일 자

- 47쪽 그래프: 안강모 외, 「Identification of atopic dermatitis phenotypes with good responses to probiotics(Lactobacillus plantarum CJLP133) in children」(Beneficial Microbes, Volume 8, Number 5, 13 October 2017, pp. 755-761) 참고
- 48쪽 청소년 참여 포털(https://www.youth.go.kr/ywith/prp/view.do?menu_idx=5&prpReqIdx=2282) 참고
- 49쪽 국가 동물 보호 정보 시스템(<https://www.animal.go.kr/front/community/show.do?boardId=contents&seq=66&menuNo=2000000016>) 참고
- 51쪽 윤준탁, 「잠자는 보물, 다크 데이터」(<https://www.lgcns.com/blog/cns-tech/ai-data/4985/>)
- 56쪽 나: 와이티엔(YTN), 2023년 1월 24일 자 재구성
- 57쪽 독도의 미래 자원: 동북아 역사 재단, 『독도 바로 알기』(2011) 66쪽
- 60~61쪽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인체 비례도': 월터 아이작슨, 신봉아 옮김, 『레오나르도 다빈치』(북이십일 아르테, 2019) 203~213쪽 참고 및 재구성
- 62쪽 가·나: 마이클 샌델, 함규진 옮김, 『공정하다는 착각』(와이즈베리, 2020) 66~68쪽
- 64쪽 나: 지속 가능 발전 해법 네트워크, 「세계 행복 보고서 2022」(<https://worldhappiness.report/ed/2022/>) 17~19쪽
- 65쪽 가: 더닝 크루거 효과(https://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MAS_IDX=230221001777399) 재구성
- 66쪽 토머스 홉스, 진석용 옮김, 『리바이어던』-1(나남, 2008) 231~232쪽
- 67쪽 그래프: 지속 가능 발전 해법 네트워크, 「세계 행복 보고서 2018」(<https://worldhappiness.report/ed/2018/>) 33쪽
- 68쪽 나: 통일 연구원, 「KINU 통일 의식 조사 2022」(https://www.kinu.or.kr/main/module/report/view.do?idx=114266&nav_code=mai1674786094) 13쪽 참고
다: 케이비에스(KBS), 「2022년 국민 통일 의식 조사」

(https://program.kbs.co.kr/online/office/tongil/pc/board.html?smenu=953893&&bbs_loc=X2023-0095-04-730816,read,none,1,1297154) 32쪽

72쪽 장기 기증: 피엠지(pmg) 지식 엔진 연구소, 『시사 상식 사전』(박문각, <https://terms.naver.com/entry.naver?cid=43667&docId=71671&categoryId=43667>)

73쪽 • 해마: 리사 제노바, 윤승희 옮김, 『기억의 뇌과학』(웅진지식하우스, 2022) 29쪽
• 엠비티아이(MBTI): 한국심리학회, 『심리학 용어사전』(<https://terms.naver.com/entry.naver?cid=41991&docId=2070205&categoryId=41991>), 성격 유형(<https://www.16personalities.com/ko/성격-유형>) 참고 및 재구성

74~75쪽 재러드 다이아몬드, 김진준 옮김, 『충, 군, 쇠』(문학사상, 2005) 351~354쪽

76쪽 「갑국의 돼지고기 시장 변화 추이」: 성균관대학교, ‘2023학년도 인문계 모의 논술’

78쪽 1, 2. 문화일보, 2024년 2월 6일 자

79쪽 1: 통계청(https://blog.naver.com/hi_nso/222892501856)

80쪽 2: 아미시 자, 안진이 옮김, 『주의력 연습』(어크로스, 2022) 45쪽
3: 안우경, 김보람 옮김, 『씹킹 101』(흐름출판, 2023) 30~31쪽 참고

81~82쪽 문유석, 『최소한의 선의』(문학동네, 2021) 208~212, 214~215, 224쪽

III. 평가하는 글쓰기

90쪽 2022 초중등 진로 교육 현황 조사 결과 발표(교육부·한국 직업 능력 연구원, <https://if-blog.tistory.com/13881>)

124~125쪽 이데일리, 2023년 9월 11일 자, 동아일보, 2023년 3월 14일 자, 독서신문, 2017년 3월 24일 자 참고 및 재구성

단원 참고 자료

- 박정하·박은미·현남숙·이현재·이정호, 『세상 읽기와 논술』(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IV. 주장하는 글쓰기

135쪽 권순희, 「다문화 사회와 국어 교육: 이중 언어 교육의 필요성과 정책 제언」(국어교육학회, 『국어교육연구』 34권, 57~115쪽, 2009), 송채수, 「이중 언어 사회화가 다문화 가정 아동·청소년의 자기 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아시아문화연구소, 『아시아문화연구』 48권, 245~280쪽, 2018) 참고

149쪽 김인겸, 「소년법 폐지만이 정답인가」(매일경제, 2021년 7월 30일 자)

150쪽 전국도덕교사모임, 『도덕적 시민의 눈으로 세상 읽기』(해냄에듀, 2022) 219쪽

151쪽 아주경제, 2019년 5월 26일 자

153쪽 제민일보, 2021년 12월 20일 자

158쪽 매일신문, 2019년 9월 19일 자 참고

165쪽 시엔비(CNB) 뉴스, 2021년 5월 6일 자 참고 및 재구성

170~171쪽 서울환경연합(<https://youtu.be/BvF8yG7G3mU?si=SgWYU23BX2IK73VM>)

큐알 코드 목록 및 출처

29쪽 국가 법령 정보 센터(<https://www.law.go.kr>)

35쪽 학술 연구 정보 서비스(<https://www.riss.kr>)

138쪽 지속 가능 발전 포털(<https://ncsd.go.kr>)

*집필진이 직접 집필한 것은 출처를 밝히지 않았음.

사진 자료 출처

I. 논술과 비판적 사고

12쪽	좌하: 셔터스톡
13쪽	셔터스톡
14쪽	셔터스톡
15쪽	셔터스톡
19쪽	우중: 셔터스톡
20쪽	상·하: 셔터스톡
23쪽	셔터스톡
26쪽	좌하: 셔터스톡
27쪽	우하: 셔터스톡
28쪽	좌상: 셔터스톡, 하: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https://creativecommons.org/share-your-work/cclicenses/)
29쪽	우중: 셔터스톡
30쪽	상: 공공누리(https://www.kogl.or.kr/info/license.do), 하: 셔터스톡
31쪽	우상: 셔터스톡
33쪽	셔터스톡
37쪽	셔터스톡
38쪽	셔터스톡
39쪽	셔터스톡
40~41쪽	셔터스톡
40쪽	하: 「증기선 윌리」 포스터(https://movie.daum.net/moviedb/contents?movieId=35018#photoId=690977)
41쪽	게티이미지뱅크

II. 요약하는 글쓰기

44쪽	가: 한국 방송 광고 진흥 공사(https://www.kobaco.co.kr/site/main/archive/advertising/5/1083?cp=48&pageSize=8&sortDirection=DESC&arcUse=true&arcCategory=5&metaCode1=print&adtDefaultYear=false)
-----	--

48쪽	https://www.noz.de/lokales/osnabrueck/artikel/nachweis-fuer-alle-rassen-hundefuehrerschein-ist-ab-1-juli-pflicht-42115018
49쪽	게티이미지뱅크
50쪽	상: 셔터스톡, 하: 게티이미지뱅크
51쪽	게티이미지뱅크
53쪽	그린피스 서울 사무소(https://www.facebook.com/greenpeacekorea/photos/a.161515240610044/1896731517088399/?type=3)
54쪽	가~바, 아~타: 셔터스톡
55쪽	셔터스톡
57쪽	셔터스톡
58쪽	https://www.adsoftheworld.com/campaigns/bedroom-circle
60쪽	게티이미지코리아
61쪽	게티이미지뱅크
65쪽	우상·우하: 셔터스톡
66쪽	셔터스톡
69쪽	상: 셔터스톡, 하: 한국 방송 광고 진흥 공사(https://www.kobaco.co.kr/site/main/archive/advertising/5/14375?cp=1&pageSize=8&sortDirection=DESC&arcUse=true&arcCategory=5&metaCode1=print&adtDefaultYear=false)
73쪽	셔터스톡
74쪽	게티이미지코리아
77쪽	게티이미지뱅크
78쪽	셔터스톡
80쪽	셔터스톡
82쪽	셔터스톡
83쪽	셔터스톡
84쪽	셔터스톡
85쪽	셔터스톡
86~87쪽	셔터스톡
86쪽	하: 「가을 사과」 이철수, 1997(https://www.mokpan.com/home/sub.php?menukey=65&kwd2=가을사과)
87쪽	좌·우: 키크니(https://www.instagram.com/p/)

CuX24I7PTvg/?utm_source=ig_web_copy_link&igs
hid=MzRIODBiNWFIZA%3D%3D)

Ⅲ. 평가하는 글쓰기

94쪽	셔터스톡
95쪽	셔터스톡
96쪽	셔터스톡
97쪽	게티이미지뱅크
98쪽	게티이미지뱅크
99쪽	셔터스톡
102쪽	셔터스톡
103쪽	게티이미지뱅크
104쪽	좌상: 셔터스톡
105쪽	우상: 셔터스톡
107쪽	셔터스톡
111쪽	셔터스톡
113쪽	셔터스톡
114쪽	게티이미지뱅크
118쪽	게티이미지뱅크
119쪽	좌: 게티이미지뱅크, 우상·우하: 셔터스톡
121쪽	셔터스톡
122쪽	셔터스톡
123쪽	셔터스톡
124~125쪽	셔터스톡
124쪽	하: 게티이미지코리아
125쪽	게티이미지코리아

Ⅳ. 주장하는 글쓰기

130쪽	셔터스톡
131쪽	상·하: 셔터스톡
133쪽	상·하: 셔터스톡
134쪽	게티이미지뱅크

135쪽	상: 셔터스톡, 하: 여성 가족부(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8479)
137쪽	셔터스톡
138쪽	지속 가능 발전 포털(https://ncsd.go.kr/)
141쪽	게티이미지뱅크
142쪽	상: 셔터스톡, 하: 게티이미지뱅크
145쪽	셔터스톡
147쪽	게티이미지뱅크
148쪽	상·하: 셔터스톡
150쪽	게티이미지뱅크
151쪽	셔터스톡
155쪽	셔터스톡
156쪽	게티이미지뱅크
157쪽	셔터스톡
160쪽	게티이미지뱅크
161쪽	셔터스톡
164쪽	셔터스톡
165쪽	좌·중·우: 게티이미지뱅크
166쪽	셔터스톡
167쪽	셔터스톡
168쪽	셔터스톡
169쪽	셔터스톡
170~171쪽	셔터스톡
170쪽	하: 게티이미지코리아
171쪽	상·하: 게티이미지뱅크

부록

173쪽	게티이미지뱅크
------	---------

*저작자 및 발행사에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출처 표시를 하지 않았음.

집필진	신홍규*	한양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Ⅲ단원 집필	김상욱	한양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Ⅳ단원 집필	* 집필진 대표
	김중현	배재고등학교 Ⅲ단원 집필	안치황	전북특별자치도무주교육지원청 Ⅰ단원 집필	
	우보영	원목고등학교 Ⅳ단원 집필	윤윤구	한양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Ⅱ단원 집필	
	이주영	세화고등학교 Ⅰ단원 집필	장성민	선덕고등학교 Ⅱ단원 집필	

심의 기관

대구광역시교육청

심의 위원

편집 및 디자인	개발 총괄	정덕균
	편집	박수희, (주)유레카엠앤비
	디자인	(주)해냄에듀 디자인팀, (주)유레카엠앤비
	삽화	김소연

고등학교	논술	교육부 장관의 위임을 받아 대구광역시교육감이 2024년 ○월 ○일 인정 승인을 하였음.		
	초판 발행	2024. ○○. ○○.	정가	원
	지은이	신홍규 외 7인		
	발행인	송영석(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 30 해냄빌딩 3, 4층 (주)해냄에듀)		
	인쇄인	벽호(경기도 파주시 한빛로 43)		

- 이 교과서의 본문 용지는 우수 재활용 제품 인증을 받은 재활용 종이를 사용하였습니다.
- 교과서에 대한 문의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은 교육부와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이 운영하는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전화 1566-8572, www.textbook.com 또는 www.교과서114.com)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도서에 게재된 저작물에 대한 보상금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단법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전화 02-2608-2800, www.kolaa.kr)에서 저작권산권자에게 지급합니다.

내용 관련 문의 (주)해냄에듀 전화 02-323-9953 전송 02-323-9950
공급 업무 대행 사단법인 한국교과서협회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439-1
개별 구입 문의 사단법인 한국교과서협회 홈페이지 주소 www.ktbook.com 전화 031-956-8581~4

ISBN

고
등
학
교

논
술

